진주청소년신문
JINJU ADOLESCENT NEWSPAPER

FEELTONG

2015년 12월 12일 금요일 복간 제 25호 ifeeltong.org 사/단/법/인/청/소/년/문/화/공/동/체/필/통

[[이달의 인물] 동명고등학교 2학년 R.O.V 박건형
[청소년뉴스] 한국 학생, 사라질 직업 위해 학교서 하루 15시간을 낭비
국정교과서 청소년들 UN에 직접 청원 계획
[학교소식] 진주동중 이윤형 선생님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
진주제일여고 선학진로체험활동
진주 명신고 장성우 여성부 장관상 수상
진주중앙고,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금상
[필통실험실] 겨울철 필수품 립밤 5종 비교분석
[특집] 한국사 국정화, 우리의 미래를 마음대로 하지 마라
[맷캉년맷반] 동명고등학교 1학년3반 편
[반보드 enquete] 대아고 2학년 2반 VS 경해여고 2학년 5반
[FOCUS 한 컷] 여러분의 교실 책상 서랍은 어떤가요?
[필통시식단] 깨통닭 요리, 치킨 마요랑께! 만들어 보세요
[동아리 탐방] 대아고등학교 토론동아리 아고라편
[19금 파헤치기] 우리가 몰랐던 역사 속 19금
[진주투어] 남강을 가로지르는 10개의 다리이야기
[이슈톡톡] 영어절대평가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JOB을 잡아라] 대한민국 1인 미디어의 원조 -미디어 몽구를 만나다
[우리 선생님] 진주여자고등학교 조영현 수학 선생님
[취재수첩] 자소서가 '자소설'이 되는 불편한 진실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해?
당신도 수포자입니까?
아파트엔 층간소음 학교교실엔 벽간소음?
교육적 체벌과 폭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꼭 알자] 청소년 알바 10계명
[필통 타임머신] SNS세상 그 옛날 그 자리엔 뭐가 있었지?
[필통우체통] 독자글모음
[필통네모로직] 지난호 정답자 발표

갤러리아백화점
건너편
확장이전

White Medical
하얀메디컬

하얀메디컬은
분야별 전문의가 진료를 합니다

하얀메디컬 전문과목
하얀피부과
하얀성형외과
하얀소아청소년과
하얀이비인후과

www.whitemedical.co.kr

2016학년도
필통 학생기자단 모집

필통에서는 글 잘쓰고 능력있는 사람보다
열정과 책임감이 넘치고 배려심 많은 매력적인 사람을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멋진 시간을 필통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모집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 (서류심사 후 면접일자는 개별통지)
모집인원 : 15명 내외
모집대상 : 진주시 관내 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함
(휴학생, 퇴학생 포함)
모집방법 : 서류전형-면접으로 합격 통지함. (면접통과후 기자학교 수료)
응시방법 : 필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기자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또는 홈페이지에 올려 주세요! (feeltong1318@hanmail.net)

[이달의 인물] 동명고등학교 2학년 R.O.V 박건형

전교부회장 건반이형! 피아노 건반은 제 삶과 항상 함께 합니다

누구라도 한번쯤 꿈꿔봤을 로망. 바로 피아노! 피아노라 하면 보통 감미로운 선율과 함께 은은한 분위기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모든 법칙엔 예외가 있는 법! 상상이상의 엄청난 퍼포먼스와 훌륭한 실력으로 진주의 청소년들에게 조금은 다른 피아노의 매력을 보여주는 이가 있다. 피아노를 세워서 친다는 소문도 있다던데... 과연 사실일까? 동명고 밴드부 'R.O.V'의 건반을 담당을 맡고 있는 소울400% '건반이형'. 학교에선 전교 부회장으로도 잘 알려진 진주 동명고등학교 2학년 박건형. 그를 취재하기 위해 달려갔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동명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박건형이라고 합니다. 동명고 밴드부에서 건반 역할을 맡고 있고, '건반이형 '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Q. 피아노를 시작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나요?

A. 특별한 계기는 없지만 어머니께서 집에서 심심 할 때마다 피아노를 치셨고 어릴 때부터 들어왔죠. 어머니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학원을 다니진 않았고 거의 독학이죠. 즐거운 취미예요. 드럼, 베이스등 다른 악기도 독학을 했어요.

Q. 혹시 피아노를 칠 때 자신만의 습관 같은 것이 있나요?

A. 때려요.^^ 피아노를 치다가 건반을 때리는 것이 제 습관이죠. 실제로 그렇게 때리다가 손목이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의도했다기보다 그냥 치면서 음악과 함께하다보면 그렇게 될때가 많죠.

Q. 소문으로 듣자면 피아노를 옆으로도 친다는데 사실인가요?

A. (당황하며 웃음..^^) 연주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진 않아요. 음악과 어울릴수만 있다면 어떻게 연주하든 상관없죠. 사실 옆으로도 치고 다리로도 치고 피아노를 세워서도 치고, 피아노를 때리면서 연주를 하기도 하죠. 제만의 방법으로 연주를 하려고 하다보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공연에서도 이런 퍼포먼스를 자주 하기도 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음악과 연주에 어울려야 되는 것이구요.

Q.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A. 처음에는 장기하의 얼굴들 밴드의 건반담당이 피아노를 세워서 치는 것을 보고 정말 멋있다고 느꼈어요. 실제로 연습하고 시도해보니 할만 했어요. 그 뒤로도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피아노를 치려고 노력했죠.

Q. 혹시 공연하다보면 실수하지는 않나요?

A. 생각 보다 손이 엉킬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마다 그 부분을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나 순간적으로 코드를 듣고 직접 만들어서 쳐요. 아무튼 가장 중요한 건 그런 때마다 빨리 대처할 수 있어야 되죠.

Q. 그렇다면 장래희망도 피아니스트나 음악쪽인가요?

A. 솔직히 말하면 피아니스트죠. 피아노를 치고 음악을 하며 살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또 현실은 그 길을 걷기엔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서도 공무원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원하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구요. 그러나 직업적인 음악인이나 피아니스트가 되지 못한다 해도 언제나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Q. 동명고등학교 전교 부회장이라고 하던데요?

A. 전 뭐든 적극적인 편이예요. 학교는 공부를 하는 곳이지만 그외에도 중요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여러 활동들도 많이 하고 친구들과의 재미난 추억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보니 반장도 하게 되고 지금은 전교부회장 일을 하고 있답니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불안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하고 뭐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제가 어떤 자리에 서 있든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피아노와 음악과 함께하길 바라구요.

Q. 피아노 연습을 엄청 한다고 들었는데요. 집에서의 마찰은 없는지?

A. 아무래도 학생이니까 공부를 안 하고 피아노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을 부모님이 좋아하시진 않겠죠. 좀 답답하긴 해요. 차라리 피아노나 음악으로 진학을 하고 그쪽 길을 확고히 걷는다면 모르겠는데 그런건 아니니까. 부모님 걱정은 당연한거죠. 마찰이 있긴 해도 요즘에는 부모님이 크게 뭐라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Q. 혹시 피아노 치는데 롤모델이 있나요?

A. 딕펌스의 김현우예요. 장르가 제가 좋아하는 락이기도 한데다가, 피아노도 잘 치고... 그 분야에서는 그래도 독보적인 존재니까 닮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퍼포먼스나 건반 치는 방법 같은게 말이죠.

Q. 연습은 주로 어디서, 어느정도 하세요?

A. 연습은 청소년 수련관이나 학교, 집에서 해요. 혼자 할 때도 있고 공연 잡히면 밴드 친구들이랑 같이 연습하죠. 공연 잡힐 때마다 다르지만 짧을 때는 일주일, 길 때는 한 두달 정도 연습기간이 필요하답니다. 연습부족으로 공연이 제대로 안되면 그 찝찝한 기분은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연습기간을 충분히 두는편이예요.

Q. 피아노를 치다가 힘든 적이 있나요?

A. 제가 공연중 퍼포먼스를 많이 하다 보니 팔상태가 안 좋아요. 팔이랑 손목이 부상을 당한 적도 있고, 한번은 치다가 손목이 많이 아파서 붕대를 감고 다닌 적도 있죠. 또 손톱이 잘 깨져요. 그럴 때마다 힘들죠. 그리고 친구들이 저를 당치에 안 맞게 피아노를 친다고 핀잔을 주거나 저를 멍신고 학생으로 착각 할 때 스트레스를 받아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A. 저를 계속 지켜봐주고 좋아해주는 친구들 모두 고맙구요. 제 외모나 당치에 안 맞게 피아노를 친다는 선입견을 버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동명고 학생인 것도 기억해주시면 고맙죠. 저는 가능하면 죽을 때 까지 피아노를 계속 치고 싶어요.^^

[취재/ 정지윤(사대부고2), 김동성(명신고1)]

BYCE2016

Busan Youth Creative Economy
: The Innovation

부산청소년창조경제경진대회 운영진 모집

BYCE 사무국에서 부산청소년창조경제경진대회를 기획하고 이끌어 갈 운영진을 모집합니다.
잘 해야 한다는 부담이 아닌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를 가지고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모집대상 : 진주시내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생
■ 모집인원 : 10명
■ 모집기간 : 2015년 12월 17일 목요일까지
■ 활동장소 : 진주
■ 문의 및 신청방법
홈페이지 :
http://byc2016.wix.com/byc2016
페이스북 페이지 :
〈부산청소년창조경제경진대회〉
■ 이메일 : byce2016@naver.com
■ 전화번호 : 010 – 2088 – 0160

한국 학생, 사라질 직업 위해 학교서 하루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한국 학생들은 학교와 학원에서 미래에 필요하지도 않은 지식과 존재하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하루에 15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가 지적한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시험 점수를 얻기 위한 교육, 대학 입시를 위한 교육으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다. 하지만 시대는 변하고 있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대학은 직업 702가지를 분석, 10년 후 이 중 47%가 없어진다고 발표했다. 그 자리는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이 대신한다. 학생들은 10년 뒤 로봇과 경쟁해야 하는 형편이지만 우리의 교육은 산업화 시대에 머물러 있다.

교육 석학 켄 로빈슨 교수도 획일적인 교육에 대해 지적했다.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면서 발생한 문제가 있다. 하나의 표준을 만들어 이에 미치지 못하는 학생에게 부진아나 열등생이라는 꼬리표를 붙이게 된 것. 이처럼 획일적인 교육은 표준을 잘 따라오는 소수 학생들만 키워낸다. 학생 모두가 각자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교육과는 동떨어져 있다.

로빈슨 교수는 개인 맞춤형 교육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려면 △인간의 지능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학생들이 자신만의 관심사와 장점을 살릴 수 있게 해주며 △시간표를 각자의 학습 속도에 맞춰주고 △개인별 진도와 성취도를 격려해주는 방식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표준화시험의 대안으로 처음 인정받은 영국의 '러닝 레코드' 법을 그 사례로 든다. 학생들의 실질적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문서로 기록해 각 단계별로 척도를 만들어 평가하는 방식이다. 예컨대 과학은 좋아하지만 읽기는 싫어하는 학생이 있다면 공상과학 소설을 읽게 하는 교육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 교육 방식은 학생들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면서 학습 경과를 기록하고 학부모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 받고 있다. 교육에 민주주의를 내세우는 이스라엘 하데라민주학교의 경우 학생 스스로 배우고 싶은 것과 그 방법을 선택하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등급도 없는 시험을 치른다.

로빈슨 교수는 "더 이상 학교에서 자신의 장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졸업하게 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한다. 책은 표준화라는 명목 아래 전세계적으로 이뤄지는 획일적 교육의 폐해를 비판하면서 어떤 아이도 외면 받지 않는 개인 맞춤형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국정교과서, 국제기준 어긋나요 청소년들 UN에 직접 청원 계획

청소년들이 유엔에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문제점을 알리는 직접 청원에 나선다.

11월 20일 국정화 반대 청소년행동(청소년행동)은 "정부는 국정화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반대 의견을 귀담아듣지 않았다. 정부가 귀를 닫고 있기 때문에 유엔 직접 청원을 통해 국정화의 문제점을 호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은 2013년 10월 총회에서 "국가가 역사교과서를 하나로 줄이는 것은 퇴보적(retrogressive) 조치로, 국가가 후원하는 교과서는 매우 정치화할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한 바 있다.

청소년행동은 페이스북 계정(www.facebook.com/nogookjung)을 통해 청원자를 모집한다. 청원서는 12월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에 맞춰 유엔에 발송할 계획이다. 청소년행동은 지난달 12일 중·고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행정예고 직후 생겨난 자생적 모임이다.

중·고 기초학력 미달, 서울이 1위 전북·강원 순

올해 기초학력에 미달한 중·고생 비율은 서울에서 가장 높았다. 중·고교 모두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가장 높고, 고교생의 도농 간 격차는 영어에서 가장 벌어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6월23일 중3·고2 학생 106만여명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 3개 교과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를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월 29일 밝혔다. 중·고교 전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3.9%로 지난해와 같았으나, 보통학력 이상(우수학력·보통학력) 비율은 77.4%로 지난해보다 3.4%포인트 감소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서울(5.7%)이 가장 높았고 전북(4.9%)·강원(4.6%)이 2·3위였다. 울산(1.0%), 대구(1.5%), 충북(1.5%)은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1%대로 가장 낮았다. 대도시와 읍·면지역 간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지난해 5.2%포인트에서 7.0%포인트로 벌어졌다. 이 차이는 고2의 경우 영어에서, 중3은 수학에서 가장 크게 벌어졌다.

중3의 경우 수학(4.6%)이 기초학력 미달 비중이 가장 높았고, 영어(3.4%)·국어(2.6%) 순이었다. 고2도 수학(5.5%)·영어(4.4%)·국어(2.6%) 순으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았다. 국·수·영 교과의 기초학력이 미달한 중3 학생들은 평균 3.5%로 지난해보다 0.2%포인트 감소했고, 고2는 평균 4.2%로 지난해와 같았다. 보통학력 이상 비율은 중3에서 국어가 82.6%로 가장 높고 영어(70.4%)가 그 다음이었다. 고2에선 영어가 83.9%로 가장 높고, 국어(81.2%)·수학(80.3%) 순이었다. 중3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평균 비율은 지난해보다 3.3%포인트 감소한 73.1%였고, 고2는 지난해보다 3.4%포인트 감소해 81.8%였다.

올해 시·도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국어·영어·수학 교과 평균치

	중3	고2	전체
서울	4.3	7.1	5.7
부산	2.5	2.1	2.3
대구	1.7	1.2	1.5
인천	2.9	2.8	2.8
광주	5.2	3.0	4.1
대전	2.7	1.7	2.2
울산	1.2	0.8	1.0
세종	3.4	4.1	3.8
경기	3.4	5.4	4.4
강원	4.8	4.4	4.6
충북	1.9	1.1	1.5
충남	3.7	3.2	3.4
전북	5.5	4.3	4.9
전남	4.9	3.4	4.2
경북	3.0	2.3	2.7
경남	3.9	4.0	4.0
제주	4.6	3.0	3.8

자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년 경기 중·고교에도 친일인명사전 보급

경기도교육청은 학생들의 역사 수업 보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친일인명사전〉 예산 2억5660만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월13일 밝혔다. 경기도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에 경기지역 855개 모든 중·고교에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된다. 경기도의회는 역사 바로 알기 차원에서 지난해 9월 학교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 〈친일인명사전〉을 보급하라는 건의안을 의결한 바 있어 예산 통과는 무난한 것으로 전망된다.

〈친일인명사전〉에는 일제강점기에 일제의 한반도 침략을 지지 또는 찬양하거나 독립을 방해하고 수탈행위와 강제동원에 앞장선 친일인사 4389명의 친일 행적이 수록돼 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도 내년 3월까지 〈친일인명사전〉이 비치되지 않은 600여개 중·고교에 보급하기로 했다

정부, 청소년 성매매 온상 랜덤채팅 앱 손 본다

청소년 성매매 등 범죄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 중인 '랜덤 채팅애플리케이션'을 정부가 규제하고 나섰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랜덤채팅앱의 공개 프로필 사진·닉네임(별명)·대화방 제목 등에 대해 불법·유해성 여부를 적극적으로 심의해 시정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11월19일 밝혔다.

이 앱은 스마트폰 사용자 주변 수 킬로미터 범위에 위치한 사람들과 즉석에서 채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다. 편리한 점이 있지만 성매매와 청소년 조건만남 등 범죄 창구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었다. 그간 정부는 불법성을 띈 앱이 발견될 때마다 자율규제를 통해 해당 앱이 마켓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해왔다. 이번에 직접 규제에 나선 셈이다.

방통심의위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랜덤채팅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총 30건을 적발해 이용해지나 이용정지 등 시정요구 조치를 내렸다. 대상이 된 정보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유통되는 성기노출 등 음란정보, 성매매 유도 및 의약품 불법판매 정보, 자살 동반자 모집 정보 등이다. 시정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이러한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한 계정(닉네임, 아이디)에는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해당 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한국 청소년 하루 공부량 7시간 50분 OECD 최고 수준

우리나라 15~24세 청소년들의 하루 학습 시간이 7시간 50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3시간 49분에 비해 4시간 1분이나 길다. 2배 수준으로 학습시간이 긴 것이다. 미국, 일본, 독일,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들의 청소년 학습 시간은 5시간 안팎으로 형성돼 있다. 이러한 과도한 공부량에 따라 한국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응답 아동의 절반 이상(52.8%)이 정기적 여가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아동 놀이 헌장 제정 및 놀이 정책 수립을 위한 추진단'을 구성하고 오는 20일 제1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추진단은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을 단장으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난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제3·4차 국가보고서 심의 이후 우리 사회의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또 협약 제31조에 따라 '여가, 문화, 오락활동에 대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중고생 5명중 1명 자녀 없어도 돼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고등학생 5명 중 1명은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6일 차우규 한국교원대 교수(초등교육과)가 전국 1179명의 중고생(고3은 제외)을 대상으로 '저출산 및 인구교육에 관한 인식' 조사를 벌인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보면, 어른이 되었을 때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중고생은 21.1%(남학생 13.7%, 여학생 28.7%)에 달했으며, 반면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중고생은 55.1%로 집계됐다. 나머지 23.6%는 "아직 모르겠다"고 답했다.

자녀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29.8%)가 가장 많았고, '자녀 양육비와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26.8%)도 적잖았다. 여학생은 내 일에 전념하고 싶어서가 35.4%로 가장 많은 반면, 남학생은 양육비과 교육비가 많이 들기 때문이란 응답이 40.3%로 가장 많았다.

일본, 46년 만에 고교생 정치활동 일부 허용

일본 정부가 내년 선거권 연령이 18세로 내려가는데 발맞춰 고등학생의 정치 활동을 일부 허용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11월29일 학교 밖에서의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전국 고등학교에 통지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허용되는 정치활동은 휴일이나 방과 후 학교 밖에서 벌어지는 집회, 시위 등으로 제한된다.

일본 정부가 고교생의 정치활동을 공식 허용한 것은 46년 만이다. 문부성은 1969년 고교생의 정치활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내용의 통지를 낸 이후 교내외를 불문하고 고교생의 정치 활동을 원칙상 불허했다. 하지만 문부성의 새 방침하에서도 '불법이거나 폭력적으로 진행될 우려가 크다'고 교사가 판단하면 정치활동 참가를 금지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교사가 시위 도중 체포자가 나온 것을 문제삼아 최근 활발한 안보법 시위 등에 가지 말도록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지적했다. 고교생 정치활동이 해금되기 전에도 안보법 반대 시위에 고교생이 참가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두발규제 반대 유인물 돌리다 징계받아

두발규제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돌렸다 징계를 받은 중학생이 "학교의 인권침해를 조사해 달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 대전 충남중 3학년 유모군(15)은 지난달 15일 학교의 두발단속을 비판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학교 앞에서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충남중 공포의 등굣길 두발단속…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등굣길 두발단속에 걸린 학생들이 앉았다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벌칙을 받고 있는 사진이 실렸다. 사진 옆에는 "앞 5㎝, 위 3㎝, 옆과 뒤 1㎝ 이하. 종이접기 두발규정. 내 머리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두발자유, 그것은 사람의 권리"라고 적혀 있었다.

학교에서는 다음날 유군에게 전날 행동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쓰게 한 뒤 징계를 경고했고, 이에 유군은 며칠 뒤 '긴급속보, 학생선동죄로 징계위기'라는 제목으로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다시 학생들에게 배포했다. 학교에서는 결국 지난달 29일 선도위원회를 열어 유군에게 교내봉사 5일과 상담 3회 등의 징계를 통보했다. 유군은 23일 청소년인권단체와 함께 징계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와 학생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학교 관계자는 "유인물 배포만 가지고 징계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무단결석과 지각, 교사 지도 불응 등의 문제가 있어 종합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었다"며 "징계라기보다 교육적 선도 차원에서 내려진 조치"라고 말했다.

진주동중 이윤형 선생님 올해의 과학교사상 수상

경남도교육청은 교사 노벨상으로 불리는 2015년 올해의 과학교사상에 창원 창원과학고등학교 장희재, 밀양 밀성초등학교 김철록, 진주동중학교 이윤형, 진주 문산초등학교 강태욱 교사가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올해의 과학교사상은 미래창조과학부 주최 한국과학창의재단 주관으로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해 올해로 13회째로 학생들의 학력 및 창의력 신장에 기여한 과학수학교육부문과 과학탐구활동 및 과학문화 확산에 공헌한 과학문화부문으로 나뉘 시상하고 있다.

과학문화부문에서 수상한 이윤형 교사는 지난 14년 간 과학동아리 활동 및 과학행사 운영위원, 심사위원, 출제위원으로 활발한 활동, 전국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출제단(2015), TEAM 교사 연구회 운영 등 과학문화 확산과 STEAM교육에 특히 공적이 지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양중 자유학기제 끼 페스티벌 열려

관내 19개 중학교 참가 축제의 장 마련

진주 개양중학교(교장 김영수)는 지난달 27일 진주교육청 주관으로 개양중학교 강당에서 관내 19개 중학교가 힘께 모여 '2015년 중학생 자유학기제 끼 페스티벌'을 열었다.
개양중학교는 2014년 자유학기제 희망학교 함동성과보고회를 시작으로 올해도 '2015년 중학생 자유학기제 끼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꿈과 끼를 찾아 진로를 탐색해가는 맞춤형 학기제를 운영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개선, 진로탐색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는 일에 선두학교로 우뚝서게 됐다.

각 학교별로 진로체험 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교과융합활동 등 그 결과물들을 다채롭게 전시하여 보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하였으며, 남다른 끼와 재능을 지닌 학생들이 춤, 미술, 연주 및 연극 등 여러 분야에서 자신의 소질을 발휘하는 흥겨운 축제의 장이 됐다.

진양도서관, 고3수험생을 위한 청소년 예술특강 개최

진양도서관(관장 박영숙)은 청소년의 미술작품 감상 능력 향상 및 서양미술사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지난 11월19일(목)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고3 수험생, 학부모, 교사 등 90여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예술특강'을 개최했다.

김영숙 미술평론가를 초청하여 '피렌체 예술 산책'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강연에서 '르네상스의 발원지이자 역사와 예술의 도시인 피렌체'가 품고 있는 미술작품을 살펴보며 그리스 로마 문화 및 중세와 다른 르네상스의 미술을 시대별 특징을 비교하여 재미있게 소개하였다.

도서관 관계자는 "미술작품 속에 숨어 있는 역사적 배경과 시대의 흐름을 알고 감상할 때 학생들이 흥미롭고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되었고, 이야기가 있는 미술을 통해 서양미술에 대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또한 수능을 마친 학생들이 강연을 통해 학업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즐거운 마음으로 강연을 듣게 되어 기쁘다." 고 말했다. 강연에 이어 강사의 저서와 기념품을 10명에게 증정하고 사인회를 가졌다.

제5회 경남학생합창제, 진주여중 공연 펼쳐

선배는 후배에게 애정 어린 환호를, 또래들은 친구들에게 힘찬 박수를 보낸 '제5회 경남학생합창제'가 24일 오전 11시 창원 3·150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렸다. 도내 학예 발표대회 우수학교 중학교 2팀, 고등학교 4팀이 무대에 올라 학교마다 각기 다른 색깔을 뽐냈다.

진주여자중학교는 민요 '강원도 아리랑'을 서정적으로 표현해 주목 받았다. 팝송 '헤피'를 부를 때 긴단한 안무를 선보였는데 객석에서 "귀엽다"라는 환호가 터져 나왔다. 피아노와 드럼까지 갖춰 풍성한 무대였다.
학생들은 이날 하루만큼은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공연장에서 마음껏 소리지르며 즐거워했다. 또 초청공연으로 마련된 개그맨 조지훈, 김수영의 무대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함창단원은 객석에 있는 관객을 바라보며 실력을 마음껏 뽐냈고 객석에서는 무대에 오른 후배와 친구를 열렬히 응원하는 시간이었다.

진주동중 핸드볼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우승

진주동중학교(교장 김춘환)는 지난 11월 15일 경기도 안산에서 열린 전국학교스포츠클럽 핸드볼대회에서 여중부 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또 우승과 더불어 핸드볼 감독인 하충곤 교사는 우수 지도교사상을, 하나윤(3학년) 학생이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하는 영광도 안았다. 진주동중은 이번 핸드볼 대회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에 기여, 체력 증진 및 바른 인성 함양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효과까지 얻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진주중학교 비봉산 문화생태탐방 실시

진주중학교(교장 공영식) 2학년 학생 300여명은 11월28일 경남환경교육연합회가 주관한 비봉산 문화생태탐방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비봉산 생태 숲으로의 희망찬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청소년들이 자연과 교감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상생활에 지친 시민들의 몸과 마음을 정화시켜 주는 비봉산이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비봉산 중심으로 가로질러 흉물스럽게 놓여져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판자촌처럼 어지럽게 지어져 눈살을 찌뿌리게 하고 있다.또한 곳곳이 뒷밭개간으로 산림전체가 심하게 훼손되어 생태계가 파괴된 현장을 10명의 생태해설가와 함께 지연을 관찰하고 비봉산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캠코 경남지역본부 진주 청소년을 위한 직장체험

캠코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2월2일 부산국제금융센터 본사에서 지역본부 최초로 진주지역 청소년을 위한 직장체험을 실시했다.

'캠코와 함께하는 청소년 직장체험' 직원들의 업무 사무실 탐방부터 캠코의 핵심업무와 연계된 신용교육과 국유지 실태 조사용 드론 체험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특히 이번 12월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진주동중학교 학생 30여명을 초청하여 캠코 본사 BIFC 건물, 부전시장 어묵만들기 체험, 오륙도 스카이 워크 등을 구경하며 청소년의 장래 꿈을 위한 동기 부여와 평소 체험하기 어려웠던 부산 지역 관광지를 둘러보며 생활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진주교육지원청과 교육기부 업무협약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부 활동의 일환이다.

진주성지킴이 진주남중 문화유산 교육 실시

진주성지킴이는 '2015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교육'을 지난 11월26일 진주남중학교(교장 김태진) 2학년 8개반 240명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문화유산 방문교육은 진주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재인 진주성과 촉석루, 임진왜란 3대첩 중 진주대첩, 논개 등 임란역사 문화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으로 교육을 해 학생들로부터 큰 관심과 궁금증을 해결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김태진 교장은 "우리 남중은 관내 중학교 중에서 휴대폰 미소지 등교를 실천하며 문화적 정서함양을 추진하고 있던 중 우리 진주에 대한 문화재와 역사의 전문 강사님이 오셔서 세부적이고 실감나게 교육해 주시니 남중인들에게 정서적인 큰 도움이 됐다" 며 문화재청 문화유산 방문교육에 대한 소감을 피력했다.

명석중 진로·인성교육 강의

진주 명석중학교(교장 오창주)는 영어전용실에서 지난 5일 5,6교시에 전교생과 전교직원이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과 진로지도' 라는 주제로 진로명사와 함께 '꿈 찾기'를 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인성과 더불어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할 이유 등을 중학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예를 들어 설명했다.

또한 삐딱한 태도를 버리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태도에서 미래가 보이며 예의바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 선생님, 친구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기본 인성이 이루어진다는 강의를 재미있고 공감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진주 동명중 제21회 은행잎축제 개최

진주동명중학교(교장 김실영)는 지난 11월5~6일 이틀에 걸쳐 '제21회 은행잎축제'를 열었다. 학생들은 학급이나 동아리 중 어느 한 곳에 소속되어 체육대회와 은행잎축제, 동명가요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 노래나 악기 연주를 즐기는 학생들은 '제3회 동명가요제'로 몰려 와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발산했다. 동명가요제 본선에 나갈 11팀을 뽑는데 35팀의 예선 참가자들이 몰릴 정도로 인기는 뜨거웠다. 여기에 색소폰, 기타, 피아노, 바이올린 등의 악기 연주와 춤, 음악 줄넘기 공연이 더해지면서 분위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학급 단위로 운영한 먹거리 부스에서는 어묵, 쥐포, 오징어, 떡볶이, 토스트, 골뱅, 짜장면, 부추전 등을 만들어 팔았는데, 역시 먹거리 부스는 식욕 왕성한 중학생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비록 서투른 요리 솜씨지만 담임선생님과 함께 음식을 만들어 파는 동안 요리 실력도 늘고 직접 가게를 운영하면서 상업의 기본을 익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학생들에게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진주외고, 이상의 전 합참의장 특강

진주외국어고등학교(교장 정귀화)는 지난 11월26일 이상의 전 합참의장을 강사로 초빙해 특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이 전 의장이 '꿈은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진주외고 전교생에게 미래 인재로서 가져야 할 자세와 비전 등에 대해 열띤 강연을 펼쳤다.

정귀화 교장은 "이 전 의장은 이 지역이 배출한 큰 인물로서 그의 생생한 경험과 교견이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이 됐다" 고 말했다. 한편 이상의 전 합참의장은 사천 출신으로 육군 사관학교(30기)를 졸업하고 육군 제8군단장, 육군 제30연군 사령관을 거쳐 제35대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역임했다.

반성중학교 학예연구사 초청 특강

진주시 반성중학교(교장 이도수)는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11월18일 이동관 학예연구사를 초청하여 '흙 속 진주 찾기' 특강을 열었다. 학생들은 한국사 및 고고학에 대한 배경지식을 넓히고 큐레이터 등 박물관과 관련된 직업에 대한 정보교류를 통해 직업탐색의 계기를 마련했다.

진주서 열린 경남 과학수학교육페스티벌 성황

경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진주 진성교육단지에서 열린 '제3회 경남과학수학교육페스티벌'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 도민 등 6만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고 11월1일 밝혔다. 지난 10월30일부터 11월1일까지 사흘간 경남과학교육원, 경남과학고, 경남체육고 등 진성교육단지 일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수학으로 통(通)하고 과학으로 감(感)잡다'는 주제로 열렸다.

이번 경남과학수학교육페스티벌은 교육 축제로 도내 각 학교와 경남과학교육원, 우포생태교육원, 영재교육기관 등에서 과학, 수학, 영재, 발명,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교육 등 6개 분야에 130여개의 체험부스를 설치해 운영 성과를 발표했다.

진주제일여고 선학진로체험활동, 학습코칭특강 개최

<직업인 특강 中 : 방송인 오승진 님의 직업특강>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교장 주웅태)에서는 지난 2015년 11월 7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행복한 나의 진로를 찾아서!' 라는 주제로 1,2학년 250여명의 학생 및 학부모, 11명의 전문직업인 강사와 진로교사가 참여한 가운데 '2015 전문직업인과의 만남 선학진로체험활동'이 선학진로센터, 도서관 및 1학년 교실에서 개최 되었다.
진로교육과 진로선택의 필요성에 대한 학교장 인사를 시작으로 변호사, 엔지니어, 건축설계사, 간호사, 바리스타, 메이크업 아티스트, 방송인, 섬유디자이너, 금융전문가, 플로리스트 등 10개 영역의 전문직업인을 초빙하여 학생들의 적성에 맞는 진로 및 진학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진로 및 직업특강이 진행되었다. 다양한 직업인들의 직업세계 소개와 미래전망, 학생들의열띤 질의 응답으로 만남의 시간이 진행되었으며 시간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되는 등 폭발적인 호응이 있었다.
또 오후 행사에는 경상남도 우수 진로교사를 초대하여 효율적인 학습관리를 위한 자기주도적 학습코칭 특강 행사가 있었다.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아서 진학 준비능력을 힘껏 할 수 있도록 김태길 선생님의 특강에 학생 및 학부모의 반응이 뜨거웠다. 행사에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들은 "다양한 직업인과의 만남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대단히 만족하였으며 진로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자기주도적 학습코칭 또한 나에게 맞는 학습법을 찾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남겼다.

진주제일여자고등학교는 교과교실제 운영학교로서, 교육부 지정 과학중점학교를 6년째 운영하고 있고, 법무부 지정 자치법정 운영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육성 강화 프로그램운영 등으로 매년 우수한 진학성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진주 명신고 장성우 여성부 장관상 수상

학교폭력예방 공모전 상담자 자질과 기법 익혀

진주 명신고 2학년 장성우 학생이 지난달 23일 '2015년 경남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데 이어 27일 '2015 전국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 공모전은 또래관계 증진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과 건전한 또래문화 확산을 위해서 여성가족부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명신고 또래상담자들은 '친한 친구, 대화하는 친구, 도움을 주는 친구 되어주기'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우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이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수상자인 장성우 학생 역시 또래상담자로 활동하면서 학교생활에서 소외되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상담자 자질과 기법을 익히기 위해 노력해 왔다.

진주중앙고,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 금상

지난 11월19일에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법무부 주관 제10회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진주중앙고등학교(교장 문오권)가 민사재판 부문 금상을 수상했다. 2012년부터 3년 연속 전국 고교생 모의재판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는 진주중앙고는 또 다시 금상을 수상해 전국에 그 이름을 떨쳤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전국 6개권역에서 총 244개팀이 참가하여 예선을 거쳤으며 각 권역별로 민사재판과 형사재판의 최우수팀들이 본선에 참가하여 12개 고등학교 200여명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진주중앙고 자치법정 동아리 '가온'팀은 이날 '영화배우가 영화 촬영과정에서 겪게 된 정신적 후유증에 관한 민사소송'을 다루어 심사위원들로 부터 참신한 주제와 전문가도 다루기 어려운 난제를 선택하여 깨끗한 공방을 벌이는 구성이 훌륭했으며, 각 배역들의 사실적인 연기력과 소송대리인의 논리적인 토론 역량이 뛰어났다는 평을 들었다. 법률적 자식을 평가하는 심사위원과의 질의, 응답에서도 '가온'팀은 몇 년간 누적된 역량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법률적 지식을 막힘없이 잘 풀어내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자 실력은 내 삶의 경쟁력

제2회 학생한자골든벨 진주동명중 장원 차지

지난 10월 31일 토요일, 진주성 촉석루 옆 광장에서 초등부, 중·고등부 각 1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제2회 학생한자골든벨 대회가 열렸다. 한자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이해 증진 및 한자 교육을 통한 인성함양의 효과를 목적으로 열린 이날 대회는 진주시와 진주향교가 주최하고 성균관유교총연합회 진주지부가 주관하였으며, 오후 2시부터 초등부와 중·고등부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중·고등부에서는 진주동명중 1학년 김정우 학생이 장원, 진주동명고 2학년 유준호 학생이 차상을 차지하여 각각 진주교육지원청교육장상과 상금 50만원, 30만원을 받았다. 초등부에서는 천전초 이지백 학생이 장원, 천전초 김태현 학생이 차상을 차지하여 중·고등부와 동일한 상장 및 상금을 받았다. 진주동명중과 천전초는 평소 학교에서 방과 후 한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로서 이 날의 성과가 우연이 아님을 입증해 보였다.

진주기공, KBS 방송 드라마 성탄특집 일사각오, 주기철 출연

진주기공 학생 70여명이 KBS 드라마 성탄특집 '일사각오, 주기철'에 출연한다. 촬영은 지난 11월11일 경남 함친 영상테마파크에서 진행되었으며 관악부 28명, 일반 학생 44명 총계 72명이 촬영을 마쳤다. 이번 성탄특집 '일사각오, 주기철'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여 일제 강점시대 독립운동가의 일대기를 그린 드라마로 12월25일 밤10시 KBS 1TV로 방송될 예정이다.

경해여중, 교육전용 열차 E-train 타고 수학여행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진주역(역장 한택수)은 진주 경해여중이 서부경남 최초로 교육전용열차인 E-train을 통해 수학여행을 실시했다고 11월9일 밝혔다. E-train은 초·중·고 및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학습을 위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작한 세계 최초 교육전용 열차다. 열차 안에서 각종 영상교육 및 세미나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이용 대상에 맞춰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레크레이션이 가능한 신개념 여행열차이다.

이날 경해여중 교사 및 학생 306명의 수학여행단은 최종목적지인 전주로 향하는 교육열차안에선 '역사퀴즈', '노래이어부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끽했다. 진주역 관계자는 "최근 학교 수학여행이나 단체 이동시에 안전사고를 가장 확실하게 예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기차가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단순히 안전한 기차여행이 아닌 교육적 역할까지 가능한 E-train의 활용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고 말했다.

진주향교, 동명고-선명여고생 대상 전통예절 교육

진주향교 충효교육원은 11월 24일 오전 동명고등학교 3학년 75명, 12월4일에는 선명여고생 3학년 250명을 3개조로 나눠 전통예절교육을 실시했다.
첫 시간은 심동섭 전교가 '향교의 역사와 유교이념'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으며, 둘째 시간은 정옥영 진주향교 수석장이가 '전통예절과 생활 에티켓'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또 셋째 시간은 강삼수 진주향교 수석장의가 '꿈은 꾸는 자가 이룬다.' 이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했다.

진주향교 충효교육원은 대입수능시험 이후, 진주의 고등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전통예절교육을 다년간 실시하고 있다. 올해도 11월 24일부터 12월 8일까지 등명고등학교를 비롯하여 6개 고등학교 3학년 1,5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진주중 나라사랑 콘서트 I LOVE KOREA 관람

진주중학교(교장 공영식)는 3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2일 제39 보병사단 군악대를 초청하여 나라사랑 한마음 콘서트 "I LOVE KOREA"를 관람했다. 제39사단 8962 부대에서 학교 현장을 찾아 청소년 나라사랑 교육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번 콘서트는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을 오프닝으로 해서 '호국-피로 지킨 자유 대한민국, 부국-땀의 결실, 기적의 대한민국, 누가 우리나라를 위협하는가, 그럼에도 통일은 해야 한다. 애국-그대 가슴에 태극기를 품었는가?', 엔딩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의 순서로 진행됐다.

밴드 연주와 함께 6·25 전쟁 영상, 연평도 포격 당시 전사한 故서정우 하사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 K-pop 영상 등 관련 영상도 함께 상영하여 더욱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뿐 아니라 학생들의 호응을 높일 수 있었다.

진주 대아고 EBS 고교 방문 입시설명회 개최

지난 11월24일 진주 대아고등학교(교장 정병호)가 '2017학년도 EBS 고교 방문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변화하는 입시전략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가지는 기회를 마련했다는 호평을 얻었다. 이날 EBS 입시설명회에서 이금수 EBS 대표 강사는 '2017 대입의 이해와 합격전략'이라는 주제로 현재 각 대학별 수시모집 현황과 2017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 대한 전망, 이에 대비한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의 중요성 등을 설명했다.

또 주혜연 EBS 대표 강사는 '대입 합격을 위한 수능대비 학습법 및 EBS 활용법'이란 주제 하에, 4단계로 나눈 각 과목별 학습전략을 제시하였고 개념의 확립과 기출문제 분석 등의 맞춤식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언했다. 이번 입시설명회로 예비 고3수험생들에게는 각 과목별 EBS 활용 전략에 대한 대표 강사들의 직접적인 설명이 입시를 대비하고 학습 방향을 설정하는 데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진주여중 축구부에 진주남강로타리 후원금 전달

진주여자중학교(교장 성한찬)는 지난 2일 진주여중 교장실에서 국제로타리 3590지구 진주남강로타리클럽(회장 서연수)로부터 축구부 지원을 위한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 받았다.

진주여중 축구부는 2013년 창단해 현재 20명의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으며 축구에 소질이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여 축구 선수 및 지도자로서의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5년 경남 초중등종합체육대회에서 우승을 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사회를 일리는데도 기여하고 있다.

진주 중앙중 조광래 축구교실 열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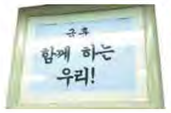
진주 중앙중(교장 주지홍)는 11월 2일부터 6일까지 문산스포츠파크에서 진주교육지원청 교육기부센터의 지원으로 조광래 축구교실과 연계하여 3학년 학생들에게 스트레스를 날려 버리고 얼마 남지 않은 중학교생활을 신나고 즐겁게 해 주기 위하여 축구교실을 개최하였다.

관내 타 학교 스쿨버스 지원을 받아 학교 운동장에서 인솔교사의 안전지도하에 문산스포츠파크에 도착하여 축구감독과 코치의 지도하에 축구에 대한 기술을 배우고 반 대항경기를 펼쳤다.
학생들은 전문가의 지도에 따라 기술습득을 하면서 재미있어 하였다. 특히 반 대항경기에는 자기 반이 이기라고 응원하는 모습에서 반 단결을 볼 수 있었고, 골을 득점했을 때의 모습은 환희 그 자체였다. 중학교과정의 모든 시험이 끝난 3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신의 신체능력을 축구를 통해 알아보게 하였고, 또한 함께 참여함으로써 팀에 대한 소속감과 애교심을 높이고 서로 협동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동명고등학교 1학년3반 편

동명고의 잘~생긴 3반 이상한 애들 총출동! 웃음이 끊이질 않는 우리 반!

벌써 1년이 지났다! 낯설기만 했던 고등학교, 어색했던 첫만남이 봄, 여름, 가을을 지나 추운 겨울을 맞으며 아주 오랜 추억이 되어 버린 지금, 우리는 또 다른 작은 이별을 준비하며 지난 1년을 되돌아 본다. 얌전한 친구들과 재밌는 친구들, 톡톡 튀는 몇몇이 섞인 평범한 반인듯 했지만 친해질수록 또 시간이 흐를수록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개성 넘치는 모습들을 보여주며 잊지 못할 한 해를 만들어 준 멋진 우리반. 동명고의 1학년 3반, 우리반을 소개합니다!



우리반 급훈

우리 반 친구들은 잘 모르는 급훈. '함께하는 우리' 조금 식상하다. 그래도 희한하게 단합은 잘되는 우리반이다.

우리 반 멋진 친구들~

탁영민

우리 반의 반장. 일단 나름 반을 잘 이끌어 가고 있다. 하지만 가끔 귀차니즘이 돋아서 제대로 일을 안 할 때도 있다. 성이 특이해서인지 평소 '틱' 이라고 많이 불리며 학기 초반의 뜻하지 않은 실수로 인해 '탁주작' 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합창 때 지휘를 맡아서 '틱에 스트로' 라는 별명도 생겼다. 굉장히 재밌는 나름 괜찮은 친구다.

유위현

우리 반의 전 반장이자 현 선도 부장. 자칭 183의 훈훈한 외모를 가진 친구. 자신은 유재석을 닮았다고 하지만 그다지 닮은 구석은 없어 보이며 밥 먹는 습관이나 생김새로 인해 '낙타' 라는 별명이 있다. 낙타나 라마 등과 같은 외모이고 온순한 성격이다. 비보 같은 웃음만 뺀다면 괜찮은 친구.

김민수

딱~ 보기와 같이 먹을 것을 좋아하며 나름 미식가이다. 약간 통통한 외모와 몸은 나름 안정적이다. 때때로 터지는 호탕한 웃음 소리는 매력을 한층 부각시켜 준다. 그리고 또 다른 매력은 바로 요리다. 그렇다. 요리하는 남자다. 가끔 자신의 집에 친구들을 초대해 요리를 하기도 한다.

백경재

일단 '앙, 기모리' 를 많이 한다. 그리고 가끔 친구들이 재미없는 농담을 하거나 무리수를 던질 때면 '응 아니야' 를 찰지게 날려 웃음을 준다. 평소 모습은 많이 말라서 아프리카 기아를 보는듯 하지만 지극히 정상이다. 이름 덕에 가끔 선생님들께서 경제에 대한 얘기를 농담으로 하신다. 이 친구는 어쩔 수 없이 경제학과를 갈 것이라 농담을 던진다.

김건호

사진으로 볼 수 있듯 언제나 돌끼(?)가 넘치는 친구. 남고에서는 흔한 타입의 학생이다. 조금 므흣한 얘기를 좋아하고 농담을 자주 한다. 약간 어리숙해 보이지만 가끔은 성숙한 매력을 풍긴다. 최근 볼거리로 단체 사진에는 불참. 그래도 자신의 사진으로 위화감이 없을 정도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준다.

이장원

본 사진은 '마더 징레사' 의 사진이다. 우리 반의 마스코트. 통통한 외모를 통해 알 수 있듯 먹는 것과 장난을 매우 좋아한다. 매점을 너무 많이 들러서 매점 아주머니가 이름을 외울 정도. 노는 것도 극도로 좋아하고 놀 때는 항상 분위기를 주도한다. 그리고 체육이 끝난 후 이 친구의 옷을 본다면 충격 그 자체. 단체 사진 중앙의 마더 징레사를 볼 수 있다.

이승욱

이 친구는 성대모사를 많이 한다. 특히 선생님들의 행동이나 특징들을 묘사하여 우리를 웃겨준다. 가끔 멍을 떠리다 하는 말들은 매우 재밌다. 한 친구의 카톡 단톡방에서의 오타로 인해 '승국이' 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힘이 세다. 중학교 때의 악력은 50을 넘긴다.

우리반 담임 선생님

최승현 선생님 / 과목: 한국사

신문에 쓸 사진이 필요하다는 한마디에 바로 초상권 침해라시며 거부하시던 선생님. 비록 사진은 없지만 좋은 인상에 부드럽고 따뜻한 우리 선생님. 의외로 유머와 재치가 넘치시며 평소 수업 시간도 학생들과 함께하며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가르치시고 항상 밝게 웃으시며 수업을 하신다.

남고 게시판은 다 이럴 까?

흔한 남고의 게시판. 구성은 일단 개~판이다.^^ 시간표와 급식표를 제외한 나머지는 공간 채우기 용도. 그마나 질된 디자인도 작년도 것을 재활용한 것. 총평~ 일단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남고는 다 이렇지 않을까?

전지원

사진에서 풍기는 돌끼(?)에 비해 실제 성격은 수줍음이 많은 편. 친해지면 재밌지만 친해지기 까다롭다는 것이 단점. 평소 장이 많아 진로 선생님께서 이 친구가 깨어 있을 때를 이상하게 여길 정도다. 그리고 축구를 잘한다. 매우 잘한다. 덩치에 비해 덩치 이상의 파워를 낸다. 현재 동명고에서 여는 동명컵의 득점왕 후보.

우은택

장난끼가 매우 넘친다. 친구들은 물론이고 겁 없이 선생님께도 가끔 장난을 치기도 한다. 첫인상을 봤을 때의 느낌과는 사뭇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실수하거나 재밌을 때 보이는 순수한 웃음은 또 다른 매력을 보여 준다.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노래를 부른다. 하지만 잘 부르는 편이라 그저 잘 들을 뿐이다.

박윤찬

딱~ 사진으로 보기엔 온순해 보이는 친구. 반전 없이 실제 성격도 온순한 편이다. 그렇게 아파 보이지 않는데 보건쌤을 보러 가는 것인지 보건실에 산다. 실제로도 보건쌤과 친한 편. 등명고 보건실 최대 애용자다. 노는 것을 좋아하고 놀라는 것을 잘한다. 그리고 가끔 웃긴 농담으로 반 전체의 분위기를 살리기도 한다.

최권윤

평범한 외모와 평범한 생활로 그는 아주 평범 그 자체다. 농담을 자주 하지만 진짜 재미가 없다. 그러나 아주 가끔 빵 터지는 농담과 몸개그로 웃겨 주기도 한다. 최근 합창 때 피아노를 맡아 주었는데 피아노 실력이 수준급이라 모두 놀람. 그리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과 같은 은근한 스킨십을 좋아한다. 혹여나 만난다면 농담은 피할 것.^^

지금 하고 싶은 말?

이름	지금하고 싶은 말?
강민준	장원아, 돈 갚아.
김건호	라면 먹고 갈래?♥♥
김민수	서윤아, 사랑해!♥
김민준	앙, 기모띠
김준호	앙, 기모찌
김진수	할 말 없어.
박수현	혼자 살기 외롭다.
박윤찬	사진보다 실물이 나아요.
박철우	보건쌤, 사랑해요♡
백경재	앙, 기모리
우은택	010-2313-5607
유위현	모의유엔 할 사람~~♥♥
이승욱	아웅아웅♡
이창원	맵에 들면 연락좀.
이지용	승욱이가 두서웠다.
이창현	창현♥
장유식	진짜 귀찮네.
장재원	치킨 먹고 싶다. 사줄 사람?
전지원	나는 잘 생겼다.
정창민	수고했다. 애들아ㅋㅋㅋㅋㅋ
조현민	배고팡
주성환	오늘부터 공부한다.
최권윤	질생거지고 싶다.
탁영민	고등학교 시간 진짜 느려.
황승준	2년만 버티자, 애들아
황준성	다들 수고했어.ㅋㅋ
국모세	배구부 짱!
전홍재	배구부 짱!
권태우	2년만 버티자.ㅋㅋ

우리 반에서 생긴 일

꼬풍가던 봄날~

우리가 입학하고 간 첫 소풍! 섬진강가를 따라 이어진 길을 걸어 화개장터로 가는 코스. 동복을 입었지만 엄청나게 더웠던 그날. 다들 물도 적게 챙겨서 길가의 마트와 슈퍼에 들러 물을 사려고 했지만 결국 화개장터까지 가서 겨우 사 마셨다는ㅠㅠ... 그나마 강에서 놀고 서로 장난을 쳐가며 걸을 수 있어 재밌었다.

축구를 즐기다

동명고에서 여는 동명컵, 그 중 우리가 출전하는 마지막 예선 경기 상대팀은 7반이다. 상대방이 잘해서 막상막하로 전반전이 끝났다. 후반에 분발하여 2골을 넣었고 그대로 게임 종료.

[취재/정창민(동명고1)기자]

지용이 가던 날

우리 반 친구 지용이가 전학 가기 전 날 모여서 함께 놀았다. 불참한 친구들도 있었지만 아주 재밌었다. 고기도 먹고 그 다음에는 노래방에도 가서 노래도 부르며 마지막을 신나게 도 즈금은 슬프게 즐겼다.

덕유산 등산(?)

아직도 왜 갔는지 모르는 곳 중 하나. 등산이 아닌 하산을 하러 간 날이다. 곤도라를 타고 올라가 걸어서 내려오는 이상한 코스. 그래도 곤도라에서 경치도 구경하고 옆 친구의 호들갑도 보며 나름 재 밌 었 던 기억. 정상에서의 거센~ 바람은 덤.

자소서가 '자소설'이 되는 불편한 진실

내신과 수능공부도 부족한 시간,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채우나?

고등학생들이라면 대학입시가 현실적인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내신과 수능 준비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피할 수 없는 현실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요즘은 단순히 내신과 수능 성적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대학에서 인성, 학교생활의 성실도 등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대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신경써야할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성적뿐만 아니라 대학에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는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봉사활동, 독서기록까지 챙길 것이 한 둘이 아니게 된 것이다. 그중에서도 학생들이 유난히 관리하기 힘들어하고 쓰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바로 자기소개서이다. 자신을 소개하고 나타내기 위해 쓰는 글. 언뜻 생각하기엔 별로 어려울 것이 없어 보이는 자기소개서를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위 내용은 대학입시에 사용되는 자기소개서의 공통 문항이다. 모두 고등학교 생활 내에서의 경험과 학습 내용 등을 묻고 있다. 하지만 바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위의 문항에 대답할 수 있을 만큼 많은 경험을 한 학생들이 얼마나 될까? 짜여진 시간표대로 생활하고 공부해야 하는 학교 안에서, 자기만의 특별한 학습과 공부 방법, 남들과는 다른 경험과 활동을 가지기는 쉽지 않다.

> 1.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경험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서술하세요(1000자 이내)
> 2.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 하세요
> 단, 교외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 됩니다.(1500자 이내)
> 3. 학교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관리 등을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 하세요(1000자 이내)

실제로 학생들은 자기소개서에 쓸 내용이 없다며 당황스러워 한다. 수행평가로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는 J여고의 한 학생은 "공부를 특별하게 잘하거나, 반장이나 회장처럼 특별한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뭘 써야할지 막막하다. 자기소개서가 아니라 소설을 쓰는 기분이다." 라고 말했다. 별다른 활동이 없는 평범한 학생이라면 자기소개서에 쓰기 위해 경험을 만들어 내기라도 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다.

자소서에는 사적인 경험이 아닌 생활 기록부에 기재되어 사실여부가 확인이 가능한 내용을 위주로 써야한다. 예를 들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내용을 적어도 실제로 눈에 띄는 성적의 변화가 없으면 점수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교내활동' 만 기재할 수 있는데, 백일장이나 경시대회 이외의 교내 활동이 많지도 않고 수상자는 소수이기 때문에 자소서를 채우기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또 학교에서는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형태의 형식적인 행사나 대회를 열기도 한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자기소개서는 대부분의 대입전형에서 요구되기 때문에 쓸 내용이 없어도, 별다른 경험이 없어도 어떻게든 쓰게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경험이라도 부풀려서 쓰고, 모두가 참가하는 교내대회에 실제 이심의 의미를 부여하고 덧붙여 적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소개서의 근본 취지는 성적뿐 아니라 학생들의 인성과 공부 이외의 활동을 입시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보통의 학생들은 내신과 수능에 필요한 공부를 하기에도 힘겨워 한다. 오히려 자기소개서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편벌력을 보완해 철저하게 성적과 성실성 모두를 갖춘 학생만을 걸러내는 수단이 되었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자기를 '소개' 할 것이 없으면 자기소개 '소설' 이라도 적어야 하는 한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취재/하은서(진주여고2)기자]

더러운 식수대 누가 와서 먹나요?

청소년은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어느 정도 물을 마시는가? 성장기인 청소년들에게 충분한 수분의 섭취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한다. 성장발육이나 소화기능 등 전반적인 건강증진을 위해 평소에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다. 2013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하루 물 음용량은 평균 0.8리터로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남학생 3.3리터, 여학생 2.3리터의 24.2%, 34.8%로 물 섭취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의 하루 일과를 학교에서 보낸다. 개인 물병으로 집에서 물을 준비해 오는 학생들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학교에 설치된 정수기나 식수대에서 물을 먹는다. 점심시간이나 석식시간, 급식소에서는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다. 그러나 급식 시간이외의 시간에는 멀리 급식소까지 물을 마시러 갈 수 없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교 곳곳에 식수대를 설치해 학생들이 쉽게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식수대의 위생 상태에 불안을 느낀다고 한다. 수 백명의 학생들이 항상 사용하는 식수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만큼 그 위생과 청결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식수대는 계약된 외주업체가 필터 청소나 교체, 위생관리를 담당한다.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이 사용하고 또 오랜 기간 사용된 탓에 시설이 노후화 되어 있기도 하고 자주 청소가 되지 않아 여기저기 물때가 끼고 녹이 슨 모습이 발견되기도 한다. 많은 학생들은 위생상태가 의심이 된다는 반응이다. 보통 식수대는 입을 가까이 대서 마시게 되는데 이때 이런 식수대를 보면 물을 먹고 싶은 기분이 싹 가시게 된다. 심지어 물에서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식수대 관리 업체들의 철저한 위생관리, 그리고 그 외주업체들에 대한 학교측과 학생들의 감시와 감독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있다. 바로 학생들의 식수대 사용 습관이다.

식수대에는 보통 퇴수구가 있다. 그러나 물만 버려야 할 곳에 껌이나 가래침을 뱉거나 돌래 끓여먹은 라면 국물을 버리기도 한다. 당연한 듯 양치를 하거나 물로 장난을 치는 행동을 하는 학생들도 있다. 혼자 쓰는 식수대가 아니다. 결국 더러워진 식수대의 물을 자신이 먹게 될 것이다. 아무리 외부업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상적인 청소가 잘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안전하지 않고 더러워진 식수대에서 물을 마시는 것은 기분이 나쁜 것은 물론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한다. 물에서 이상한 맛이 난다, 식수대가 너무 더럽다고 말하기 전에 우리의 행동을 먼저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우리 청소년들은 깨끗한 물을 마실 권리가 있다. 성장기의 청소년들에게 마음 편히 언제든지 안전하고 위생적인 물을 제공하는 것 역시 교육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적어도 모든 학교에 각 층마다 식수대가 배치되고 담당 업체나 학교측의 세밀한 관리 감독 체계가 이뤄지길 바란다. 또한 우리 학생들 역시 모두가 사용하는 식수대인 만큼 스스로 깨끗하게 이용하고 자체적인 청소로 위생상태를 청결히 유지하는 방법도 함께 고민해 봤으면 한다.

[취재/하준승(명신고1)기자]

학생들의 가방,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가방 없이 학교 다니는 학생 어떤가요?

선입견이란 것이 있다. 학생을 상징하는 가장 큰 선입견중 하나라면 아마도 가방이 될까? 학생들의 등에는 항상 가방이 둘러 메져 있어야 한다. 특히 등하굣길에는 너무도 당연한 모습이다. 아마도 가방 없이 학교를 간다면 누구든 이상한 시선을 보내게 될 것이다.

학생이라면 학교에 습관적으로 메고 가야 하는 가방. 그러나 또한 학생이라면 누구나 한번 쯤 '학교에 가방을 꼭 메고 가야 하나? 가방 안에는 든 것도 없는데 안 메고 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해 보았을 것이다. 솔직히 속이 비어 있는 가방은 학생들에게 짐에 불과하다. 야간 자율학습, 학원등 밤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가면 우리 학생들의 머릿속에는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다. 가방을 메고 집에 왔어도 그 가방을 열어보지 않는 학생이 대부분이다. 어제 그 가방 그대로 다시 메고 아침에 일어나 학교를 간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인가? 대체 가방은 왜 메고 다니는 것인지 참으로 우스운 광경이 아닐 수 없다.

학생들은 교과서, 체육복 등 대부분의 물품을 학교 사물함에 둔다. 이렇듯 학교에서 필요한 물건은 학교에 두고 사용한다. 매일 챙겨야 할 물건이나 준비물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만일 있다면 학원을 다닌 학생들의 학원 숙제 정도이다. 왜 학교 숙제가 아닌 학원 숙제일까? 학교에서는 숙제를 잘 내주지 않거나, 있다 하더라도 쉬는 시간 틈틈이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숙제만 내준다. 굳이 집까지 들고 가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등하교시, 통학으로 인해 버스를 타는 학생이 많다. 학생들로 꽉 찬 버스에 부딪히고 끼이며 힘들게 학교를 오간다. 학생이 많은 만큼 학생들이 메고 있는 가방이 만원 버스 안을 더 좁고 불편하게 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는 날이면 학생들은 볼펜과 컴퓨터용 사인펜만 필요로 한다. 볼펜과 컴퓨터용 사인펜 두 개를 가져오기 위해 학생들은 여느날과 다름없이 가방을 메고 간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생들은 대부분의 물품을 학교에 둔다. 볼펜, 샤프, 컴퓨터용 사인펜 등의 필기구류도 마찬가지 학교에 하나씩은 있다.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가방 없이도 가지고 가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물론 필요할 땐 가방을 메고 학교를 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가방 없이 등하교를 하면 어른들은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을까? '학생답지 못하다.'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학생들이 가방을 메지 않고 학교를 간다는 것이 어색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니다. 가방이 학생들의 패션 아이템이 아닌 이상, 학생과 일반인을 구분 짓는 표식이 아닌 이상, 이제 학생들에게 가방 소지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

[취재/ 백혜인(진양고1)기자]

[필통시식단]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닭요리 대가 미카엘 레시피

깨통닭 요리, 치킨 마요랑깨! 만들어 보세요

필통이 선택한 화제의 요리 Choice

JTBC [냉장고를 부탁해]

미카엘의 깨통닭 요리, 치킨 마요랑깨

최근 〈냉장고를 부탁해〉, 〈집밥 백선생〉, 〈오늘 뭐먹지?〉와 같은 TV 요리 방송, 일명 쿡방이 예능의 새로운 대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채널을 돌릴 때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셰프들과 요리가 시청자들을 반긴다. 특이한 점은 이전까지 대표적인 쿡방이었던 〈해피투게더-야간매점〉이 간단하면서도 아이디어 넘치는 요리들로 사랑을 받았던 것과는 달리 최근 쿡방이 셰프들의 전문적인 기술과 난이도 있는 요리를 선보이며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셰프의 손에서 나온 레시피를 TV를 본 일반인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래서 필통은 화제가 된 요리들을 평범한 학생기자들이 직접 똑같이 만들고 먹어보는 쿡리뷰, 〈필통시식단〉을 통해 방송된 셰프의 요리와 비교 평가해 보기로 하였다. 필통과 함께 집에서 소개된 요리에 도전해 봐도 재미있을 듯 하다.

▲ [냉장고를 부탁해] 미카엘의 치킨 마요랑깨 | 국민 야식 치킨! 치킨에 깨를 듬뿍 발라 튀긴 독특한 미카엘의 치킨 조리법에 필통시식단은 직접 치킨에 깨를 듬뿍 묻혀 튀겨보았다. 과연, 튀기기만 하면 맛있다는 명불허전 치킨! 깨를 입혀도 변함이 없을까? 그 궁금증을 풀고자 이번 필통시식단에서 검증을 해보았다.

방송내용 그대로 재연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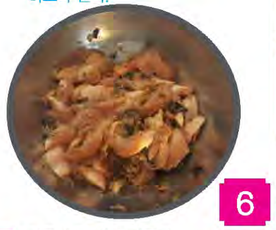
◎재료는 이렇게 구입했어요

닭가슴살, 식용유, 밀가루, 김치, 청양고추, 다진마늘, 레몬, 간장, 후추, 달걀, 허니 머스타드

◎ 이제 미카엘 셰프처럼 똑같이 요리를 시작합니다.

1 닭가슴살을 길게 썰어준다.
Tip! 너무 얇게 썰면 튀김옷이 입혀졌을 때 고기 맛이 거의 나지 않으니 주의하도록 한다.

2 간장, 후추로 간을 한 닭가슴살에 김치와 다진마늘을 넣어준다.
Tip! 튀기고 난 후 김치맛이 거의 나지 않으므로 생각보다 많이 넣어준다. 기호에 따라 간장과 후추의 양을 조절하도록 한다.



3 2번이 완료된 닭가슴살에 달걀옷을 입혀준다.

4 달걀옷을 입힌 닭가슴살에 깨와 밀가루를 입혀준다.
Tip! 달걀옷이 깨에 가려 안 보일 만큼 깨를 입히도록 한다. 그럼 깨 맛을 톡톡히 느낄 수 있다.

5 기름에 두 번 튀겨준다.
Tip! 여기서 깨를 뿌리지 않고 그냥 튀기면 후라이드 치킨으로 먹을 수 있다.

6 참치 마요랑깨 완성! 맛있겠죠.^^

◎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 수제 마요네즈 만들기

1 달걀 노른자에 허니 머스타드, 레몬즙을 넣고 섞어준다.
Tip! 레몬즙을 너무 많이 넣으면 레몬 맛 밖에 안나니 주의하도록 한다.

2 올리브 오일을 조금씩 넣어가며 섞는다.
Tip! 한 두 방울 씩 넣어준다.

3 기호에 따라 청양고추를 넣어 참치 마요랑깨와 함께 먹는다.

◎필통시식단의 후기

고유리(삼현여고2)
깨가 들어가서 고소했고 닭 가슴살이라서 퍽퍽할 거라 생각했는데 깨 기름덕에 퍽퍽하지 않았다. 수제 마요네즈는 시중에 파는 것보다 덜 느끼해서 좋았지만 머스터드와 먹는 게 더 맛있었다. 그리고 양념할 때 김치가 많이 들어가면 좋겠다.

김은지(진주제일여고2)
일단 굉장히 고소했다. 닭 가슴살이 퍽퍽하지 않아서 좋았다. 하지만 먹다 보니 좀 느끼했고 수제 마요네즈도 기대보단 별로 였다. 조리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웠다. 그렇지만 튀김은 언제나 옳다.

정소영(삼현여고2)
깨 부분이 튀김옷처럼 바삭바삭해서 식감이 좋았고 시중에 먹는 것보다 더 고소했다. 하지만 3조각 정도 먹으면 느끼해서 물렸다. 깨랑 이랑 허니 머스터드소스 맛이 잘 어울려서서 잘 먹을 수 있었다 수제 마요네즈는 레몬 맛이 너무 많이 나서 먹기엔 힘들었다. 역시 제품 맛이 내 입맛엔 더 맛는 듯 하다. 보이는 것보다 조리과정이 복잡해서 힘들었다.

정지윤(사대부고2)
튀김옷 대신 깨를 입힌다는 발상 자체가 특이했다. 시중의 닭튀김보다 깨 덕분에 고소한 맛이 더 많이 났고, 식감도 더 살아난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만큼 빨리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았고 한두 점 정도는 괜찮지만 자꾸 먹다 보니 오히려 깨 때문에 먹기 힘들었다. 수제 마요네즈 소스도 만들기 어려워서 차라리 시중에서 파는 마요네즈를 사는 것을 추천하고, 마요네즈보단 허니 머스터드를 더 추천한다.

하은서(진주여고2)
깨 덕분에 바삭바삭하고 고소했다. 근데 깨 자체에도 기름이 많은데 튀기기까지 하니까 너무 느끼하다. 그래서 마요네즈보다는 머스터드가 훨씬 어울리는 듯. 방송에서 봤던 거 보다 요리하기가 힘들어서 집에서 해 먹기는 쉽지는 않아 보인다.

박규태(대아고2)
고기 겉을 깨가 전부 감싸주어서 식감 자체는 상당히 바삭했다. 수제 마요네즈도 괜찮지만 웬만하면 시중에 파는 보통 마요네즈를 사는 것을 추천한다. 계속 먹다 보니까 좀 느끼하기도 했다. 집에서 요리하기엔 재료도 많고 조리 과정도 쉽지 않은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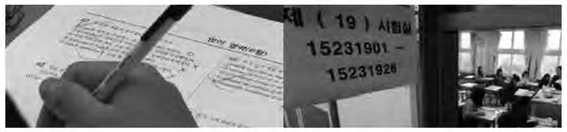
최부길(진주기공2)
겉에 있던 깨가 치킨 껍질 역할을 잘 하면서 고소함까지 더해 나름 맛있었다. 닭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한 번 도전해볼 만한 맛. 하지만 만들기 힘들고 톡톡 튀는 맛이 없었던 수제 마요네즈와 비싸고 많은 종류의 요리 재료들은 한번 고려해봐야 할 사항들인 것 같았다.

[취재/ 정덕진(중앙고2), 신현솔(삼현여고2), 강승훈(중앙고1)]

[이슈톡톡] 영어절대평가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어공부 부담과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다는 영어절대 평가제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영역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된다.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되면 상위 4%의 학생이 1등급을 받는 현재의 상대평가제와 달리 90점 이상이 1등급, 80점 이상이 2등급의 형식으로 10점을 차이로 등급이 바뀌게 된다. 수능 등급이 3~6등급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영어절대 평가를 직접 겪게 되는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았다.



지방학생들의 경쟁력에 도움된다.

진주여고 1학년 안희진

지방아이들은 서울아이들과 경쟁했을 때 가장 힘든 과목이 영어라고 생각한다. 서울의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심지어 조기 유학을 다녀오기도 한다. 그런 학생들과 지방의 학생들이 경쟁이 되겠는가? 그래서 나는 영어 절대평가 시행이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는 우리들에게 좋은 기회이고 또 지역의 차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영어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진양고 1학년 백혜인

영어는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영어가 꼭 필요한 사람 말고는 1등급에 대한 부담을 심하게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모든 부분에서 잘하기를 바란다. 영어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잘하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영어 절대평가 실시는 바람직한 일이다. 영어 절대평가를 실시함으로 '영어가 필요 없어도 잘해야 한다', '무조검 100점이 1등급' 이라는 사실에 벗어나게 되어 공부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본고사 부활 가능성, 지방학생들에게 불리해

명신고 1학년 김동건

수능 영어 절대 평가에 반대한다. 수능 영어 절대 평가가 시행되면 수학, 국어 등 영어 외의 사교육 시장이 더욱 늘어나는 풍선 효과가 발생할 수 있고 영어를 조기에 끝마치고 나중에 다른 과목에 집중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오히려 영어 사교육 시장도 더 커질 수 있다. 그리고 수능 영어 시험이 절대 평가로 전환되면 1등급 학생 수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데 과연 대학이 이러한 변별력 없는 수능을 신입생을 뽑는 평가 척도로 사용할지 의문이다. 오히려 대학이 수능의 결과를 객관적인 평가 척도로 사용하지 않고 대학별 본 고사를 부활시켜 대학 자체에서 영어 논술 시험이나 영어 인터뷰를 볼 가능성이 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영어 학습기회가 적은 지방학생들이 더욱 불리해질 것이다.

학생은 좋고 대학은 번거로운 제도

진주동명고등학교 1학년 김록원

영어 절대평가는 학생 입장으로는 좋고 대학교의 입장으로는 번거로운 제도가 될 것 같다. 영어가 절대평가가 되면 영어는 변별력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소위 명문대라고 하는 학교들에서는 우수한 학생을 가리기 위해 자체적인 시험을 치러야 할 것이니 말이다.

대학생, 직장인들의 영어 사교육을 줄일 고민은 없는가?

삼현여고 1학년 박정현

공부잘하는 학생이나 외고 학생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영어를 전공하는 학과가 아닌데도 영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는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과목을 조금 더 공부할 수 있으니 효율적인 제도 같다. 또한 등급컷이 넓어지니까 확실히 학원이나 과외를 많이 다니지 않아도 돼 일시적으로 사교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든다.

하지만 결국 영어사교육을 크게 줄이지는 못할 것 이다. 수능이 끝나면 토익이나 토플의 형태로 또 많은 영어 시험을 치러야 한다. 요즘은 대학생이나 회사원도 밤이나 새벽에 영어학원을 다닌다. 정치인 분들은 우리가 대학을 가기위해서만 영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도 취직을 하기 위해서도 심지어 승진을 하기 위해서도 영어는 필수적이다. 결국 수능에서만 영어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주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다. 확실히 영어 사교육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뿐만 아니라 대학생, 직장인들의 영어 사교육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 주었으면 좋겠다.

수능 영어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상대평가 (현행)		절대평가 (2018년도 수능)
수험생 성적이 전체 응시자 중 몇 등인지 순위를 매겨 등급 부여	특징	순위와 상관없이 수험생 점수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등급 부여
9등급제 1등급 : 상위 4% 2등급 : 상위 4~11% 등	점수 산정	4~5등급제 또는 9등급제 중 결정 (예시) 1등급 : 90점 이상, 2등급 : 80점 이상
등급·표준점수·백분위 표시	수능 성적표	등급만 표시

학년별로 바뀌는 입시 체제

현재 학년	변경 사항	수능
고2	올해 입시와 동일	2016학년도
고1	한국사 필수 (9등급 절대평가)	2017학년도
중3	한국사 필수 + 영어절대평가 (등급 수 미정)	2018학년도
중2	상동	2019학년도
중1	상동	2020학년도
초6	2018학년도 문·이과 통합 교육과정 시행에 따라 새로운 수능 첫 시행	2021학년도

入試

영어영역 등급분할 원점수

1등급	90~100
2등급	80~89
3등급	70~79
4등급	60~69
5등급	50~59
6등급	40~49
7등급	30~39
8등급	20~29
9등급	0~19

2016학년도 9월 모평 기준으로 본 영어 절대평가 등급

등급	원점수	누적인원 (명)	기존 등급
1	90	130,902	3
2	80	227,588	4
3	70	302,978	5
4	60	364,477	6
5	50	414,195	6
6	40	454,664	7
7	30	489,853	7
8	20	532,973	8

영어공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것이다.

진양고 1학년 백혜인

영어는 우리의 모국어가 아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영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 영어가 꼭 필요한 사람 말고는 1등급에 대한 부담을 심하게 느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은 모든 부분에서 잘하기를 바란다. 영어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잘하기를 바란다. 그렇기에 영어절대평가 실시는 바람직한 일이다. 영어 절대평가를 실시함으로 '영어가 필요 없어도 잘해야 한다', '무조검 100점이 1등급' 이라는 사실에 벗어나게 되어 공부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

수능자격고사화 또는 폐지쪽 방향설정은 맞다.

명신고 1학년 김시훈

영어 절대평가는 입시제도 측면에서 큰 변화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계속 제기되어 왔던 수능의 자격고사화 또는 폐지 가능성을 한층 분명하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 입시의 핵심이던 국가 주도의 평가시험이라는 것이 차츰 약화, 또는 사라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영어절대평가가 들어서는 2018학년도 입시에 대해 우선 수시 체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본다. 현재 수시 제도는 크게 학생부(교과+종합), 논술, 2가지로 나뉘는데요. 이 가운데 학생부 전형의 비중이 점차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학생부 전형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라는 교육당국의 일관된 목표를 실현하는 데 가장 알맞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시험은 노력한만큼 결과가 나와야 한다.

진양고 1학년 강성찬

시험은 학생의 노력에 따라 그 만큼의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영어 절대평가를 실시하면 보다 더 노력한 학생이 그렇지 못한 학생들과 같은 평가를 받게 된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인가! 또 영어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영어가 중간 정도 수준으로 쉬워져 전국의 3분의 1의 학생들이 1등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 국어나 수학으로 사교육 열풍이 옮겨 가는 것은 상식이다.

오히려 사교육시장을 늘리는 정책이다.

진주중앙고 1학년 여가현

영어 절대평가를 반대한다.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을 줄이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어나 수학의 중요성이 커지게 되고 국어나 수학으로 사교육이 옮겨가게 된다. 확실히 사교육을 줄이려면 국어나 수학도 절대평가가 되어야지 왜 영어만 절대 평가인지 모르겠다. 또한 영어절대평가가 시행되면 영어 1등급은 필수가 된다. 서울의 학부모들은 영어 절대평가에 대하여 초등학교 때 아이들을 영어학원에 보내서 영어를 90점 이상 안정권으로 만들고 나서 중학교부터는 국어나 수학학원을 보내는 식으로 대처한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사교육을 줄이는 제도인가? 오히려 초등학생들이 고등학교 수준의 영어를 공부하도록 하는 제도가 아닐까?

다른과목 부담만 더 늘어난다.

진주중앙고 1학년 정주민

영어 절대 평가에 대해 나는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다. 영어를 절대평가로 바꾸며 내세운 정부의 주장은 '국민들의 영어 사교육 부담을 줄여주겠다' 였다. 하지만 영어가 절대평가로 바뀌면 국어, 수학 등 다른 주요 과목의 부담만 더욱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다. 대학도 더이상 영어 점수를 보지 않으려하고 상대적으로 국어, 수학의 비중을 늘린다고들 한다. 잠시는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지만 곧 같은 상황이 되거나 다른 과목의 비중이 높아짐으로써 더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학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면 다른 과목들도 모두 절대평가로 바꾸거나 문제를 조금은 쉽게 내는 등 다른 방법으로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주면 좋을 것 같다.

과연 쉬운영어 기조가 유지 될 수 있는가?

명신고 1학년 강윤비

수능 영어 절대평가가 시행될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이 '변별력' 이다. 현재 서울 소재 대학의 모집 인원은 약 8만명인데, 2014년 수능 영어에 응시한 학생들의 성적을 절대평가에 적용시켜 본다면 1등급인 학생이 약 9만명 정도가 된다. 1등급인 학생의 수가 서울시내 대학들의 입학 정원보다 많은데, 과연 현재의 '쉬운 영어' 기조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지만 교육부에서는 '영어 절대평가를 시행하겠다.' 라는 말뿐, 난이도나 변별력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태도는 발빠르게 대처하는 사교육 시장은 잡지 못하고 수험생들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다.

[취재/ 여가현(진주중앙고1), 백혜인(진양고1)]

[특집] 한국사 국정화 철회를 요구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마음대로 하지 마라

▶한국사교과서 좌편향, 그렇다면 먼저 교육부를 처벌하라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 허위사실로 드러나...

한국사 국정화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까지의 한국사 교과서가 좌편향 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 말이 맞다면 그 교과서를 검인정 과정을 통해 승인해 준 교육부와 정부는 무엇인가라는 자가당착에 빠진다. 제 얼굴에 침 뱉기가 아닐 수 없다. 지금 사용되는 교과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공시한 잡필기준에 따른 것이고, 더구나 2013년 교학사 교과서 논란을 거치면서 교육부의 수정명령 등을 통해 2250건의 수정·보완을 거친 내용이다.

당시 교육부는 "대한민국 정체성, 6·25 전쟁, 일제강점기 미화 및 북한 문제 등 서술 내용을 수정하였다"며 "이를 통해 미래세대인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형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자랑했다. 그러고도 좌편향 교과서라고 우기면 결국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좌편향 정부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런 모순이 부끄러웠던지 이제는 한 발 더 나가서 우리나라 역사학자 90%가 좌편향되어 있다고 한다.

지금 그 어떤 한국사교과서에서 북한을 찬양하거나 김일성 주체사상을 긍정적으로 기술한 곳이 있는가? 단 한자도 그렇게 쓰지 않고 있다. 명백한 허위고 거짓말이다. 분명하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비판한 내용임에도 그것을 우리 아이들이 주체사상을 배우고 있다라고 시뻘건 프랜카드를 달았다. 그렇게 하고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마치 북한 추종자나 빨갱이로 공격하는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수준을 한없이 떨어 뜨리는 부끄럽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교과서 국정화는 진보, 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그럼에도 왜 그렇게 만드는 것인지 자세히 보아야 한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위헌적 조치
▶1992년 헌법재판소 국정제 바람직하지 않다.

국정화는 헌법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조치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는 1992년에 이미 판결을 통해 이러한 헌법 정신에 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아울러 국정교과서 체제 하에서는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가지고 있어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되고 정형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국정화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헌법 31조와 이에 입각한 헌법재판소의 판결과 지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위인 것이다.

〈사진 출처/ 정철카피〉

▶UN 역사교과서 단일화 안된다 권고
▶세계에서 국정제 채택하는 나라는 북한 베트남

UN도 세계각국에 역사교과서를 단일화 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었다. 2013년 유엔총회에 제출된 〈역사교과서와 역사교육〉란 보고서엔 '다양한 종류의 역사 교과서 가운데 교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세계에서 국정교과서 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는 북한과 베트남, 스리랑카, 몽골 정도이고 과거 일제강점기나 이승만 정권에서도 국정교과서가 아닌 검인정체제를 운영했다. 긍정의 역사는 과를 숨기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잘못의 역사를 정확히 평가하고 반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독일이 과거의 나치에 대해 현재까지도 반성하고 나치의 등장에 대해 처벌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과거 반성은 커녕 오히려 친일과 5.16 쿠데타를 미화할려는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하려고 한다. 한국사 교과서가 국정화될 경우 '친일의 행위'를 '대한민국의 근대화'로 탈바꿈시키고 '일제 식민 지배가 근대화에 기여'하였다는 궤변으로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대신 독립운동을 폄훼할 것이 이미 지난 교학과 교과서 사건으로 증명된 바 있다.

▶친일과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역사책을 바꾼다?
▶역사는 가족사나 족보가 아니다

역사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추켜 세우고 싶다한들, 부정부패와 부정선거, 군사반란과 유신독재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친일을 옳았다고 독재를 어쩔 수 없었다고 쿠데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선택이었다고 어찌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그렇게 쓸 수 있는가.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주류들이 친일과 헌대사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처지에 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의 과거를 덮기 위해 역사책을 바꾸려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자신들이 가진 부와 권력의 정당성 부여를 위해 헌법전문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정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1948년 건국절을 주장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친일을 미화하고 숨기기 위해 일제시대를 우리나라를 근대화 시킨 번영기로 만들 수가 있나? 어떻게 이승만 단독정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모두 좌파나 빨갱이로 몰 수 있는가? 어떻게 개인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쿠데타와 독재권력 조차도 구국의 결단으로 둔갑시 킬 수 있는가 말이다.

역사가 승자의 논리라고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한 나라의 역사가 어느 한 집안의 가족사나 족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겐 미래가 없다고 했다. 과연 우리는 아이들에게 지금 어떤 미래를 만들어 주고 있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야 할 것이다.길거리로 나 온 청소년들이 쓴 피켓글이 아프다.

'우리의 미래를 당신들 마음대로 하지 마라.'

[19금 파헤치기] 우리가 몰랐던 역사 속 19금

춘화(春畵), 김홍도 신윤복 성을 그리다

19

역사책을 보면 여러 왕들의 이야기, 전쟁이야기, 당시의 시대 상황을 반영한 여러 문화와 관련 된 이야기를 접할 수 있다. 늘 흥미롭고 긴장감 넘치는 역사의 무대... 이 무대의 뒤편을 상상해 보있는가? 모두 알다시피 조선시대 문화는 일부다처제로, 왕들 또한 많은 후궁들을 거느릴 수 있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여기까지다. 하지만 첩이 많았던 만큼, 그들에게 숨겨진 속(?) 이야기들도 많지 않을까? 뿐만 아니다. 현대 사회와 비슷하게 조선시대에도 백성들 사이에서 그들만의 섹드립(?)과 각종 19금 이야기들이 널리 유행 되었다고 하니 벌써부터 궁금하지 않은가? 우리 역사속 19금 이야기들을 [19금 톡톡]에서 펼쳐 본다.

45cm의 주인공, 지증왕 실제는 어떠했을까?

신라 마립간 시대의 마지막 통치자였던 지증왕을 아는가? 신라의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이라는 칭호를 가장 처음 사용한 왕이기도 한 그는, 크나큰 업적만큼 비범한 사이즈(?)를 지녔다고 한다. 다음은 〈삼국유사〉의 지증왕 설화이다.

(전략)...그의 음경의 길이는 무려 1자 5치였는데, 음경이 너무 큰 관계로 마땅한 신붓감을 구하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지증왕은 각 지방에 사자를 보내 자기의 음경을 능히 감당할 만한 처녀를 수소문하였다. 어느 날 지증왕이 보낸 한 사자가 모량부에 도착해 동로수(冬老樹)아래에 쉬고 있는데, 큰 개2마리가 북 만한 누런 똥을 양쪽에서 물고 으르렁거리고 있었다. 이것을 본 사자는 괘재를 부르며 마을로 내려가 그 커다란 똥덩이의 주인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러자 한 소녀가 말했다.

"그것은 모량부 상공의 딸이 빨래를 하다 숲속에 숨어서 눈 똥입니다."

사자가 그 집을 찾아가 처녀를 보니 키가 7자 5치나 되었다. 사자는 급히 지증왕에게 그 처녀를 소개했고, 지증왕은 수레를 보내 그녀를 궁중으로 불러 왕비로 삼았다.

여기서 한 자는 대략 30cm 정도로, 1자 5치라고 하면 대략 45cm 정도가 된다. 과연 정상적인 관계는 둘째 치고 거동은 가능했을까 하고 의문이 들 만큼의 어마어마한 사이즈다. 또한 이 설화에 등장하는 처녀의 경우, 키가 7자 5치, 즉 2m 25cm 라는 것은 당시에는 불가능 한 일이다. 이 설화는 지증왕의 실제 외형을 기반으로 하되, 왕의 위대한 업적과 위대함을 신격화하기 위해 실제보다 과장해서 퍼뜨린 전설이라고 여겨진다.

신라시대 토우들은 남여의 성기를 해학적으로 묘사한 것이 많다 ▲

일반인이 조선왕조실록에 기재되다?

왕의 행적을 기록하는 조선왕조실록에, 일반인이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아는가? 성종실록에 '어을우동'으로 기록된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 어우동은 본래 궁중 관리의 딸로써 부유한 집안의 신분 높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양반의 부인이었으나, 왕실의 종친중 한명과 남편 몰래 문란한 성생활을 하였다. 이러한 관계가 계속되다 남편에게 들키자 집에서 내쫓겼다. 이때부터 어우동은 방자한 행동을 거리낌 없이 하였다. 심지어는 그의 계집종과 함께 남자들을 끌어들여 잠자리를 같이하기를 매일처럼 하였다.

성종실록에서는 어우동은 여러 왕실의 종친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기록되어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어우동의 행동을 보다 못한 사헌부 대사헌 정대걸 등은 상소를 올리기 까지 했다. 사간원에서는 어우동과 함께 잠자리를 같이한 왕실의 종친들에 대해서 죄를 청했지만 들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사건의 발단인 어우동에 대해서는 극형에 처하게 하였다. 이는 성종이 이 사건을 본보기로 삼아 다른 여인들이 좀 더 정숙하고 품기를 어지럽히는 행동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고 해석된다. 조선시대에서 보기 힘든 모습의 여인이었기 때문일까? 현대에서는 이 어우동 사건이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쓰이기도 하였다.

희대의 패륜아, 연산군

방탕, 문란, 폭정.. 온갖 수식어가 달라붙는 연산군.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역사적으로 남아있는 기록들을 보면 그는 엄청난 폭군이었음에는 틀림없다.

전국에 관리를 파견하여 지방 곳곳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궁궐로 불러들이게 하고(그 수가 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기생, 궁녀, 친인척,사대부 부인까지 가리지 않고 간음을 하였다. 심지어는 자신의 큰아버지의 부인, 즉 자신의 아버지인 성종의 친형의 부인 박씨를 강간했다고도 전해진다. 이에 박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그녀는 스스로 약을 먹고 자결했다고 한다.

연산군은 간음을 하는 데에 있어서 장소도 가리지 않았다. 가마 안은 물론이고 길가에서도 간음을 했다고 전해진다. 또한 나라의 교육 기관인 성균관을 기생의 거처로 만들어 온갖 유흥과 패락의 장소로

바꾸어버렸다. 이 기생들은 바로 '흥청'이라고 불렀는데, 그 수는 천명이 넘었다고 한다. 왕이 이들과 함께 잔치를 열고 유흥을 즐김으로 인해 나라 재정이 궁핍해지자 흥청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는 뜻의 '흥청망청'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이렇게 연산군은 왕으로 부임해 있는 기간 동안 인륜을 넘어서는 온갖 만행을 저지르며, 대략 천명 이상의 여인을 간음했다고 전해진다.

세종 며느리의 '금지된 사랑'

문종은 조선의 역대 왕 중 드물게 장자 계승의 원칙을 지킨, 정통성에 문제가 없는 왕이다. 그의 스트레스 원인은 바로 부인에게 있었다. 그는 세 번이나 홀아비가 됐던, 개인사가 불행한 왕이었다.

두 번째 부인은 조선왕실 최초 동성애 스캔들의 장본인인 세자빈 봉 씨다. 아름다운 미모로 세자빈 자리를 꿰찬 순빈 봉씨는 후일 궁녀 소쌍과의 동성애 사건으로 폐출된다. 조선 왕실에서 궁녀들의 '연애'는 금지됐다. 발각되면 사형이었다. 그러나 때로 수백명에까지 이른 궁녀 모두가 왕의 손길(승은)만을 기다릴 수는 없었다. 조선왕조실록에 기록된 궁녀들의 연애·간통사건이 적지 않다. 상대는 때로 종친이었지만 주로는 내시와 벌감이었다. 죽음이 두려우나 사랑엔 목마른 궁녀들은 동성애에 빠졌다. 때로는 왕이 외면하는 왕비나 후궁이 궁녀들과 금지된 사랑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으니 세자빈 순빈 봉씨의 동성애 사건이 그러했다.

세종 18년 10월 26일 기록은 이렇다.

"내가 중궁(왕비를 높여 이르던 말)과 더불어 소쌍을 불러서 그 진상을 물으니, 소쌍이 말하기를, '지난해 동짓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다른 여종들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므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르므로 마지못하여 옷을 한 번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와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하였다."

실록에는 봉 씨의 죄목이 질투심이 많고 아들을 낳지 못했으며 남자를 그리는 노래를 불렀다고 적혀 있다. 많이 나이지긴 했지만 동성애는 지금도 터부시하는 이들이 많다. 조선 초에는 이보다 훨씬 더 심했을 것이다. 세종도 자신의 며느리가 저지른 죄목을 차마 입에 담기 부끄러웠을 것이다. 이에 분노한 세종은 순빈 봉씨를 폐출시켰다.

조선시대 다산王 Top 5

순위	임금	자녀수
1위	태종	12남 17녀=29명
2위	성종	16남 12녀=28명
3위	선조	14남 11녀=25명
	정종	17남 8녀=25명
5위	세종	18남 4녀=22명

조선시대 이전을 포함하면 실제로 가장 많은 자녀를 둔 왕은 고려시대의 태조 왕건(25남 9녀 = 34명)이다.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할 정도로 왕들은 많은 자녀를 낳았다. 예로부터 왕들은 최대한 많은 자손을 남겨 왕실의 대를 잇는 것이 중요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 후궁을 두고, 왕비를 두었다. 이렇게 많은 자식이 많지만 실제로 우리가 알만큼 이름이 알려진 왕자나 공주들이 적은 이유는 어려서 죽거나, 후궁의 자식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백성들을 달래준 므흣(?)한 작품들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알 고 있는 단원 김홍도와 혜원 신윤복이 요즘말로 치면 포르노그라피, 외설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19금 '춘화'라고 하는 그림인데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남녀간의 성애장면 묘사가 가획 '미성년자 절대 관람 불가'라고 할만하다. 조선시대 상풍속도를 엿볼 수 있는 춘화가 그 시대에도 유행하고 있었다고 하니 신기하기도 하고 재이있기도 하다.

춘화는 그 나라의 정서가 그대로 반영된 거라 나라마다 다르다. 몽골 춘화는 말 타고 사랑을 나누기도 하고, 인도의 춘화는 마치 요가를 하는 것 같다고 한다. 또 중국은 무술영화처럼 소림사 스타일의 뼁이 에로틱 아트에도 적용됐다는 우수갯 소리가 있다. 일본 춘화는 섬세함이 덜어져 거칠고 남녀 구분도 잘 안되는 것으로 평가 된다.

이웃나라의 춘화들이 그러했다면, 한국의 춘화는 어떤 멋과 풍류를 담고 있을까. 우리 춘화는 아주 서정적이다. 그러니까 그림을 볼 때 배경을 꼭 같이 봐야한다는 것이다. 진달래가 흐드러진 곳이나 물이 한껏 오른 버드나무 옆에서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그야말로 '세팅'이 기가 막힌다. 주인공과 무대를 같이 봐야 한다는 얘기다.

단원 김홍도(1745~1808?)의 화풍이 드러나는 은우도첩은 조선후기 춘화 가운데 가장 희화성이 뛰어나고 격조를 갖춘 작품으로 춘화의 백미로 평가된다. 또 조선 최고의 춘화첩 가운데 하나인 '건곤일회첩'은 혜원 신윤복(1758~?)의 춘화로 전해진 작품이다. 단원은 서민 생활의 단면을 소박하고 유머 넘치게 다뤘지만, 혜원은 한량과 기녀를 중심으로 남녀 간의 춘의(春意)를 주로 그렸다.

〈김홍도의 춘화 작품중〉▶

◀〈신윤복의 춘화 작품중〉

[취재/박주희(경해여고2), 하준승(명신고1) 기자]

[FOCUS 한 컷] 남고와 여고 생활 속 한 컷

여러분의 교실 책상 서랍은 어떤가요?

남, 여학생의 차이 But 태도와 성격차 일수도^^

학교라면 어디든지 있는 책상. 학생들이 쓰는 책상은 학생들과 길게는 14시간 정도를 함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개인의 개성이 드러나게 된다. 여러분의 책상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책상 모습은 많이 다르지 않을까? 책상 위에 가방이 올라가 있고 서랍에는 언제 나누어 준 것인지도 모르는 가정통신문이 마구잡이로 꽂혀 있는 책상. 혹은 낙서 하나 없이 깨끗하고 서랍에는 그날 배운 책만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는 책상. 우리들의 고정관념과는 다르게 후자가 남학생의 책상이고, 전자가 여학생의 책상일수도 있다. 이번 〈남과 여 포커스〉는 남학생과 여학생의 책상 위와 책상서랍에 카메라의 포커스를 맞추어 보았다.

이게 바로 남학생 책상이지!...

상상하던 그대로다. 가방은 책상위에 널브러져 있고, 가정통신문 대신 학습지가, 마치 허를 내밀 듯 책상서랍에서 탈출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책상서랍 안에 있는 책들조차 제멋대로 구겨져 있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 치워주고 싶은 욕망까지 들게 한다. 아마도 이것이, 가장 많이 보이는 남학생들의 책상유형이 아닐까 한다. 너무도 익숙한 남학교 교실 책상이다.^^

이런 남학생도 있다. 그런데 찾기 쉽지 않아.^^

책상서랍 안의 책들이 상당히 잘 정돈되어 있다. 게다가 책상서랍의 반도 안 채운 저 책들! 책상의 주인은 그날그날 배우는 책들만을 가져다 놓고 쓴다고 한다. 남학교에선 정말로 보기 힘든 책상이다. 실제로 이틀 동안 이런 책상을 찾기 위해 전교 학교 교실을 들아다니면서 찾았을 정도로 쉽게 만나기 힘든 광경이다. 남학교라고 모두의 책상이 쓰레기통 같지는 않다. 조금 발견하기 힘든 것뿐이다.

VS

역시 여학생의 책상은 뭐가 달라도 달라..

아마 남중, 남고생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인식속에 여학생들의 책상은 깔끔하고 잘 정돈된 책상일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바로 그런 책상이다. 남학생의 책상과는 다르게 오늘 배운 책만 들어가 있다. 책상 위도 마찬가지로 가지런히 정리되어진 책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없는 안도감이 들게 한다. 가방은 있어야 하는 곳에 정확히 자리하고 있고, 어디든지 둘러봐도 남학생과는 확연히 차이가 들어나는 여학생 책상이다.

물론 이런 여학생도 있다! 환상이 좀 깨지고~

선입견이다. 여학생의 책상은 모두 마냥 깨끗하고 정리정돈 잘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여학생들이 다 깨끗하다 생각하면 크나큰 오산이다. 일반적인 남학생들의 책상과 버금가는 책상 모습을 보고 벌써 여학생들에 대한 환상이 깨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도 인간적이 않은가? 사람냄새가 나는...^^ 이 책상 주인은 매 쉬는시간 마다 단잠을 자느라 책을 옮길 시간이 없었다고 그 이유를 말하지만 남학생들의 환상을 깨기엔 충분해 보인다.

[취재/ 신윤지(경상사대부고2), 김형민(진주고1)기자]

[필통 타임머신] 그때 기억나?

SNS세상 그 옛날 그 자리엔 뭐가 있었지?

스마트폰 보급률 8% 5년만에 83%

현재 우리사회에는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등 각종 SNS가 난무하고 있다. SNS과부하 시대라고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특히나 스마트폰이 생겨나면서 부터 sns는 무서운 속도로 발전했다.

상전벽해가 따로 없다. 불과 5년전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은 8%, 400만대에도 못미쳤다. 딱 5년이 지난 2015년 스마트폰 보급률은 83%, 3000만대에 육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전 우리는 어떤 세상에서 살았을까?

추억의 SNS?

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5년전, 현재 고등학생들이 초등학생일 때 였다. 그때에 우리들에게는 스마트폰보다는 컴퓨터가 더 익숙했다. 지금 페이스북, 인스탁램이 있다면 그때에는 싸이월드가 있었다. 버디버디와 세이클럽 역시 채팅할 수 있는 공간으로 현재 카카오톡 만큼이나 인기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추억이 되었다. 스마트폰이 등장하자 모두들 언제 그랬냐는듯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카카오톡으로 채팅하며 트위터를 통해 자신의 상태나 기분을 짧은 글로 남긴다. 카카오스토리 역시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났지만 이마저도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추억이 된 것이나 다름없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5년전 SNS와 현재 SNS를 비교해보자.

우리는 싸이월드에서 놀았다.
싸이월드 vs 페이스북

지금현재 싸이월드는 새롭게 변화되었지만 5년전까지만 해도 개인의 미니홈피가 있어 그곳에 사진을 올리고 글을 남길 수 있었다. 현재 페이스북의 타임라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싸이월드에서는 도토리를 이용해 미니홈피와 미니미를 꾸미거나 배경음악을 구입할 수 있었다. 물론 페이스북에 '페이스북 메세지'가 있는 것처럼 싸이월드에서 역시 채팅과 쪽지를 주고받을 수 있었다. 싸이월드와 페이스북과의 눈에 띄는 차이점을 꼽자면 싸이월드에는 하루 동안의 방문자수가 미니홈피 상단에 나타나있다는 것이다.

또 싸이월드의 경우 개인 사진첩에 사진을 올려 일촌을 맺은 사람끼리 공유 할 수 있었다. 페이스북 역시 사진을 개인의 타임라인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다. 하지만 싸이월드에서는 펴가기를 통해 사진을 공유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은 특정 사진이나 페이지의 '좋아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사진이 친구를 맺고 있는 페이스북 이용자의 뉴스피드에 뜨게된다.

버디버디, 네이트온이 필수 였던 그때가 있었다.
버디버디, 네이트온 vs 카카오톡

처음 스마트폰이 출시되었을때에는 카카오톡이 독보적으로 SNS 영역을 장악했고 현재까지도 그러하다. 하지만 라인, 피키캐스트 등의 SNS가 계속해서 생성되며 무서운 속도로 카카오톡을 추격하고 있다. 5년전에 우리들에게는 버디버디와 네이트온이 지금의 카카오톡과 같은 존재였다. 버디버디와 네이트온은 문자외에 컴퓨터로 채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스마트폰의 등장과 여러가진 채팅앱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잊혀졌다. 심지어 버디버디는 현재 서비스가 종료된 상태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 변화의 속도에 맞추기가 어지러울 정도다. 지금 우리에게 익숙하고 흔한 카카오톡, 페이스북, 피키캐스트 등의 SNS도 훗날에는 싸이월드, 버디버디등의 프로그램과 같이 언젠가 우리에게 추억이 되지 않을까?

5년 뒤 2020년의 세상이 쉽게 상상조차 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너무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취재/ 최하나(제일여고2), 박가을(진주여고1)기자]

반보드 enquete 남, 여학교 설문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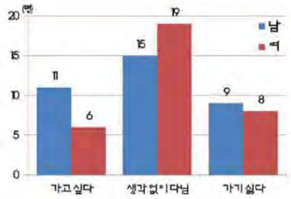
대아고 2학년 2반 VS 경해여고 2학년 5반

Banboard

〈필통 반보드 enquete〉는 매월 남녀 고등학교 각 1개반을 선택하여 청소년이 관심 있는 분야의 설문조사를 해보는 코너입니다. 정확한 조사나 통계는 아니지만 요즘 청소년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남녀 학생들의 작은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미니 설문조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0명이 채 안 되는 1개반의 설문이므로 그 결과가 어떤 통계적 의미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님을 밝혀둡니다. 이번 조사는 대아고 2학년 2반 과35명과 경해여고 2학년 5반 33명에게 같은 질문의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해 봤는데, 과연 남학생과 여학생 각반의 결과는 어떨지!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생활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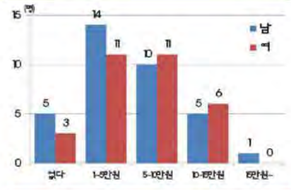
학교가기 싫다 남녀 모두 25% 수준, 그래도 다닐만 하다^^



학교생활 만족도 조사결과는 의외였다. 학교를 가기 싫어하는 학생이 훨씬 많을 줄 알았다.그러나 의외로 생각 없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의무적으로 학교를 오는 학생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학교 가기 싫다라는 적극적인 의견은 25% 정도였다. 남학생의 만족도는 고르게 분산된 한편, 여학생들은 대부분 생각 없이 무기력한 채로 학교를 다니는 수가 훨씬 많았다.

한 달 용돈은 얼마씩?

용돈도 양극화, 1만원에서 15만원 사이 골고루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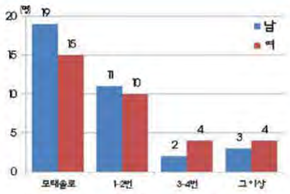


한국사 국정화?

역시나 남,여학생 모두 압도적 반대다. 대통령님 좀 들어 주세요~

나의 연애 경험은?

안습이다. 모태솔모 남학생 54%, 여학생 45%



경해여고, 대아고 모두 일명 '모솔'인 모태솔로가 대다수를 차지했다. 괜찮다. '대학가면 다 생긴다.'는 말에 위안을 가지면 된다. 반면 연애 경험이 4번 이상을 넘어간 대단한 학생들도 있었다. 심히 불쾌감을 주는 이들이다. 모솔들은 부러워하지 않아도 된다. 필통이 모솔탈출을 빌어주고 있다. 하지만 우리에겐 수능이 기다리고 있다. 1년만 고생하자. 이번 크리스마스부터 연애는 잠시 접고 공부하자. 그리고 내년엔 꼭 남친, 여친을 만들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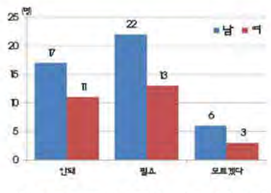
부모님과의 대화?

의외의 결과! 자주 대화 한다 압도적, 반가운 결과다~

제일 의외의 결과를 보인 부모님과의 대화 조사 결과다. 고등학생, 아자하고 학원까지 갔다온 후 집에 오면 부모님과 얘기 할 시간이 별로 없을 수 있는데 대부분 학생들은 부모님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요즘 통계자료들을 보면 대부분의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단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특히 말이 없어진다는 남학생들조차도 부모님과 소통한다는 결과는 반가운 결과다.

학교 체벌은 어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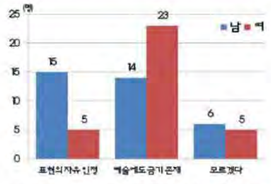
남, 여학생 모두 교육적 체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우세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체벌을 반대할 것이란 생각을 하기 쉽다. 그러나 최근 설문조사를 해 보면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온다. 이번 조사처럼 남, 여학생 모두 교육적인 체벌이 필요하다는 공감을 더 많이 얻고 있다.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체벌금지가 교권의 약화를 가져 온다고 보기도 하고 학생들에게는 어느정도 통제와 규율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그 어떤 사랑의 매, 교육적 체벌도 인권의식이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이유 제제 논란?

남녀학생 온도차, 여학생 예술에도 금기 있다 압도적!



아이유의 제제 논란이 뜨거웠다.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약간의 의견차가 있어 보인다. 여학생들은 예술에도 금기가 존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선을 넘으면 안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반면 남학생들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반반씩 양분되는 모습이다. 남학생보다 여학생들이 좀 더 보수적이라 봐야 되는 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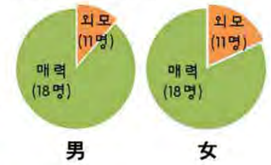
양자택일

놀러 갈 때?

남학생 맨투맨지지,
여학생 맨투맨과 니트 반으로 갈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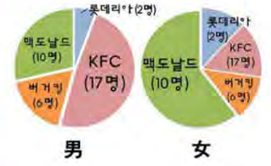
이성 볼 때?

남학생은 외모 볼 줄 알았는데...
남,여학생 모두 매력을 본다!



패스트푸드는 어디?

남학생은 KFC, 여학생은 맥도날드 선호,
예상밖으로 롯데리아가 꼴찌!



아이스크림 맛?

학생들에겐 여전히 쵸코가 최고 인기...
여학생 쵸코 몰표, 남학생들은 의외로 바닐라.
뜋기에도 눈길이 가!

주관식! 나의 의견을 말씀 드립니다

공통 질문	남학생	여학생
50년 뒤 나의 모습은?	할아버지(5), 억만장자(3), 여행을 즐긴다(2), 자고파한 북 카페(2), 모델들을 거느리며 놀고 있을 것, 자유로운 영혼, 내 애들과 즐겁게 산다, 초등교사 정년퇴임 후 세계여행, 세계적 전쟁사 권위자, 큰 정원이 있는 집에서 골든 리트리버를 기우며 아내와 오순도순, 대마법사, 교육부 장관, 대한민국 대통령, 운동 중, 의자왕, 멋진 아빠, 산청에서 한평석 선생님과 안분지족의 삶을, 대아고 경비, 지금 모습,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노인, 코레일 사장, 가장, 기독교인, 컴퓨터를 한다, 나의 식당을 가지고 행복하게 산다.	유명하고 돈 많이 버는 성공한 사람!, 정원을 만들어 여유롭게 산다, 해외에서 집 짓고 산다, (남편과)세계여행 한다, 독거 노인, 할머니(인형 만들고 있다), 억만장자, 오순도순 가족과 산다, 자신만의 제과점을 연다), 모아놓은 돈으로 노후를 즐긴다, 친구와 스위스에서 살살개 키우고 산다, 은퇴 후 작은 카페를 운영한다, 미국의 한적한 곳에 엄청나게 큰 집에서 자유를 누린다, 위인전에 나온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롤모델로 삼는다, 상상이 안간다 등
크리스마스에 받고 싶은 선물은?	여자친구(11), 루돌프(2), 없음(2), 용서, 현금이 두둑한 지갑, 책, AOA, 시계, 무관심, 키, 해외여행권 4장, 나인뮤지스 음악방송 1위, 넘치는 정력, 노트북, 최고사양 노트북, 자유, 강아지, 여자산타와 여자루돌프, 고양이, 편히게 지낼 수 있는 여자 사람 친구, 기타나 자전거, 기차 모형, 정말 맘에 드는 이성과의 데이트	전국 1등의 뇌, (세븐틴) 콘서트 티켓, 현금(100만원), 꽃다발, 김연수, 정유민, 남자친구(대아고 2-1반 존칠, 대아고 2-1반 27번, 대아고 2-1반 29번 밥먹자!!), 휴식, 인형(곰, 양배추), 노트북, 신티크 타블렛, 아이폰, 길리안 초콜릿, 변백현, 시우민, 토토로(인형X), 고양이, 여행, 게임기, 먹을개케이크, 과자, 젤리), 옷, 마음의 평화, 갖고 싶은 것 없음.
선생님에게 가장 듣기 싫은 말?	없음(6), 닭대가리 같은 놈들(5), 공부/입시 관련 잔소리(4), 지금까지 쌓인 거 다 푸는 수가 있습니다(3), 그냥 다 듣기 싫다(3), 욕(3), 한 볼티 한다(2), 내 이름(2), 요즘 많이 참고 있다, 무식한 분과 놀듬, 선생님 기분 나쁘다, 오늘 기분 안 좋다, 자신의 사상을 주입 시키는 말, 비이냥거리는 말, 야!	니가 할 줄 아는게 뭐니?(니가 할 수 있는게 뭐냐고.), 조용히 해라!, 진지하지 못한 것 같다, 보충 튀지마라, 지각하지 마라, 청소해라, 찌증난다, 얼굴 보기 싫다, 이제 고3이다, 졸지마라, 일어나라, 실망이다, 말대꾸 하지마라, 1교시도 아니데 왜 조니?, 야!, 안돼!, 자는 애, 가지가지 한다, 책 패라, 무시하는 말, ~해라(명령조), 잔소리, (한숨), 잔소리보다 한심하게 쳐다보는 표정이 더 싫다, 또 먹니?(오늘은 뭐 먼먹냐?), 너 그 대학 못간다(대학 못가니까 조용히 해라), 빈정 어딨어?, 네가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없다.
내가 갖고 싶은 직업?	초등교사(2), 은행원(2), 교사(2), 치킨집 사장, 돼지국밥집 사장, 강력계 형사, 장교, 배우, 심리학과 교수, 심리 상담사, 게임 관련 직업, 교육부 장관, 공무원, 스포츠 기자, 나인뮤지스 매니저, 걸스데이 매니저, 경찰, 번역가, 영상디자이너, 프리미어리그 구단주, 남자친구, 게임 일러스트레이터, 은행 점장, 만능 엔터테이너, 철도 기관사, 중등 국어 교사, 스포츠 에이전트, 대기업 사장, 검사, CEO, 프리랜서, 요리사	돈 많은 백수, 호텔리어, 경찰, 승무원, 유치원 선생님, 인테리어 디자이너, 소설가, 초등학교 교사, 회계사, 방송 관련, 언론인, PD, ROTC(군인), 무역 회사원, 배우, 에디터, 회사원, 방송 PD, 방송직가, 플로리스트, (고위)공무원, 검사, 심화가, 간호사, 은행원, 프로그램(광고 등)기획자, 호텔 조리사, 카페집 사장, 프로파일러, 뮤지컬 배우, 억만장자, 없다.

[취재/ 장다현(경해여고2), 박규태(대아고2)기자]

[진주투어] 진주 남강엔 다리가 몇개 일까요?

남강을 가로지르는 10개의 다리이야기

오목교
가장 짧은다리

남강댐 바로 밑을 지나는 다리. 왈래하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 다리다. 옛 명칭 오목내를 따와서 교량 이름은 오목교라고 되어 있다. 1998년 준공되었고 폭이 11미터, 길이는 100미터로 짧다. 남강댐의 방류하는 배수구에 위치한 이유에서 아주 작은 다리다. 바로 위에 진양호 물박물관이 위치해 있고 신안평거지역에서 하동 쪽으로 나가는 차량이 많이 이용하는 다리다. 남강댐 방류시 지날때면 특별한 광경을 목격하게 된다. 물론 양쪽으로 인도가 있어 걸을 수 있다.

희망교
유일한 2층다리

희망교는 신안평거지역과 내동면을 연결하는 다리다. 희망교는 총27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2010년 2월 개통되었다. 희망교 개통으로 진주 서부권과 남부권의 교통은 10분 내로 단축되었으며 시청까지도 30분정도 걸리던 시간이 10분이면 가능하게 됐다. 진주 남부권이 진주 시내를 통과하지 않게 됨에 따라 교통체증을 줄여주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특징으로는 진주 교량 중에서 유일하게 2층으로 지어진 점이다. 1층 양쪽 상하행선에 인도가 마련되어 있다.

남강교
혁신도시를 통하다, 문산을 연결

남강교는 남해고속도로 문산 ic 방면으로 최단거리로 연결시킬 목적으로 상대동과 문산 소문리를 연결해 2001년 건설된 교량이다.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종합경기장이 들어서면서 앞으로 진주시내를 연결하는 핵심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길이 360m, 폭 30m, 높이 13.8m이다.

금산교
금산신도시를 위하여

교량의 길이는 320.0m, 폭 25.0m, 높이 10.0m이다. 진주시 금산면의 대단위 택지개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진주시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진주시 초전동과 금산면을 연결할 목적으로 1998년 3월 준공하였다. 금산면지역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금산교와 문산사거리 간 8.4km 도로를 10~20m 폭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진주교
진주최초의 다리, 황동반지의 의미는?

교량의 길이는 272.7m, 폭은 18.0m, 높이는 11.0m이며, 경간의 수는 9개, 최대 경간 길이는 30.0m이다. 일제강점기인 1927년 철골구조로서는 경상남도 내에서 가장 먼저 건설된 다리로 당시 26만원 정도의 공사비로 준공되었다. 이후 1980년 11월 옛 진주교보다 조금 아래쪽에 (주)한라건설이 시공하여 1983년 6월에 완공한 현재의 진주교가 건설되었다. 이 다리는 3번 국도가 지나는 곳에 위치하여 진주시의 중앙부와 칠임동, 강남동, 망경동 일대를 연결해주고, 나아가 진주의 관문인 남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통로가 되고 있다.

진주교는 중앙동과 칠임동을 연결하는 진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교통량이 많은 다리이다. 칠임동 방면에서 진주교를 건너오면 진주시내 중심부와 촉석루가 있는 진주공원과 진주시외버스터미널이 있고, 각종 중심업무 기능들이 집중되어 있다. 진주교에는 논개를 기리는 뜻으로 교각 밑을 감싼 거대한 황동반지가 은은히 빛나고 있어 충절의 고장 진주를 상징하는 다리가 되고 있다.

시내쪽 진주교입구엔 다리 난간 양쪽에 진주에 관련된 사진이 벽화처럼 만들어져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는다. 또 진주시에서는 도시의 야경을 조경하기 위하여 진주교를 비롯한 대형 교량을 대상으로 여러 색깔의 전등을 설치하여 도시의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있다.

필통은 〈진주투어〉를 통해 우리 진주의 숨어있는 볼거리나 이야기거리를 찾아간다. 이번호에서는 아름다운 진주 남강에 가로질러 있는 다리들에 주목했다. 진주에 살고 항상 지나치지만 남강에 다리가 몇개 놓여 있는지 잘 모른다. 진주 도심에는 다리가 무려 10개가 있다. 일상적으로 지나치고 건넜던 다리가 생각보다 많은 것이 조금은 놀랍다. 남강댐 바로밑의 오목교부터 제일 끝자락에 위치한 금산교까지 진주 남강의 다리 이야기를 지금부터 귀 기울여 보자.

진주대교
가깝지만 먼다리?

진주대교라는 명칭이 조금은 아쉬울 것 같다. 이름만으로는 어디에 있는 다리인지 금이 잘 안잡힐 수도 있다. 진주대교는 1996년 개통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의 남강관통 구간에 세워진 다리다. 평거동과 내동면을 연결하는 다리로 고속도로다 보니 일반적으로 이용하거나 걷는것은 불가능하다. 길이 1,160m, 폭 26m, 높이 13m이다. 상행선과 하행선 각각 2차선이다. 서쪽으로 남강댐이 보이고 동쪽으로 망진산과 진주성이 보여 전망이 뛰어나다.

진양교
남강의 두 번째 다리, 사실은 2개의 다리

진주 남강을 가로지르는 다리 중 두 번째 건설된 다리로, 이 다리가 건설됨에 따라 도동 지역의 개발이 본격화되었고, 진주시의 발전 방향이 동부지역으로 확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도동지역에 법원이나 검찰청이 이전하고 각급 학교가 개교하게 되었으며, 진주시청사 또한 이전됨에 따라 교통량이 확대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다리 옆에 왕복 2차로의 새로운 교량이 건설되어 현재는 왕복 5차선이 지나고 있다. 실제는 2개의 다리가 나란히 있는셈이다. 길이 260m, 폭 18.5m, 높이는 8m이다. 국도 33호선에 건설하였는데, 1968년 9월 공사를 시작하여 1969년 완성되었다.

천수교
음악분수의 로맨틱과 자살다리의 오명

천수교는 진주시의 신안평거동과 망경동 지역을 연결하기 위하여 1986년 11월 개통된 교량이라고 한다. 길이 284m, 폭 24m, 높이 11m이다. 진주교와 쌍둥이처럼 비슷한 천수교는 다른 다리에서는 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함이 있는데 바로 천수교 밑에 위치하고 있는 음악분수대! 음악분수는 여름에는 더위를 식혀주고, 친구들, 가족간의 추억의장이 되기도 하며, 때론 복잡한 누군가에는 음악을 들으며 위로가 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하지만 천수교는 그 이름과 반대로 진주에서 투신자살 사건이 자주 일어나 자살다리라는 악명을 가지고 있다. 기존 다리 난간의 높이가 일반적인 다리보다 현저히 낮아 자살및 인전사고를 부른다는 지적에 따라 2013년 다리 난간을 30~40센티 더 높여 1미터20센티로 높이는 공사를 하기도 했다.

상평교
공식적인 진주의 관문

상평교는 상평동과 호탄동을 연결하는 다리로 남강 위를 지난다. 진주 상평공업단지의 조성과 남해도로 진주IC의 건설에 따라 도동지역으로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진주시 상평동과 호탄동을 연결할 목적으로 1987년 12월 진주시에서 발주하여 1990년 12월 준공하였다. 길이 320m, 폭 25m, 높이 10m이다. 상행선과 하행선 각각 3차선과 보도로 되어 있다. 진주IC와 바로 연결되어 진주시의 관문으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김시민대교
10번째 다리, 아주 특별한 사장교

가장 최근 개통한 진주의 10번째 다리가 김시민대교다. 지난 2013년 7월 13일, 3년6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국비 742억이 투입되어 개통되었다. 김시민대교는 혁신도시와 상평공단을 연결하며 상평교와 남강교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다리길이는 488미터인데 기존 진주에 건설된 다리와는 사뭇 모양새부터가 다른 사장교다. 게다가 주탑 높이가 무려 120미터인데 다리의 웅장함을 돋보이게 하려고 5도를 기울어지게 했으며 국내 최대 비대칭경사주탑 사장교로 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주탑 한가운데는 논개의 쌍가락지와 혁신도시의 비상을 담은 형상도 세겨 넣었다고 한다.

특히 계절 변화에 따른 야간 조명으로 야경이 아름답고 주탑 꼭대기에도 조명을 넣었다. 태양광 발전시스템으로 가로등을 밝히는 등 친환경에너지 개념도 도입된 최첨단 다리다.

[필통편집국]

학교 내 빈번한 절도범죄 대책은 없는가?

절도 예방 대책과 교육 매뉴얼이 필요하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행위는 분명 범죄 행위다.

절도. 이는 형법 329조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라고 기재되어 있다. 단순절도죄의 경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는다. 또한 특수절도죄는 최소 1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 받는다. 이렇듯 절도는 법적으로 최대 10년 가까이의 실형이 내려지는 큰 범죄지만 사람들은 절도를 대수롭게 여기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절도죄에 무감각하다. 특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소한 듯 보이는 절도 행위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이나 수업시간 빈 교실에 들어가서 다른 학생들의 물건을 훔치는 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학교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절도를 예방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크게 개선되고 있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학교내 설치된 CCTV를 한 번 살펴보자. 요즘 학교내 절도를 예방하기 가장 손쉬운 방법이 CCTV일 것이다. 대부분의 학교 cctv는 각 층의 복도에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복도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경우 교실내부를 비추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CCTV 자체 영상의 해상도 낮아 화질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한다. 또한 교내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학교도 있다 .

학교내 절도가 결국 피해자와 범죄자가 모두 같은 학교 학생이라는 점이 절도 사건에 대한 대처를 어렵게 하는 측면도 있다. 범죄가 명확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 범죄 학생을 끝까지 찾아내는 것이 피해학생들과 범죄학생에게 더 큰 문제를 발생하게 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억울한 학생을 만들 수도 있고 밝혀진다해도 계속 같이 생활해야 하는 관계라는 어려움이 뒤 따르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학교측이나 교사들이 절도범죄에 대해 적극적이지 않은 면도 간과할 수 없다.

그렇다고 이런 엄연한 범죄 행위이고 교육적 차원에서도 그냥 넘길 수 없는 일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무엇보다 예방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교육도 하나의 방법이다. S여자고등학교에서는 인성교육을 지주하며 그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 무인 매점을 운용 중에 있는데 절도 사건이 거의 없다고 한다.

건물생심, 순간적인 실수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댈 수도 있다. 문제는 이런 학교내 절도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없애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한번 절도를 하면 반복해서 그런 일을 벌일 가능성이 높을 수 밖에 없다.

무조건 CCTV를 늘리는 것만이 상책은 아닐 것이다. 학생들의 인권의 문제도 중요한 만큼 최소화 해서 적어도 학생들의 절도를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CCTV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범죄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덮고 쉬쉬하기 보다는 해당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교육시키는 나름의 학교내 절도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매뉴얼이 준비되었으면 한다.

물론 사소한 절도라 하더라도 범죄 행위를 하는 학생이 가장 큰 문제이겠지만 절도가 생길 환경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 또한 학교의 범죄 방조와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더구나 분명 빈번히 일어 나고 있는 일임에도 절도를 저지르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학교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다.

[취재/ 정덕진(진주중앙고2)기자]

학교내 체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적 체벌과 폭력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교내 체벌 '은 학교 내에서 잘못된 행동을 한 학생에 대하여 사전에 정해진 만큼 체계적으로 체벌하는 공식적인 행위를 말한다. 보통 체벌이라 하면, 지팡이나 회초리 등으로 엉덩이나 손을 때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체벌의 목적은 학생을 교육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학교내 체벌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체벌금지법' 이 2010년 11월 1일에 통과됨으로써 학교 내 체벌이 전면적으로 금지 되었다.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 수도권에서는 대부분 체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학교체벌에 관하여 찬반논란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체벌이 계속되고 있다. ' 체벌금지' 라는 말만 학생들 입에서 오르내릴 뿐 실제로 교내 체벌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체벌을 당한 학생들도 맞은 것을 그저 수긍하거나 개인적인 불만을 표출할 뿐 그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당사자들인 학생들은 대부분 체벌을 반대할 것 같지만 요즘 분위기는 조금 다르다. 설문조사를 해보면 오히려 체벌 찬성 의견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체벌금지로 교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느끼기도 하고 체벌 대신 행해지는 벌점등의 스트레스보다 맞는 것이 더 낫다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심지어 일부 학생들은 요즘 애들은 때리지 않으면 통제가 되지 않는다며 학교내 면학분위기와 질서 때문에라도 체벌이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학교 체벌은 엄연한 불법이다.

과연 체벌을 금지하면 교권이 약화되는 것일까? 학생들의 일탈과 학교내에서의 통제되지 않는 행동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교육문제 전체 차원에서 살펴야 한다. 단순히 아이들을 때리고 통제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 보기엔 조금은 억지스럽다. 그런 논리라면 체벌을 금지하는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교권이 한 없이 추락되어야 되지만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그런 나라에서도 학교폭력등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다. 어쩌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분명 사랑의매, 교육적인 체벌이라는 것의 긍정적 효과와 필요성이 없는바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이전에 폭력과 교육적인 체벌을 명확히 구분하는 준비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법은 정해 두었지만 아직 교권이나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이 아무렇게 행해지고 있는 문화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더 중요한 것은 학생, 선생님 그 누구도 사람이라면 존중하고 존중받아야 할 기본적인 인권이 있음이 그 바탕에 충분히 교육되고 인식 되어 져야 할 것이다.

체벌 이외에도 학생들을 지도 할 방법은 많다. 굳이 폭력을 선택할 이유는 없다. 학생들은 말한다. "우리에겐 몽둥이와 회초리가 아니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줄 선생님이 필요해요." 라고 말이다.

[취재 / 박규태(대아고2) 기자]

방학에도 학교를 꼭 가야 하나요?

학생들을 학교에 묶어두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다

방학의 사전적 의미는 학교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학생의 건전한 발달을 위한 심신의 피로를 덜어주기 위해 수업을 쉬는 기간을 말한다.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고등학교에서는 '자율보충' 이라는 명목 아래에 방학기간동안 '반강제적' 으로 학교를 나와야한다. 이처럼 방학진과 다를 바가 없는 말만 방학인 지금의 방학은, 방학이라고 할 수 없다. 아침 동장군의 겨울 바람을 맞으며 추위를 뚫고 아침 일찍 부터 교복을 입고 학교로 향해야 하는 그런 방학보충에는 여러가지 진실들이 숨어있다.

한 학생이 선생님께 '방학보충을 꼭 해야 하느냐?' 는 질문을 하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대학갈생각 없으면 안 해도 된다." 라는 단호한 대답이다. 방학보충을 안한다고 적어내면 담임선생님께서는 따로 불러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다. 물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빼주시는 선생님도 있으시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다. 대학을 가는 것과 방학에 보충을 하는 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길래 선생님들이 이렇게나 방학보충에 강제적이실까? 답은 생각보다 간단했다.

방학 보충중에 대부분의 학교가 4교시까지 수업한다. 4교시 까지 수업을 할 때에 문과는 영어와 문학을 주로하고 이과는 과학과 수학을 중점으로 수업을 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런 방학 수업들이 모두 시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강제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방학보충 기간에 하는 수업이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또 학교에서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는지 알 수 없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는 보충기간에 졸고 있는 아이들에게 '시험범위 들어가니까 얼른 일어나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방학 보충은 의무적으로 시행되서는 안된다.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방학보충 신청서를 나누어 주고 일방적으로 제출하게 한다. 이게 과연 자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보충수업을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다. 왜 모두가 똑같이 강제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가의 문제다. 강제보충수업의 배경에는 억지로라도 공부를 시켜야 하고 공부 이외의 다른 것은 생각하는 것조차 학생들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는 생각과 또한 보충수업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그냥 놀게 되고 시간을 허비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다.

그러나 자기 의지가 아닌 강제보충수업이 효과적일 수 없다.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선 학교 교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것보다 자신의 의지로 방학을 보내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마음껏 놀아보는 것도 청소년시기의 우리 학생들만의 특권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보다 더 잘사는 선진국들에서는 강제보충수업, 야간 자율학습학교과 같은 일은 없다.

이렇듯 지금의 방학에 이루어지는 강제보충수업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학생들의 성장과 학업효율에 많은 문제를 낳기 때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신윤지(사대부고2)기자]

[우리 선생님] 진주여자고등학교 조영현 수학 선생님

학생들은 포기보다 최선을 경험하고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간단 profile
이름 : 조영현(옥 광채 영(瑛), 솥귀 현(鉉))
교직기간 : 1986년부터 딱 30년
성격 : 전형적인 O형으로 불같은 성격임. 좋은 말로 하면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
취미 : 사진 및 등영상촬영, 여행, 드라이브

학생들에겐 '우리 선생님'이 있다. 참 듣기 좋은 말 '우리 선생님'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를 챙기고 우리를 걱정하고 우리를 감싸며결국 언제나 우리 편일수 밖에 없는 그런 '우리 선생님' 진주여고 학생들에게 그런 선생님으로 불리고 또한 그런 선생님이 되고자 늘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 있다.

누구보다도 빨리 학교에 오시고 수업이 끝난 뒤에도 학생들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1학년 부장선생님이신 조영현 선생님! 진주여자고등학교에서 제일 잘생겼다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조영현 선생님. 필통에서 선생님의 속마음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다.

Q. 여행을 자주 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나라를 가 보셨나요?
유럽 서부지역으로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동부지역으로는 체코 헝가리 터키 그리스, 그리고 동남아 쪽으로는 대부분 다녀왔고 오세아니아는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미국도 갔었죠. 가장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은 일본어를 전공하는 아내 덕에 많이 다녀왔습니다.

Q.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거나 추천하는 여행지는?
사람마다 받는 느낌이나 감동이 다른데 고등학교 시절 독일어를 배웠기 때문에 독일을 자주 갔으며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독일이란 나라가 아직까지는 많은 감동이 남아있죠.

Q. 선생님의 어린 시절 장래희망은?
어릴 때 희망은 사실은 파일럿.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아주 어렸을 때 건강이 안 좋았어요. 열병을 2~3번 앓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겨우 살았는데 조금 더 커서 보니 청력에 많은 손상(현재 청력 5급 장애)되어 있어 공군사관학교 진학하여 파일럿이 되겠다는 꿈을 접고 진로를 바꿔야 됐죠. 참고로 어릴 때부터 저에게 주어졌던 청력손상은 그 자체로 생활에 불편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지만 아이러니하게 지금껏 제가 교직생활을 하는데 있어서는 오히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는 말을 언제나 되새기며 생활해 왔기 때문에 등기부여도 되고 자격도 되었었죠.

Q. 수학선생님을 하게 된 계기
요즘 친구들은 수학 많이 싫어하죠? 전 어릴 때부터 수학을 좋아했고 자연스럽게 좋아했던 수학쪽을 택했던 것 같아요. 이버지와 누님이 또 선생님이셨고 교육자적인 집안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로가 정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Q. 스스로 생각하시는 다른 선생님과의 차별화?
참 이 부분이 어렵긴 한데요. 주위에서 어떻게 불지는 몰라도 아무리 힘들어도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다 싶을 때는 반드시 해내는 성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힘들고 정신이 없고 바쁘더라도 어떤 일이 학생들과 관계되어 있고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 될 때는 반드시 해 내려고 한다고 할까? 추진력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학교의 업무처리나 일을 하다보면 귀찮아서 인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전 적어도 학생과 관계된 일이라면 그렇지 않다라는 지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Q. 학생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이유?
수학을 어려워 한다는 것 보다는 학생들이 수학이란 과목에 대한 인식이 우선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수학은 무조건 외우는 과목이며 암기과목이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죠. 만약 암기를 하더라도 이해를 한 뒤에 기억을 해내고 이론을 유추해내야 하는데 개념에 대한 이해는 하지 않은 채 문제를 간단하게 해결하기 위해 암기하려는 그런 경향이 일반화 되다보니 고등학교에는 더욱더 힘들어지죠. 성적이 안 나오고 점점 멀어지다보면 학생들이 더 이상 수학공부를 안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겠죠 물론 학생들 탓이 아니죠. 시험위주, 성적위주가 되다보니....

Q. 교직기간 중에 가장 재미있었던 에피소드?
에피소드라기 보다는 제가 미혼인 시절에는 꽤 인기가 있었거든요^^ 당시 남녀공학인 고등학교에 근무할 때 저를 그렇게 좋아하고 결혼식에 와서 울기까지 하던 녀석들에게 결혼하고 나니 속된말로 쌩까며 대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요즘 학생들은 소풍을 체험학습 형식으로 가는데 예전에는 학생들과 같이 어울리며 기타치고 노래 부르며 놀았던 추억이 많아요.

Q.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다면?
제가 담임을 했던 학생도 아니고 더구나 문과학생인데 어느 날 연락이 와서 자신이 수학 선생님이 되었다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엄청 놀랐고 신기했죠. 왜냐하면 그 학생이 수학선생님이 될 꺼라는 상상조차 할수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저에게 영향을 받아 수학교사가 되었다고 얘기하니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교사란 직업이 함부로 생각해선 안되는 거구나 하고 느꼈죠. 누군가의 인생에 개입이 되는 거잖아요.

Q. 학생들을 가르칠 때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만의 신념이나 교육방침이 있으신지?
제 좌우명은 '최선'입니다. 쉽게 말하면 매사에 최선을 다하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편이에요. 학생들에게도 최선을 다해 수업을 받거나 공부를 한다는 것이 말은 쉽지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학생들이 포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하기 싫어서 포기 아닌 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결국 최선을 다 안한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라는 단어는 바로 최선이라는 말과 맞닿아 있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자 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포기하지 말고 열정적으로 노력 하자는 뜻으로 해석을 해 주고 싶어요. 우리 학생은 '포기'보다는 '최선'을 경험하고 반복했으면 합니다.

Q. 학생들에게 어떤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학생들이 선생님을 어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 까진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었을 때 '참 이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애를 써 주셨구나.' 그렇게만 기억되었으면 하죠. 그런 선생님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순간에 기분 상하는 일이 있다고 해서 선생님에게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담을 쌓는 듯한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
뚜렷한 목표를 설정한 뒤에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무한한 꿈을 안고 내일을 향해 열심히 뛰어가는 학생들! 멋진 미래가 펼쳐지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행습인운'이란 말을 강조하고 싶네요.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을 바꾸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을 바꾸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꼭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취재/ 전혜원(진주여고1)기자]

아파트엔 층간소음 학교교실엔 벽간소음?

소음에 취약한 학교 교실, 다른 반 친구들 배려해야

매년 연례행사처럼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에 대한 내용의 가사들이 이슈화 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다. 학교에서는 이런 층간소음에 버금가는 일명 벽간 소음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대부분의 우리들의 학교건물은 각 교실이 벽 하나를 두고 붙어 배치 되어 있다. 애초부터 방음이 중요하게 고려되어 건축된 경우도 드물다 보니 교실과 교실 시이엔 소리와 소음이 실시간으로 노출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벽간 소음은 학생들의 수업시간과 자습시간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데 옆 반에서 혹은 복도에서 과성을 지르거나 다른 반에서의 학생들의 과도한 수다들이 각 교실에 그대로 전달 된다. 수업중에도 등영상 시청(소리가 과하게 큰 경우) 소리나 학생들의 리액션이 바로 옆 교실에서 느낄 수 있다.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것 아닌가? 많은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이니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는 집어두더라도 공부가 가장 중요한 학생들에게 그것을 방해하고 효율을 떨어 뜨리는 일이 일상적으로 일어 나고 있다는 것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보통 사람들의 대화소리인 65dB만 넘어가도 집중력이 흐려진다는 조사결과가 있을 정도이니 어떤 학생들에게는 교실간 벽간 소음이 자신들의 수업과 공부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환경이라 볼 수 있다. 이마도 대부분의 학생들도 다른 반의 소음 때문에 공부에 집중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부정하지는 못할 듯 하다.

학교 교실간 벽간소음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제공하기도 한다고 한다. 모 남고의 경우 어느 한 반에서 "와~!"라는 함성소리가 들리면 그 옆에 있던 반에서 또 그 옆에 있던 반에서도 그렇게 쭉쭉 축구장의 파도타기 응원처럼 함성을 지르는 우습고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지곤 한다고 한다. 또한 모 여고 에서는 몇몇 1학년 반들이 고교시절 가장 중요하고 예민한 시기를 겪고 있는 3학년 반 옆에 배치되어 있어 1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절대 정숙' 분위기에 떠들거나 소란스러울 수 없었다는 벽간소음의 또 다른 피해이야기를 들려 주기도 했다. 심지어 그 반은 오랜시간 '정숙화'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니 수능일이 다가올수록 자신들도 3학년과 같이 예민해졌다고 한다.

어떤가? 아파트 층간 소음만큼이나 우리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교실의 벽간 소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많은 스트레스와 피해를 받고 있지 않은가? 집에서 보다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은 것이 우리 학생들의 현실이다. 이러한 벽간 소음 때문에 소음방지 귀마개를 하는 학생들이나 이어폰을 착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을 정도니 학교생활에서 그냥 간단히 무시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당장 학교 건물을 새로 지을 수도 방음 공사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 우리 교실에서 교실간 벽간 소음이 주는 피해와 문제에 대해 공감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나 하나쯤 떠든다고 어떻겠어?' '시끄러운 사람이 귀 막으면 되지' '학교가 다 그렇지 예민하게 뭘..' 이렇게 넘기기보다 과도한 소음은 같은 반 친구들은 물론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는 다른 반 친구에게 상상 이상의 피해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음을 일깨우면 한다.

[취재/ 한승지(진주여고1)기자]

[동아리탐방] 대아고등학교 토론동아리 아고라편

토론은 누구를 이기기 위한 것보다 제대로 된 소통을 위한 도구가 아닐까요?

각 학교마다 토론동아리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대아고등학교에는 '아고라'라는 토론동아리가 있다. 아고라는 토론뿐 아니라 여러 가지 학교행사나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대아고등학교 문과를 대표하는 동아리라는 자부심이 대단하다고 한다. '아고라'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간단한 동아리 소개!
아고라는 올해 8년 차 되는 동아리고 김병훈 국어 선생님께서 계속 이끌어 오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고라는 원래 시사 토론 동아리인데 동아리 내에서 꿈 발표대회도 하고 대외활동도 많이 합니다. 시사 및 사회이슈와 관련해서 상식도 많이 쌓고 상품을 내 걸고 퀴즈대회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원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1학년 2학년 합쳐서 모두 25명입니다.

▶신입부원은 어떻게 뽑는지?
원래 재작년까지 면접이 있었는데 작년부터 면접이 없어졌어요. 면접이 없다 보니까 자금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 저희가 동아리 홍보를 할 때 동아리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동아리에서 토론을 자주 하는 편인지?
거의 한 달에 2번 정도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한 번은 토론을 하고 나머지 한 번은 다른 활동을 합니다. 토론・토의 활동도 하고 퀴즈대회도 하고 발표연습을 해서 말하는 능력을 많이 길러주죠. 또 여름방학마다 캠프를 가요. 작년에는 지리산을 가서 저희끼리 놀았는데 이번 여름방학에는 선생님께서 의미 있게 가보자고 하셔서 국토사랑 백의종군로 탐방 체험을 했어요.

▶토론 주제는 어떻게 정하는지?
역사 교과서 국정화나 유등축제 유료화 같은 그 시기에 이슈가 된 사건을 중심으로 해요. 그리고 토론 동아리다 보니 부원들끼리 진로가 다양해요. 그래서 부원들의 진로와 관련된 주제를 정하기도 합니다.

▶토론시 찬반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 동아리만의 입론서 양식이 있는데 거기 찬반이 전부 다 있어요. 전체 부원이 입론서를 써와서 찬반을 정해요. 대부분 당일 날 가위 바위 보로 정해서 찬성이 될지 반대가 될지 모르고 자료조사를 해옵니다.

▶다른 토론관련 활동은 무엇을 했는지?
올해만 토론대회를 총 3번 참가했어요. 교내 토론대회, 경남에서 주최하는 토론대회, 그리고 진주 디베이트 대회였는데 교내 토론대회에서 저희가 1등을 했고 경남에서 주최한 토론대회에서는 예선에서 2팀을 뽑는데 3등으로 떨어지고 진주 디베이트 토론 대회에 서는 1,2등이 전부 저희 동아리가 차지했죠. 그리고 영남지역 학생대표로 국민대토론회에도 참가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토론 주제가 있다면?
저희가 경남 예선 때 떨어졌다고 했는데 그 대회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거기서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4개가 있어요. 근데 소주제 4개를 안 가르쳐 주고 대주제랑 중주제만 가르쳐주고 저희가 주제 4개를 예선에서 준비를 해가야 되거든요. 근데 소주제 4개 중에 주제 3개는 예상을 했던 건데 나머지는 준비하지 못한 거였어요. 그 주제가 "택시기사 정년 제한을 70세로 해야 하나?" 였는데 정말 생각지도 못한 거였죠.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네요.

▶다른 동아리와 차별화된 점이 있다면?
여름 캠프를 1박2일로 가는 거랑 선생님의 남다른 지원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동아리는 선생님이 계속 바뀌시지만 저희는 김병훈 국어 선생님께서 이 동아리를 만드셔서 지금까지 이끌어 오고 계시는데 지도해 주시는 선생님의 열정이 남다르죠.

▶토론 동아리지만 봉사활동도 한다고 들었는데?
아고라에서 지생동아리를 만들어서 외국인 한글교실이랑 노인치매요양원봉사를 하고 있어요. 한글교실에서는 교재도 저희가 연구하고 직접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동아리내 선후배간 사이는 어떤지?
1학년이랑 2학년이랑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는 편이예요. 일대일 멘토링을 하거든요. 선배들이 후배들 고민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주고 있습니다.

▶토론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무엇이든 말하기 전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준비가 철저해야 겠죠. 토론은 주고 받는 것이니까 자신의 주장도 잘 정리 되어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의 논리도 잘 이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에 맞는 반론과 재반박이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남의 말의 경청할 수 있는 자세도 중요하겠지요. 토론은 누구를 이기는 것보다 제대로 소통하기 위한 도구가 아닐까요?

[취재/문여주(경상사대부고1), 한승지(진주여고1)기자]

〈충무공 탄신 기념일 행군 참여〉

〈올해 동아리캠프는 국토사랑 백의종군로 탐방과 함께 했다〉

〈2015 경남 청소년디베이트 대회에 참가〉

〈2015 국민대토론회에 영남지역을 대표로 참가〉

[꼭 알자] 청소년 알바 10계명

수능 끝내고 알바 입문한 초보 알바생이여~ 알바 10계명 숙지하고 당당하게 알바 하자!

수능시험도 끝나고, 초보 아르바이트생들이 잔뜩 몰려들 시점. 이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놓치기 쉬운 관련 정책과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대처방법,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등을 간략하게 소개하려고 한다.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한 '청소년 알바 10계명'을 꼭 알아두자.

〈청소년 알바 10계명〉

1.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근로가 가능하다.
– 만 13~15세 청소년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취직인허증 :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직종을 지정하여 취직을 인허하는 증명서(근로기준법 제64조)
2.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하다.
3.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계산방법, 지급방법, 근로시간, 휴일, 휴가, 업무내용 등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4.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다.
– 2015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며, 2016년부터는 시간당 6030원으로 인상된다.
5.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다.
– 연장근로는 연소근로자의 동의하에 할 수 있으며 야간, 휴일 근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6.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다.(5인 이상 고용사업장에만 해당)
7.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다.
8.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다.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방, 노래방, 전화방, 숙박업, 오락실, 도박장, 소각 또는 도살업무, 안마실이 있는 사우나, 소주방, 이발소,성인오락실, 만화대여점, 유류(주유소 제외), 양조업장 등에서는 근무가 불가능하다.
9.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도 산재처리를 거부할 수 없다.
10. 상담은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e고객센터나 전국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개선지도과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초과해서 일했다면 연장수당도 받을 수 있다. 사업장에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급의 50%를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또한 연장근로와 무관하게 오후 10시~오전 6시까지 일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0%를 야간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단,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지방노동청의 인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이러한 관련정책을 잘 몰라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에 맞는 대우를 받으며 정당하게 일하도록 돕는 기관이다. 상담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는 물론 카카오톡(ID:청소년근로권익센터), 전화(1644-3119)로도 가능하다.

청소년의 안전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법률들이 마련돼 있다. 활용 절차도 간편한 만큼, 자신의 권리를 정당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관련 정책들에 조금 더 관심을 갖도록 하자.

청소년근로권익센터
http://www.youthlabor.co.kr/
청소년 사이버상담센터
https://www.cyber1388.kr:447/new/index.asp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main/main.jsp

[필통편집국]

[JOB을 잡아라] 대한민국 1인 미디어의 원조 – 미디어 몽구를 만나다

이슈 현장엔 늘 그가 있다. 약자들의 외침 전하다

취재나 촬영 기법을 정식으로 배우지는 못했다. 사회문제에 관한 전문 지식을 쌓을 기회도 별로 없었다. 영향력을 지닌 언론사에 정식으로 소속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는 신념으로 무장한 채 일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 그러나 2005년 블로그를 개설하고 이슈의 현장을 누비며 사회적 약자들의 외침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아낸 지 9년여 만에 그가 내놓은 성과는 놀랍다. 그의 블로거에는 2,500만 명이 방문했고 개시물 조회수는 5,000만 건이 넘는다. 트위터 팔로워가 12만명이 넘는다. 대한민국 1인미디어의 원조. 이슈 현장에는 어김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미디어 몽구(콘텐 김정환)를 만나 보았다.

Q. 1인 미디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

A. 2005년 12월에 황우석 박사가 줄기세포 논란으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날 9시 뉴스를 보니까 생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 때 제가 그 현장을 직접 보고 싶은 충동 같은 게 생겨서 제 강아지(몽구)랑 같이 갔어요. 그전엔 블로그에 사소한 동네이야기들을 올리는 수준이었는데 그때부터 변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당시 서울대의 모든 것을 다 찍었죠. 좀 달랐던 건 황우석 박사가 아니라 그걸 취재하는 언론인들도 찍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현장을 가면 취재대상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렇게 취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첫 경험을 했죠. 많은 분들이 댓글도 달아주셨고. 다음날엔 그게 특종이라고 상금도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연찮게.

Q. 청소년기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A. 저는 아버지 덕분에 어릴 때 여러 국제대회도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세상에 눈도 뜨고, 청소년기 같은 경우엔 정말 다 해봤던 것 같아요. 물론 공부보다 즐기는 쪽이었죠. 사고도 쳐보고, 남들이 학창시절에 해봤을 법할 것들은 거의 해 봤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걸 직접 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생각만 하지 말구요. 그러면 자신감도 많이 갖게 된 답니다. 오늘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행사를 하던데. 요즘 청소년들은 의식도 높고 참 똑똑하더라구요. 제가 얘기해주고 싶은 건 학교 공부도 좋지만 어울림, 공동체 의식 같은 걸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Q. 직업으로써 1인 미디어가 가능한가요?

A. 그게 관건이죠. 1인 미디어의 경제적인 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남들에게 1인 미디어를 추천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특별히 수입이 일정하지는 않거든요. 1인 미디어는 대부분 후원으로 운영해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경쟁의식보다는 협업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지만 1인 미디어로의 활동을 시작할 수 있죠.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후원이 없으면 힘드니까 직업적으론 힘들죠. 외국은 1인 미디어가 돈도 많이 벌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선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Q. 어떤 학생이 1인 미디어에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A. 언론인 지망생들이죠. 취재활동 같은 걸 사진에 많이 배울 수 있어요. 언론사에 들어갔을 때 이력에도 많은 도움이 되구요. 멀리 있는 걸 취재 하기보단, 우리 동네의 소식 같은 것도 좀 알아보고, 경험을 쌓았으면 좋겠어요. 주력 언론사의 기사만 보지 말구요.

Q. 1인 미디어가 언론이라 할 수 있나요?

A.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진짜 언론인'이라는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당당히 1인 미디어도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제가 취재하는 내용이 언론에서 다뤄지는 것을 상상도 못했었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저의 컨텐츠를 기존 언론에서 계속 찾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1인 미디어도 분명 언론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것과 별개로 제 활동 자체가 많은 사람들과 공유되는 것이니까 언론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구요.

Q. 발전보다는 변치 않은 것과, 실력보다는 품성과 같은 기본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A. 시림의 됨됨이죠. 왜냐면 언론인들은 어찌 보면 악마일 수도 있거든요. 무조건 취재 대상에 접근하고 일아내고 해야 하니까요. 주변 사람들을 막대하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 사람들의 이중성이 보이더라구요. 그런 분들이 실력은 최고일지 몰라도 인간으로서 됨됨이는 본받을 사람이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힝상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는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죠. 예를 들어 전 세월호 가족 분들한테 다가갈 때 카메라 없이 갔어요. 일주일 정도 그분들의 이야기를 계속 들었는데 나중에는 그분들이 저한테 왜 카메라 안 가져오느냐고 얘기 하시더라구요. 그 때야 촬영을 시작했죠. 그렇게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마음가짐, 사람에 대한 배려가 중요한 것 같아요.

Q. 혼자서 활동하면서 힘든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언론사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은 안하셨나요?

A. 매주 금요일 오후가 되면 기존 언론 매체와 제가 비교가 되요. 그 시간 저는 현장이 좋아서 취재를 가거든요. 그런데 오후에 무슨 사건이 발생한다면 언론사 기자들은 다 열 받죠. 마감하고 끝내야 하는데 일이 터지니까요. 근데 저는 좋아서 가는 거예요. 차이가 나죠. 저도 〈뉴스타파〉에서 2년 정도 회사생활을 해봤는데 시키서 하는 건 정말 못하겠더라구요. 지금은 〈뉴스타파〉가 언론인 지망생들이 꿈꾸는 매체거든요. 근데 저는 도저히 안되겠다 싶었어요. 아인으로 실다가 그런 조직에 적응하려고 하니까 힘든 점도 많았고 무엇보다 늘 저는 현장으로 달려 가야 하니까요. 사실 스카웃 제의도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좋아서 안가고 싶다고 얘기했죠.

Q. 언론인을 꿈꾸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A. 언론도 크든 작든 권력이에요. 저는 그 권력을 남에게 과시하거나, 약자에게 쓰지 않아요. 여러분도 처음 언론사에 합격했을 때 했던 다짐, 그 마음을 변치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은 항상 변하지만, 초심을 지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해요. 어떤 언론인이 되고자 했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마음을 변치 않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Q.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A. 저는 꼼이나 앞날을 바라보고 가지 않았어요. 그건 지금도 그렇구요. 목표를 잡고 걸어간 게 아니라 순간을 헤쳐 나갔어요. 저는 묵묵하게 계속 걸어가다가 딱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제 꼼이자 목표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처럼 묵묵하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게 제 계획이자 목표, 꼼입니다.

미래는 1인미디어 시대 나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다

MBC 예능 프로그램 '마이리틀텔레비전' 다들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연예인들이 각자 자유로운 콘텐츠를 가지고 1인미디어방송을 하는 것을 편집한 프로그램인데요. 이처럼 요즘은 1인 미디어 방송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란 개인이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여러 사람이 볼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업로드 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소식들을 글과 사진으로 전하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등의 눈, 혹은 멋진 풍경과 재밌는 공연, 귀여운 반려동물의 모습, 사회적 이슈등을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 하는 유튜브 등이 1인 미디어를 대표하는 채널이고 이를 통해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 것을 1인 미디어라 통칭하는 것이죠.

이러한 1인미디어의 등장은 물론 스마트폰 보급화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나 콘텐츠 작성 및 편집, 촬영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1인 미디어 콘텐츠를 창출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고 1인 미디어의 범위도 확대 추세에 있는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쉽게 글을 작성하고 사진 편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PC 앞 앉아서 작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1인미디어 채널이 급성장 할 수 있게 된 배경에는 바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과 실시간 업로드가 가능한 웹 환경이 있었던 거죠.

대도서관, 씬님, 벤쯔... 이들을 알고 있다면?

1인미디어 시대를 논할 때 빠지지 않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먼저 일명 '유튜브 유재석'으로 통하는 '대도서관'!! 그는 게임 플레이나 애견이야기 등을 재미있게 중계하는 크리에이터로 유명한데요. 그의 채널은 이미 백만명 이상의 애독자가 있을 정도...

'씬님'은 유튜브에서 '뷰티 엔터테이너'라 불리며 본인만의 독보적인 화장법 등을 소개하는 콘텐츠를 업로드 하는데 국내는 물론 해외 이용자들 사이에서도 팬덤을 구축할 정도로 인기가 높은 크리에이터입니다. '먹방'의 시초라 불리는 '벤쯔' 역시 국내 인터넷 방송 채널인 '아프리카 TV'를 통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소개하는 방송으로 '먹방 열풍'을 만들어 낸 장본인이랍니다.

1인 미디어 방송은 컴퓨터만 있으면 누구나 방송을 할 수 있고 쉬운 접근성과 다양한 콘텐츠를 장점으로 이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도 많이 생겼는데요. 생계유지는 가능할까 싶지만 이들의 수입 또한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도서관, 다또아 이 생소한 이름들은 1인 미디어 창작자들의 닉네임입니다. 이들은 각자의 개성을 살린 차별화를 통해 많은 인기와 부를 얻고 있습니다.

이들을 단순히 '인터넷 스타'라고 부를 수도 있겠지만 직접 만든 콘텐츠로 편집과 업로드 행위를 스스로 한다는 점에서 '크리에이터'라고 부르기도 한답니다.

이 크리에이터들의 공통점은 바로 본인이 제작한 영상 콘텐츠를 통해 유명해졌다는 점. 덕분에 1인 미디어가 가장 활발한 성장을 보이는 채널은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같은 영상 업로드 채널들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블로그포스트나 팟캐스트 같은 채널을 통해 잡지 에디터나 라디오 DJ처럼 콘텐츠를 생산하는 경우도 많아서 1인 미디어 채널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도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을까?

누구나 마음 먹으면 언제 어디서든 콘텐츠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 다만. 많은 사람들에게 지지받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진정한 '크리에이터'가 되기란 쉽지 않겠죠? 1인 미디어시대의 크리에이터가 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이래 팁을 참조해 보세요.

첫째, 본인이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분야를 정확히, 세밀히 설정하는 것이 좋다.
둘째, 자신에게 맞는 1인 미디어 채널을 찾아라.
셋째, 콘텐츠는 자주 업로드 한다.

오늘은 내가 만약 1인미디어 콘텐츠를 제작한다면 어떤 정보를, 어떤 채널을 통해 제공할지 생각해 보세요. 본인의 관심분야와 재능에 대해 새로운 발견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요.

[취재/고유리(심현여고2), 김은지(진주제일여고2)기자]

당신도 수포자입니까?

수포자 35만명 시대, 학생들은 수학을 배울 권리가 있다

최근, OECD가 각국의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학성적을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해에는 1위, 올해는 3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실력은 상위권이었다. 하지만 수학 시간이 기다려 지나는 질문에는 22%의 학생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상위권 학생들의 수준은 높지만 수학에 대한 흥미는 현저히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늘고 있다. 흔히들 '수포자'라고 한다. 수포자 35만명 시대. 대한민국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공부, 수학.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과목이기도 하고 가장 많이 하는 사교육이기도 한 수학. 하지만 가장 많은 학생들이 포기하는 공부가 바로 수학이다.

교육방송(EBS)이 대입을 준비하는 고교생과 재수생 1만3140명을 상대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해보니, 자신이 수포자인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25%가 '그렇다'고 답했다. 스스로 수포자라고 생각하는 학생은 고3(31%), 고2(21%), 고1(17%) 차례여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수학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을 포기한 이유에 대해 수포자 학생의 47%는 '기초가 부족한데 다시 시작할 엄두가 나지 않아서'라고, 20%는 '공부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수학을 포기하면 대학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수학은 대한민국 학생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런데도 대한민국 학생 중 35만명이 수포자이다. 학생들 스스로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진주중앙고등학교의 정모양은 '수학은 공부할 내용이 너무 많다. 대학생 언니오빠들도 수학 관련 학과 아니면 우리가 배운 것 중 반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실용적이지 못한 것을 대학만을 위해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다는 것이 이해 안된다. 좀 더 수학분량을 줄여 실용적인 것들만 배우고 학생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면 좋겠다'고 말한다.

진주여고 박모양 역시 '수학은 정말 선행을 하지 않으면 망한다. 혼자서 하기에는 그 양이 너무 많아서 따라 가기가 너무 힘들다.'며 다른 학생들을 따라가기 위해 수학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한다.

경해여고의 한 학생은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수포자들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공부 양도 많아 지고 내용도 어려워 져서 이제는 문제를 박도 풀고 싶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 이젠 너무 늦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며 '처음에는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제대로 된 설명도 들을 수 없고 안 외우고 공식을 이해하려는 것이 고집처럼 느껴지고 나만 손해인 것 같아서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학은 과목의 특성상 진도를 한번 놓치면 쫓아가기가 힘들고 다시 해보려고 마음을 먹어도 다음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놓친 부분을 복습하고 가야하니 엄두가 나지 않는다는 토소리가 많다. 시간이 흐를 수록 다시 수학책을 펼치기가 두려워 진다는 얘기다. 결국 놓쳤던 부분도 해결하지 못하고 새로 배우는 내용도 포기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배우는 수학이 너무 어렵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수능에서 변별력을 높이려다 보니 수학문제들이 지꾸 어려워진다고 한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사교육 선행학습이 필수가 되고 기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지 못하면 흥미를 잃게 되니 당연히 수학공부가 어려워지고 포기하기 쉬운 것이다. 어려운 수학과 필수가 된 사교육의 영향은 학생들의 수학 실력차도 커지기만 하고 자연스럽게 학교에서의 수업방식도 상위권 학생들에게만 맞춰지게 된다. 수학은 포기하고 수학시간은 엎드려 자는 시간이 되는 것이 이해가 될법도 하다.

수포자가 생기는 것이 과연 공부하기 싫어하는 학생들 때문일까? 일리 생각해 보면 우리 학생들은 누구나 수학을 배울 권리가 있다. 수학공부가 어렵고 힘들어서 포기를 하든, 대학입시에서 좀 더 나은 성적을 내기 위한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수학을 포기하든 그런 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어쩌면 우리의 입시제도나 학교 환경이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빼앗고 있는지도 모른다.

교육은 끝까지 학생들을 포기해서는 안된다. 25%가 넘는 학생들이 수학을 포기하는 현실을 당연한 듯 인정할 수는 없다. 또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계속 두고 보아서도 안된다. 제도가 문제라면 제도를 고치고 어렵다면 더 쉽게 교육과정을 바꿔야 한다. 학교에서도 수포자를 버리는 수업이 아니라 수준에 맞게 지도할 방법을 찾고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기본으로 하는 구체적인 수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무엇이든 쉽게 포기하는 것은 배우는 학생에게 어울리는 일이 아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어릴때부터 포기를 경험하고 배우게 하는 환경이 계속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취재: 여가현(진주중앙고1)기자]

교원능력개발평가, 학생들이 선생님을 평가해?

억지스런 평가보단 소통이 필요하다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한다? 제자가 스승의 가르침에 대해 어리쿵 저리쿵 얘기는 할 수 있어도 공식적인 평가 기록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공식적으로 학생들은 교원능력평가란 이름으로 선생님들을 평가하게 되어 있다. 교원능력 평가란 교육부에서 교원능력 신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 공정한 평가를 통한 교원의 지도능력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매년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정의되어 있다.

공부에 지친 학생들 그리고 그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사이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다.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갈등관계를 가지기도 한다. 그리고 학생들의 서로 다른 입장차에 따라 선생님들의 수업의 질이 다르게 평가되기도 한다. 또한 선생님과 학생 사이엔 감정적 다툼도 발생하고 학생들 사이에선 특정 선생님들에 대한 험담도 행해진다. 이런 학교생활속에서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사제지간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한다.

선생님들에게도 자신들의 평가가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교원능력 개발 평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익명성'이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학생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있을 수 없을 것이고 그 평가가 정당한 결과로 볼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이러한 익명성은 오히려 악용될 우려가 있다. 몇몇 학생들은 마음에 들지 않은 선생님을 악의적으로 낮게 평가하거나 서술 란에 욕을 넣어 선생님을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학생들의 행동이 옳지 못함은 분명하다. 하지만 또한 익명이라지만 선생님이 이런 학생들을 마음먹고 찾아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한다. 바로 평가 시간대를 알아내거나 유추 가능한 단어를 통해 짐작하는 등 방법은 많다. 문제는 실제로 그렇게 찾아낸 학생을 고의적으로 성적 평가나 학교생활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선생님들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에겐 귀찮고 부담되는 선생님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까지 선생님들에게는 예민한 이유는 뭘까? 바로 교원능력 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교사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평가기준에 미달된 해당 교사들은 이와 관련 장·단기 집중 연수를 받아야 하는데 장기 연수자들은 시·도교육연수원 등에서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동안 각각 1개월, 학기 중 4개월 등 모두 6개월 동안 연수를 받아야 하며 단기 연수자는 방학 때 60시간 연수를 받아야 한다. 만약 다음 평가에서도 징기 연수자로 다시 선정될 경우, 집합연수를 받게 돼 수업에서 아예 배제되는 벌칙을 받게 되기 때문에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선생님이나 학교에서는 강제로 학생들에게 좋게 평가를 하라고 강요하거나 선생님이 직접 감독하에 그 평가를 치르게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학생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평가는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되고 결코 좋은 제도라고 말할 수 없다. 또한 더 이쉬구니 없는 일은 교원능력 개발평가는 학생들의 학부모도 하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의 수업을 들어보거나 얼굴도 본 적 없는 학부모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형식적인 평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를 대신해 학생들이 자신들 마음대로 메우기식 평가를 하는 경우도 많다.

이런 그 목적에 부합하지도 않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교원능력평가를 왜 계속 해야 하는 것일까? 더구나 빈틈투성이인 평가 제도는 학생들과 선생님들 사이를 은근히 이간질 시키기도 한다. 비록 좋은 목적에서 나온 제도라고는 하나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일단 그 평가의 결과로 선생님들의 실질적인 불이익이 돌아가는 제도는 문제가 있다. 선생님들의 수업과 학교운영에 참고가 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이다. 학생이 선생님을 평가하다는 것보다 학생들의 의견이 선생님과 학교에 전달되는 소통의 방법의 하나로 교원능력평가가 진짜 모습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한다.

[취재/황주일(진주기공2)기자]

예체능 학생들에 대한 선입견과 색안경

공부와 성적만이 학생 평가의 유일한 잣대가 아니다

일반적인 어른들의 사고방식은 이러하다. 그림 그려서, 혹은 음악 해서 무얼 먹고 살 것이냐. 심지어는 음악과 관련된 꿈을 갖는다고 하면, 그것 '딴따라'를 하여서 무엇 하느냐며 판잔을 주기도 한다. 그리고는 덧붙인다. '딴 생각 하지 말고 공부나 열심히 해라.'

예체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어른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도 이런 시선을 간혹 느낄 수 있다. "재는 수학시간에 왜 맨날 자?" "놔둬, 쟤 예체능이야." 흔히 들을 수 있는 대화이다. 물론 예체능쪽을 준비 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공부 자체를 소홀히 하는 학생들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일반적으로 예체능 분야로 진로를 결정한 학생들에 대해 '공부를 안하는 학생' 이라는 평가를 내리기도 한다. 심지어는 '공부를 못해서 예체능을 한다.' 라는 선입견을 가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예체능 분야의 대학이 높은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이것은 단지 공부를 하기 싫어하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예체능의 경우, 입시에 있어서 성적외에도 미술이나 음악 등에서 학생들의 실기 실력이 학생들을 평가하는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당연히 학생들은 실기를 준비하느라 일반적인 학생들에 비해서 공부할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학생들은 대학을 위해 공부보다는 실기 준비에 집중하게 되고 성적은 뒤처질 수밖에 없게 된다.

하지만 수도권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체능임에도 불구하고 최저등급이 정해져 있는 학교도 꽤 있다. 이런 대학의 경우 실기 뿐만 아니라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들어 갈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기 준비에도 빠듯한 시간을 쪼개어 공부를 하며, 실기와 공부를 병행하며 입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이다. 또한 성적이 안정권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을 기대할 수도 없다.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통과 실기 평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아야지만 대학에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다.

물론 대학은 많다. 학교에 따라 성적을 반영하는 비율도 천차만별이다. 하지만 예체능 계열의 경우 상대적으로 성적을 많이 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성적관리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이 사실 꽤 존재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학업에 매달리지 않는 예체능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왜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보는 것일까?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계획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다른 아이들이 공부에 매진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미술, 또는 음악과 같은 본인만의 분야에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고 있는 중이다. 현실적으로 입시에 상대적으로 공부가 필요하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것일 뿐이다. 그럼에도 공부를 하지 않는 태도를 굳이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이유가 있을까?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그 공부란 사회성적을 올리는 것으로 지극히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그런 '공부'로 대학을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학생들은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 마냥 여겨지는 우리들에게, 예체능 분야로 진학할 학생들을 일방적으로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 학생답지 못하다는 선입견과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현실일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도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나름대로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닌 자신의 목표를 위해 얼마만큼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고 있는지를 볼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밤낮으로 자신이 원하는 대학을 위해 공부하는 학생들만큼 예체능 실기 연습과 노력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학생들 역시 충분히 박수와 격려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알았으면 한다.

▲ 2014년 서울 소재 모 대학의 예체능계열 신입생 정시모집을 위한 실기고사

[취재: 박주희(경해여고1)기자]

[필통실험실] 겨울철 필수품 립밤 5종 비교분석

내 입술은 소중해~ 여러분은 립밤 먹 쏘세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약국과 화장품가게에서 불티나게 판매되는 것이 있다. 바로 우리들의 입술을 보호해주는 립밤이다. 추운 날씨와 건조한 바람으로 트고 갈라지는 입술을 보호해주는 립밤은 학생뿐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하나씩은 들고 다니는 겨울철 필수품이다.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립밤이 판매되고 있다.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 속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권할만한 립밤은 어떤 것이 있을까? 보습력은 어떤 립밤이 좋은지, 가성비는 어느 것이 최고일지 등을 두고 소위 결정장애에 놓인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이번 〈필통실험실〉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 대표적인 립밤을 5종을 구입하여 가격, 용량, 색깔,기름기, 성분 등을 비교해 보았다.

립밤 5종 비교 실험

니베아, 챕스틱, 카멕스, 립아이스, 뉴트로지나 립밤

이번 실험에서는 니베아, 챕스틱, 카멕스, 립아이스, 뉴트로지나등 총 5가지 종류의 립밤을 비교해 보았다. 모두 우리 주변의 화장품 매장이나 약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들로, 로드샵에 들어가는 것이 망설여질 남학생들도 거리낌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다. 공정한 비교를 위해 모두 무향, 무색의 스틱형으로 구매했으나, 립아이스는 무향제품이 없는 관계로 레몬향으로 실험했다.

니베아 가장 저렴, 뉴트로지나 최고가!

〈제품별 립밤 용량을 다 빼놓은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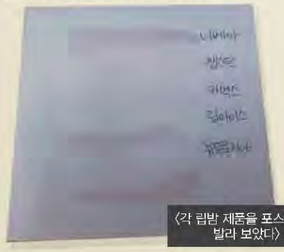
구 분	가격	용량	색깔	기름기	들리는 것	주 요 성 분
니베아	2,500	4.8g	흰색	많음	하단	알로에베라, 쉐어버터 등
챕스틱	3,000	4.2g	연분홍	적음	하단	모이스처 배리어 등
립아이스	3,500	3.5g	흰색	많음	하단	멘톨, 라놀린,매도우폼씨오일
카멕스	4,000	4.25g	불투명한 노란색	적음	하단	내추럴 멘톨, 캄퍼라놀린 등
뉴트로지나	4,400	4g	약간 노란 흰색	많음	상단	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벤조페논 등

먼저 가격을 비교해보았다. 니베아 2,500원, 챕스틱 3,000원, 립아이스 3,500원, 카멕스 4,000원 뉴트로지나 4,400원으로 뉴트로지나가 가장 높은 가격이었다. 용량대비 개별 가격을 비교했을 때는 니베아가 1g당 약 520원 정도로 가장 싸면서도 많은 용량을 자랑했다. 반면 제일 높은 가격의 뉴트로지나는 1g당 약 1100원으로 니베아 가격의 2배가 넘어 그 차이가 적지 않았다.

립밤의 성분을 비교해 보았다. 포장지에 적혀있는 성분은 각 립밤이 내세우는 대표 성분들로 알로에베라, 모이스처 배리어등이 있었고,서로 겹치는 성분은 없었다. 멘톨류가 립아이스와 카멕스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이 전부였다. 외관을 비교한 결과 챕스틱과 카멕스의 용기에는 보호 캡이 붙어 있었다. 립밤을 사용할 때 용기속의 립밤을 밖으로 나오게 해야 하는데 뉴트로지나를 제외한 네 가지 모두 돌리는 부분이 하단에 위치하고 있었다. 니베아가 돌리는 부분의 면적도 넓고 제일 부드럽게 돌아갔으며 립아이스 뉴트로지나 챕스틱 순으로 사용감이 뛰어 났다. 특이하게도 카멕스는 돌릴 때 '딱딱' 소리가 나며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아 불편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촉촉함 지속 카멕스-챕스틱 최고!

이번에는 모든 화장품류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 되는 지속력과 기름기를 실험해 보았다. 포스트잇에 다섯 종류의 립밤을 동시에 바르고 5분후 일미나 촉촉함이 남아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았다. 그 결과 카멕스가 처음 발랐을 때와 거의 흡사한 정도의 촉촉함을 보이며 1위를 차지해 탁월한 지속성을 보였다. 2위인 챕스틱 역시 살짝 굳은 것을 제외하고 처음과 변화가 없는 상태를 보였다. 그런데 니베아, 립아이스, 뉴트로지나 3종의 제품은 5분뒤 모두 거의 건조된 상태로 변해 촉촉함이 오래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방법으로 각 제품의 기름기를 테스트한 결과 니베아, 립아이스, 뉴트로지나가 종이에 바르자마자 기름기가 나타났다. 그러나 챕스틱과 카멕스는 5분 후에도 기름기는 나타나지 않아 차이를 보였다.



〈각 립밤 제품을 포스트잇에 발라 보았다〉

건강과 외모를 잡아라. 이젠 립밤은 필수?

실험에서는 공정성을 위해 무향과 무색의 스틱형 립밤만을 사용했지만 실험에 사용된 립밤브랜드 모두 다양한 색과 향을가진 립밤제품을 많이 판매하고 있다. 니베이와 챕스틱은 무색의 제품도 기능에 따라 향이 다양하며 립케어와 컬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제품들도 많다. 챕스틱은 이름에 걸맞게 모두 스틱형의 제품들이고 니베이는 립버터형, 튜브형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있다. 카멕스는 체리향과 무향 두종류로 나뉘고 모양은 단지형, 튜브형, 스틱형이 있다. 립아이스는 모두 스틱형으로 무색의 제품에는 스트로베리 레몬 애플향이 있고 컬러용 제품도 있다. 뉴트로지나는 향과 모양은 단조롭지만 입술 치료를 위주로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립밤들중 자신이 선호하는 립밤의 형태를 고르고 자신의 피부와 입술의 조건을 고려해 적절한 립밤을 찾았으면 한다. 겨울철 쉽게 트기도 하고 조금만 방심하면 갈라진 입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 일쑤다. 건강을 위해서도 또 외모를 가꾸는 차원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립밤은 남,여학생 구분없이 꼭 필요한 필수품이 아닐까 한다. 이번 [필통실험실]의 결과를 고려해 추운 날씨로부터 입술을 지켜줄 립밤을 선택해보는 것은 어떨까?

갈기도 다르기도?

거친 입술을 다스리는 자, 립밤! [lip balm]
립밤은 입술이 트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바르는 연고라고 사전에 나온답니다. 약국에서도 볼 수 있는 거친 입술을 보들보들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 립밤입니다. 립밤의 원초적인 목적은 튼 입술을 보드럽게 만들어주는, 입술이 트는 것을 막아주는 보습에 있습니다.

밤색을 원하는 자, 틴트!
틴트라는 말이 여자들에게는 아주아주 익숙한데요. 틴트는 립스틱에서 색상만 쏘옥 뺀 액체 형태의 립 메이크업 제품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빛나는 입술을 탐하는 자, 립글로스!
립 글로스는 발색이나 보습보다도 빛나는 입술, 윤기에 중점을 둔 제품입니다. 최근에는 립스틱이나 틴트 못지않은 발색력을 지향하는 립글로스가 나오고 있어 립글로스 하나만으로 윤기와 색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립 메이크업의 원조, 립스틱
입술에는 립스틱이라는 생각? 엄마도, 엄마의 엄마도 입술에는 립스틱을 바르셨으니까요. 립 메이크업의 원조격이라 할 수 있는 립스틱은 여자들이 화장할 때 입술에 바르는 막대모양의 연지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카멕스-챕스틱 너무 무르고 니베아-뉴트로지나 너무 딱딱해

일반적으로 립밤은 너무 딱딱해서 잘 발리지 않는 립밤 보다는 부드러운 성질의 것이 좋겠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무르다면 양조절이 힘들고 잘 으깨지는 단점이 있을 것이다. 이런 립밤의 무른 정도를 비교 해보기 위해 같은 양의 립밤을 똑 같은 힘으로 눌러 으스러지는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첫 번째로는 카멕스가 큰 힘을 가하지 않아도 형태 없이 으스러질 만큼 물렀다. 쉽게 녹기도 해서 실험 중 끝까지 빼놓았던 립밤이 다시 들어가지 않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벌어졌다. 2위인 챕스틱 역시 약한 힘으로도 형태를 잃었고, 다음 무른 정도는 립아이스 니베아 뉴트로지나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하게도 니베아와 뉴트로지나는 센 힘으로 꾹 눌러도 으스러 지지않고 미끄러져 튕겨나갈 정도의 강도를 보였다.

립밤, 집에서도 만들 수있다?!

보습력이 마음에 들던 지속력이 별로고, 다른게 다 마음에 드는데 색상이 별로여서 선택을 망설인 적이 있는가? 이런 여러분들을 위해 나만의 립밤 만드는 방법을 소개해 보겠다.

준비물:
바세린, 공병, 쓰고남은 립제품

먼저 립밤을 담을 공병을 세척한다. 피부에 닿는 화장품이기 때문에 소독이 가능한 유리공병을 추천한다.
그 다음 바세린을 적당히 공병에 적당히 덜고 원하는 색상의 립제품도 소량 넣어준다.
그 후 드라이기를 이용해 액체화 되게 끔 녹여주고 냉장고에서 10분간 굳히면 립밤이 완성된다.
사람마다 어울리는 색상이 있는데, 시중의 립밤은 컬러가 한정적인데 반해 핸드메이드 립밤은 본인이 평소 사용하는 색상을 그대로 립밤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향이 나는 오일을 추가하면, 시중 립밤 부럽지 않은 발향력을 자랑한다.
내 마음대로 색과 향을 조절할 수 있는 핸드메이드 립밤, 이젠 집에서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취재/김태현(사대부고1), 전현주(삼현여중3), 하은서(진주여고2)기자]

[임진용의 재미있는 과학&역사 이야기]

제4화 과학(科學)이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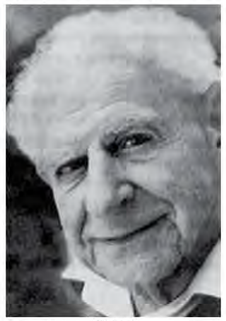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과학(科學)'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특히 기술적(技術的)인 발달에 힘입은 도구를 사용할 때, 과학의 혜택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데, 과연 '과학' 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定義)내릴 수가 있을까?

예전에는 '과학(科學)' 이라고 함은 '자연과학(自然科學-natural science)' 만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그러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사회학(社會學-sociology)' 과 '인문학(人文學-humanities : 원래 인문학은 자연과학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주로 인간과 관련된 근원적인 문제나 사상, 문화 등을 중심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을 지칭하는 것이었음)' 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과학적 기법을 도입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과학(社會科學-social science)', '인문과학(人文科學-cultural science)', 'ㅇㅇ과학'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과학을 아주 간단히 표현한다면 '현상을 관찰하고 규칙성을 발견하여 일반화시키는 작업' 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반화(一般化)' 라는 것을 '보편화(普遍化-여기에서는 '널리 알리다' 라는 의미만을 띠고 있는 상태' 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데, 이때의 '일반화' 라고 함은 자신뿐만 아니라, 제 3자가 보더라도(客觀的) 충분히 공감하고 인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 놓는 상태(이것은 현상의 분석뿐만이 아니라, 향후 결과에 대한 예측 도구로서도 충분한 가치가 인정되어지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자연과학자가 자신의 실험실에서 오랫동안 실험하고 관찰 활동을 수행한 결과, 자신의 연구 대상으로부터 일관되는 결과를 가져다주는 규칙성을 발견했다고 가정하자. 그는 이러한 사실을 학회지(學會誌)에 발표함으로써 그 내용을 알리게 되는데, 그런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단계의 검증들이 요구된다. 이 때 수행되는 검증 방식에는 '자기번복과정(自己反駁過程)' 과 '크로스 체크(交叉確認作業)' 등이 있는데, 이것은 향후 경쟁 연구 집단들의 공격에 대한 방어막을 형성하는 기초가 된다.

과학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이러한 관문들을 제대로 통과하게 되면 잠시도 발표를



(칼 포퍼)

지체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자연과학 분야에서 '과학적 성과의 발표' 라는 것은 '언제, 누가, 먼저 했느냐?' 라는 것이 곧장 그 학자의 명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새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 같은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시키고 있던 전 세계 여러 과학자들이 학회지(學會誌)에 소개된 내용을 실험실에서 그대로 재현시켜 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연구 과정에 곧장 응용시켜 봄으로써 발표된 연구 결과의 신뢰 여부에 대해 재차 검증하는 과정을 다시 거치게 된다. 이러한 검증 작업들이 만약 정합성(整合性)에 이끌린 결과들을 뚜렷하게 보여준다면, 그 연구 결과는 법칙(法則)으로 공인받으며 비로소 학계에서 패러다임(paradigm)으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게 된다. 하지만 학회지에 소개된 내용과 동일한 실험 조건들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가 산출되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차례 보고가 된다면, 그

(토마스 쿤)

것은 원초적(原初的) 단계에서부터 재검증(再檢證)이 이루어지고, 그런 재검증의 결과가 전혀 일관된 규칙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면, 그 연구 발표는 조작으로 인한 '거짓' 으로 신속하게 공표된다.

그런데 처음부터 '동일 조건' 을 부여할 수 없거나 진정 옳고 그름을 판별할 수 있는 '반증가능성(反證可能性)' 이 없는 연구 분야가 있는데, 칼 포퍼(Karl R. Popper, 1902-1994)는 그런 분야의 연구 활동들은 '과학의 범주(範疇)' 에 넣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점성술(占星術)', '형이상학(形而上學)', '정신분석학(精神分析學)', '헤겔의 역사이론(歷史理論)', '마르크스주의 역사이론(歷史理論)' 등이다.

이처럼 '동일 조건 → 동일 결과' 라는 기법을 사회학이나 인문학에 적용시켜(물론 전 세계 어떤 국가나 조직 그리고 어떠한 인간 활동이라도 그 지역의 문화와 전통, 그리고 역사에 의해서 완전히 동일한 조건화가 구현될 수는 없겠지만) 해당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분석하고 좀 더 나아가 향후 발생 가능한 현상들까지 예측해 보겠다는 시도를 함으로써 '사회과학' , '인문과학' 이라는 분야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의 속성(屬性)들을 정확하게 인지한 후에 '과학(科學)' 이라는 용어를 'ㅇㅇ과학' 이라는 조합으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른 조어법(造語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토마스 쿤(Thomas S. Kuhn, 1922-1996)은 1962년에 『과학혁명의 구조(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라는 책을 통해 '과학의 발달 과정' 을 단계별로 설명했다. 그는 과학은 【정상과학(正常科學) → 이상현상(異常現象) → 위기(危機) → 과학혁명(科學革命) → 새로운 정상과학(正常科學)】의 단계를 거치면서 발달한다고 설명했다. 이 때 정상과학은 기존에 유행하고 있는 과학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상과학을 지탱하고 있는 법칙이나 이론이 해당 분야에서 완벽한 논증을 구사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모순을 낳게 되면, 그것은 점차 이상현상(異常現象)을 낳게 된다. 이러한 이상현상이 누적되면 결국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기존의 법칙들이나 이론들은 신뢰도를 상실하게 된다.

얼마 후, 위기가 진행됨에 따라 기존의 틀이 완전히 깨져 비리는 혁명의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과학혁명(科學革命)' 이다. 과학혁명은 기존의 법칙과 이론이 어떤 틀을 구성했는가에 따라 그 진행 과정과 기간이 각각 달라지는데, 시간이 흘러 일정 단계에 접어들면 기존의 법칙과 이론의 모순을 제거하는 새로운 법칙과 이론을 구성하게 될 가설(假設)들이 학계(學界)에 침투하게 된다. 이러한 침투 과정은 시간이 흘러 점차 새로운 정상과학을 구성한다.

이러한 일련의 법칙 및 이론의 교체 과정을 쿤은 '패러다임의 작용' 을 통해 설명했다. '패러다임(paradigm)' 이라는 용어는 쿤이 만든 신조어(新造語)인데, 지금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쿤은 '패러다임' 이라는 용어를 1962년에 출판된 자신의 저서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22가지 의미로 사용을 했다. 이에 대해 반대론자들이 패러다임의 의미가 너무 다양하고 때로는 모호하다는 비판을 쏟아내자, 1969년 개정판에서 패러다임을 '해당 분야에서 당대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가치 체계 또는 가치 기준' 이라는 의미로 요약해서 설명했다. 이에 대해 포퍼는 과학의 발달 과정을 패러다임의 교체 과정으로 해석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반증가능성과 연역적 연구 방법을 통해 과학이 정의되고 발달한다고 주장했으나, 현재 학계에서는 쿤의 견해가 더욱 인정받고 있는 추세이다.

[기고/임진용
(동명고 교사)]

장애인식개선캠페인

"편견없는 시각 사랑의 시작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장애인[명사] :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사람.

배려
우연 나 자신만을 위해 정신없이 달려 왔지만..
주위를 한번 둘아보면, 함께 손잡고 가길 원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장애도 살펴주세요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의 유형을 총 15가지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신체적장애, 내부기관장애, 정신적 장애와 같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그와 관련 된 장애들을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신체적장애나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정신적장애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장애의 유형이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 내부기관장애는 '장애' 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장장애, 심장장애, 간장애, 호흡기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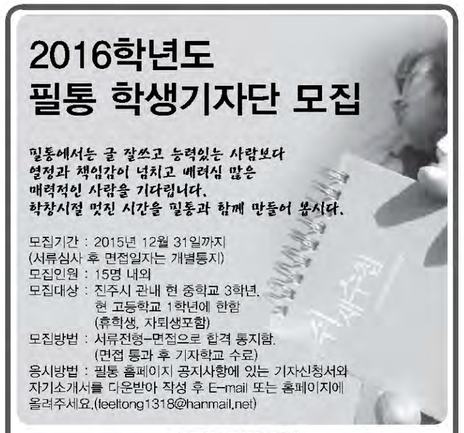
장루 및 요루장애, 간질장애는
눈에 보이지않지만 장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장애가족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세요.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교육내용 : 장애예방교육,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체험교육
신청방법 : 내방, 전화, 공문, 홈페이지(www.jjrc.or.kr)
문의 : 지역연계지원팀 TEL 055)763-6677~80 FAX 055)763-6667

사회복지법인 해인사 자미원
진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16학년도 필통 학생기자단 모집



필통에서는 글 잘쓰고 능력있는 사람보다 열정과 책임감이 넘치고 배려심 많은 매력적인 사람을 기다립니다. 학창시절 멋진 시간을 필통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모집기간 : 2015년 12월 31일까지
(서류심사 후 면접일자는 개별통지)
모집인원 : 15명 내외
모집대상 : 진주시 관내 현 중학교 3학년,
현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함
(휴학생, 자퇴생포함)
모집방법 : 서류전형-면접으로 합격 통지함.
(면접 통과 후 기자학교 수료)
응시방법 : 필통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기자신청서와 자기소개서를 다운받아 작성 후 E-mail 또는 홈페이지에 올려주세요.(feeltong1318@hanmail.net)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

형민아!

며칠 전에 내게 와서 '선생님! 우리 반 학생들에게 편지 한 통 보내주세요.'라고 말했을 때, 잠시 생각했다. 매일 만나면서 새로운 환경을 안내하고, 걸맞은 행동의 변화를 기대하는 역할에서 형민이가 건넨 말로 역할이 뒤바뀌게 되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잠시 생각했다. 대답은 '네! 편지를 쓰겠습니다.'였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생각해보니,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것을 같이 해보자고 하면 나는 '네! 같이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기를 즐거워하기 때문인 것 같다.

편지! 나의 오래된 기억 속에서 편지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희망을 글로 적어서 보내는 것이다. 참으로 오래간만에 희망을 글로 적어보는 기회를 만들어 준 형민에게 고맙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 그리고, 이 편지는 우리 반 학생들에게 글로 적어 보내는 나의 희

망이었으면 좋겠다. 막상 편지를 쓰려고 담겨야 할 내용에 대하여 생각해보니 쉽게 떠오르지는 않았다.

며칠을 내용에 대하여 생각했다. 문득! 써두었는데 보내지 않은 편지가 떠올랐다. 기억의 장소로 찾아가보니 보내지 않은 편지는 그대로 있었다. 그때 보내려고 했던 편지의 내용은 '수처작주(隨處作主)'이다. 내용을 표현한 형식은 나무에 글을 새기는 것이었다. 오랫동안 간직되고픈 희망을 내용으로 삼아 편지로 쓰려고 했다. 그래서, 힘이 들지만 표현의 형식은 나무에 새기는 것으로 정한 것이다. 편지를 받을 사람은 대학생이 된 나의 딸이었다. 편지를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주인공은 중학교 3학년이었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날에 보내려고 준비 했는데, 마무리를 하지 못하여 말로만 전하고 보내지는 못했다. 문득 보내지 않았던 편지가 지금 내가 1학년 4반에 보내려고 하는 희망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위의 글은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고,......"로 해설되어 있다. 보내지 않은 편지에서 전하려 했던 나의 희망은 지금 생활하고 있는 장소에서도 그대로 가지고 생활한다. 학교에서 생활하면서, 학교를 떠나서 생활하게 되어도, 매순간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 생활해나가는 모습을 그려보면 매번 아름답게 느껴진다. 그래서 마무리 하지 못했던 네 자의 한자로 된 편지의 먼지를 털어내고 마름질하여 진주고등학교 1학년 4반의 학생들에게 보내게 되었다. '세계로! 미래로!' 향하는 푸른 꿈을 품은 진주고등학교 1학년 4반 학생들과 생활하는 담임교사로서, 우리 모두에게 보내는 편지는 오래전의 경험으로 만들어 졌지만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진주고등학교에 입학한 때가 그리 멀지 않은 과거인데, 우리의 생각은 벌써 2학년이 되었다. 우리가 이 장소에 머무는 동안 만남은 지속되기를 기대하면서, 멀지 않은 과거를 돌아보기보다는, 앞으로 맞이할 시간동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희망을 초벌 마름질 정도로 마무리하여 보낸다. 편지가 완성되었다고 모두 느끼는 날을 기다리면서!

2015.11.18.
진주고등학교 1학년 교사연구실에서
愚空 송현종.

To. 밥친구들

안녕 밥친구들♡

같이 놀러다닌지 벌써 3년이다. 시간 진짜 빠르네 그쳐? 아무개한테 밥친구라는 소리를 들은게 벌써 3년전이고 막 그렇네 ㅋ ㅋ ㅋ ㅋ ㅋ

중학교 생활 통틀어서 그 1년이 제일 재밌었다 돈주고도 못 살 추억이니까 까먹지말고 잘 간직하도록~

아 또 이제 우리 모두 다 중3아니고 고3이니까 스트레스 안 받고 공부 열심히 하고! 내년 이맘 때에는 다들 원하던 대학 붙어서 룰루랄라 신나게 놀러가자♡! 오키? 아무튼 밥친구 해줘서 고맙다~ 평생 가자!!!

♡ 삼현여고 주민지 제일여고 민규리 경해여고 안채령 임다빈 성은수 정은채 진주여고 양유정 경남예고 옥지은 한조고 이상경 ♡

From. 세젤예민지

To. 토토로

토토로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항상 내 곁에서 나를 따뜻하게 해줘서 고마워. 우리반의 마스코트로 오래오래 함께하자. 제일여고 2학년 5반 화이또.. 제일여고는 던전이 아닙니다..

P.S. 강지현 권유주 박연우 신혜림 하지수 최서현 최서영 허은희 주정은 다 바보임 나만 빼궁~☆ 바보 보스 서민정이 인정한 최서영이 최고 바보임

FROM. 제일여고 2학년 김은지

To 몽룡이♥

벌써 5번째 편지인가?! 하

아직 편지 써 놓은거 2개 안 보냈는데.. ㅠ ㅠ 그리고 답장은 언제 오냐 ㅠ ㅠ ㅠ (답장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신문 가기전에는 오겠지? ㅎ) 진짜 이번 겨울방학때 내가 진짜 꼭 간다! 일단 저지르고 봄!

근데 이번에 편지 신문에 올리면 또 남자친구냐고 물어보는 사람들 생길 듯ㅋ ㅋ ㅋ (너는 남자로 태어났어야 했어 ㅋ ㅋ ㅋ) 저번에도 학원에서 통화~ 오래 하니까 쌤이 남자친구냐고 물어 보시던 ㅋ ㅋ ㅋ ㅋ 갑자기 보내서 놀랐지?? ㅎ

잘 ~지내고 겨울방학때 봐♥

from. -춘향이가-

To.나현

하이!!! 우리 요즘 사이가 너무 안 좋은거 같아서.. ㅠ ㅠ 불안 불안해...

아빠 때매 만나지도 못하고 해서 속상 할텐데 내가 계속 뭐라해서 미안해~ 내가 학교로 갈테니까 그때 이야기 많이하자구 ㅠ ㅠ 항상 사랑해♥♥ 내 마음알지? 우리 훨씬 더 오래가자구요!! ♥.♥

FROM. 나현이 남편 두리

사랑하는 2014 무매친구들에게

안녕! 우리 2014 무매 친구들~ 하하 신문 읽다가 놀랬지! 편지를 쓸 기회가 생겨서 깜짝 놀라게 해 주고 싶어서 말 안했지롱..

작년에 무인매점위원 하면서 디게 재밌었었는데 반도 다 떨어지고 자주 못 만나서 아쉽다나 많이 보고 싶지... 나도 너네 계속 보고싶다!
항상 니네들 생각하구 있는거 알지?! 우리 한번 또 모여서 놀아야 하지 않겠니. ㅠ ㅠ

암튼, 우리 사랑하는 쏭, 혜뎡잉, 민종씨, 예디, 영 , 그리고 갱!! 우리 고등학교 가서도 잊지말고 꼭 연락하고 지내기! 사랑해 모두들...재천쌤 사랑합니다!

FROM. 사랑하는 ㅈ ㅇ 이가

TO. 가빈소녀에게~

가빈소녀 나는 은진왕자라고 해...

2000년 11월 24일에 태어난 귀여운 소녀의 탄생일을 축하하고자 편지를 쓴단다. 가빈소녀 초등학교때부터 같은 반이 되어 중학교때도2번이나 같은 반이 되다니 이건 운명이야 같은 반이 되서 짝지도 되고 소풍가서 신나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지!

3년이나 같은 반이되었는데 생각보다 추억이 많이 없는거 같아 남은 시간 추억을 많이 만들도록하자! 또한 너와 똑같이 생긴 인형을 만들 수 있게 사진좀 찍어 주길 바래! 가빈소녀 11월 24일 너의 탄생일 정말 정말 축하하고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들께 정말 감사해!

너도 부모님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길 바랄게♡

FROM. 가빈 소녀 사랑하네♡

To 지현

(지현치라고 안하고 지현이라고 해서 어색..)

한젼 생일 축하해!!!!! 11월11이니까 이거 볼 때 쯤에는 생일 지났겠네... 그리고 우리는 시험기간이겠지 ㄸ ㄹ ㄹ 이번에 시험끝나고 놀러가자♥
(시험 잘 치고!)

추신 : 내가 준 필통 잘 써라 ㅋ ㅋ ㅋ

from. -승지-

To. 신진초 6-7반♡

하이하이~~~~ 벌써 졸업한지 3년? 4년이다. ㅋ ㅋ ㅋ ㅋ

시간 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음..... 졸업식이라고 케이크랑 과자 사들고 파티하면서 서로 막 동영상 찍고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ㄷ ㄷ .... (개인적으로는 아니지만) 아직까지 연락이 닿고 있는 게 제일 신기하다ㅋ ㅋ ㅋ ㅋ 앞으로도 오래오래!! 잘 살아가자고 ㅎ ㅎ ......!!

[김정은, 권준영, 김도혁, 김수진, 문영빈, 이은주, 이진원, 최부길, 임소정, 주진우]

From. ?

명신고 1학년10반 아이들에게~

1학년 동안 너희들이랑 같은반이 되서 좋았고 아직도 다 친해지지 못한 애들이 있어서 아쉽다. 우리반에 최우녕 서지훈 심명규 정민찬 석기현 윤정운 친구로써 사랑한다.

2학년 되서도 계속 친하게 지내자~♥

from. 명신고 1학년 10반 김종민

To.진고 2학년 6반!!

2학년 6반 친구들아 오지 않을거 같았던 3학년이 다가 오네~ 나이는 시간에 비례 하는거 같다. ㅋ ㅋ 올 해는 수업시간에 많이 졸긴 했지만 3학년 때는 안 졸 꺼라고 약속한다. 수학여행때도 재밌엇는데 친해질 수 있는 기회도 있엇고 즐거웠지ㅋ ㅋ 암튼 1년남았다!

6반 끝까지 파이팅!!!

FROM. 진고 2학년 강지환

필통 우체통은 진주청소년신문 필통의 독자 여러분의 공간입니다.
필통 지면을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나 편지, 고백글, 여러분들의 학교나 생활속의 재미있는 사연을 함께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참여하시고 싶은 독자분들〉
필통 홈페이지(www.ifeeltong.org)에 따로 마련된 〈필통 우체통〉 게시판에 올려 주시면 매월 신문에 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사연과 사진을 남겨 주셔도 됩니다.

필통우체통

TO. 훈두&쏘영

나 장미얌 ㅋ ㅋ 내가 이런 글을 쓰게 될 줄이야 ㅋ ㅋ 중3 때만해도 우리 셋이 친해 질거란 생각은 못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신기해. ㅋ ㅋ

처음엔 나만 다른 학교여서 너희들과 멀어질 거란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더 자주 보고 친해지면서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생각이란 걸 알았어. ㅋ ㅋ

너희들과 놀고 공부하던 것이 생각 날 때마다 행복함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 ㅋ ㅋ

이제 예전처럼 자주는 못 보지만 아프지 말고 고등학교 생활 열심히 보내고 졸업한 후에도 계속 만나쟝!!♥

FROM. 진주여고2학년 김장미

칠반이들 안녕!!!

우리 만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ㅠ ㅠ

우리반 항상 조용하지만 나름대로 활기차고 즐거웠어! 고등학교 잘 가고 하고 싶은일, 하고싶은 꿈 꼭 이뤄서 멋진 모습으로 만나자.♥ 중학교 생활의 마지막을 너희들과 보낼수 있어서 너무 좋고 항상 고맙고 미안해! 졸업해서도 잘지내 사랑해 칠반!!!♥

FROM. ?

다갱이 나는 니 폰에~

다갱이 나는 니 폰에 밉상년♡ 이라고 저장 되어 있는 애야... 내가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눈치 빠른 니 때문에 들켜버렸다. ㅋ ㅋ 이번에 옷이랑 신발선물은 고마웠어♡ (갑작스러워서 놀랐지만...♡) 비록 내키로 인해 짧아진 그 옷은 다시 돌아 갔지만 그옷이랑 교환한 치마는 내 키에도 맞으니까 잘 입을 수 있다. ㅎ ㅎ

진짜 웬만큼 힘들지 않으면 금방 원래대로 돌아오던 너였는데 이번년도에 들어서 많이 힘들어하는 너를 보면서 친구로써 진짜 속상했다.. 너도 그렇겠지만 솔직히 나는 너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줄 몰랐어.... 그렇게 힘든데 잘 견뎌주고 씩씩하게 지내줘서 고마워~ 나는 항상 자기가힘들일만 너한테 털어놓고 정작 니가 힘든건 몰라주고 짜증만 내는 누구처럼 안될테니깐 니가 힘든거 다 나한테 숨기지 않고 말해줬으면 좋겠어. ㅎ ㅎ

우리가 멀리 놀러가진 못해도 근처라도 계속 놀러 다니면서 평생친구하자. 니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던 이모(우리엄마)가 너랑 대학도 가까운데 가거나 같은데 가서 계속 붙어 있었으면 좋겠네... ㅋ ㅋ (근데 나 중학교때는 좀 괜찮았는데 너랑 같이 갈수 있는 성적이었는데 지금은.... ㅋ ㅋ ㅋ)

하여튼 우리랑 맞지않은 이런 오글거리는 편지 기다리고 읽어줘서 고마워 이거보면 말해♡

FROM. -ㄱ ㅇ ㅇ-

TO.작년 1-2반 토끼들에게

안녕 얘들아! ㅎ ㅎ 1학년이 지나고 이제 2학년도 얼마 안 남았어... ㅜ

입학할 때 반 편성 꼴등이였지만 학기말에 성적4등까지 오르고, 영어 단어는 담임쌤덕에 1등하고 ㅋ ㅋ ㅋ 그래도 우리는 다른 반이 부러워할 정도로 놀러도 가고 재밌게 노는 건 2반이 짱이었어. ㅋ ㅋ
우리반 반장 건희야~ 맨날 말 안 듣는 2반애들 먹여주고 웃겨주고 잘 이끌어줘서 고마웠어 종업식날 애들 하나하나 편지까지 써주고 ㅠ ㅠ 그때 말 못했지만 엄청 감동이였다. ♡ ♡ ㅋ ㅋ
그리고 2반 옛 토끼 아버지~ 작년 1년 동안 저희 덕분에 재밌으셨죠? 교무실에 찾아가면 땅콩이랑 아몬드, 검정콩 주시고.. 1학년이 지난 2학년 되서도 2반애들 챙겨주셔서 감사해요 ㅎ ㅎ 3학년때도 잘 부탁드려요♡

선생님 덕에 애들이랑 빨리 친해졌던거 같아요. ㅋ ㅋ 졸업하고 나서도 다같이 찾아 갈게요♡ 이걸 볼 때 쯤이면 2학년 마지막시험쯤이겠지. ㅠ ㅠ ㅠ ㅠ 마지막 시험까지 열심히 해서 잘치자~~! 우리이반 2학년되서 반장2명에 심화반도 많이 들어가고 학교 임원도 있고 많이 성공했잖아! 앞으로 이대로만 열심히 살아서 10년 뒤에 만나자 ♡ ♡ ♡

FROM. -지은, 채화가-

To. 5반 미니언들

안뇽 미니언들 ㅎ ㅎ ㅎ 처음 만난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 그거아나? ㅋ ㅋ 니들은 공부 잘 하는데 나만 못해서 엄청나게 찔렸던거... ㅋ ㅋ ㅋ ㅋ ㅋ 여튼 이렇게 편지 쓰는 이유는 영주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냥 한번쯤은 써보고 싶었어 ㅋ ㅋ 5반 되면서 너희들이랑 같이 놀고 같이 지내는게 너무나도 좋았고 재미 있었어...

특히 개천때!! 그때 다 모이지 못해서 많이 아쉬웠지만 나한테는 정말 재미 있었어. 그리고 최근에 갔다온 경대!! 그때 나의 본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지... ㅋ ㅋ ㅋ ㅋ 좀 아쉽다.. 하하... 막상 생각해보면 놀았던 적이 별로 없지만 재미 만큼은 엄청난거 같아 ㅋ ㅋ ㅋ 이제 너희들이랑 같이 못 놀고 못지낸다는게 너무 아쉽다.. 이제 우리 고등학교 가야 되는데 고등학교가면 당연히(?) 다 다른학교로 가겠지? ㅠ ㅠ

너희들은 안정적으로 가겠지만 난..하하하하 ㅏ ㅏ ...하하하 ㅏ ...하... 답이 없네.. 너희들이랑 지내면서 같이 공부 좀 할걸..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어쨌든 고등학교가서 잘 지내고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꿈 이루었으면 좋겠다.

호리!! 넌 정말 과학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 관심이 많은것 만큼 과학도 잘하는거 같아.. 뭐 다른 것도 다 잘하지만!! 너의 공부법 좀 알고 싶다.. 알아도 거기서 거기지만 ㅋ ㅋ ㅋ

나영이!!넌 공부도 잘하고 그림도 잘그리고.. 너의 그 영어 ~을 배우고 싶다. ㅋ ㅋ

영주!! 하~영주야 서프라이즈는 선물(?)같은 걸로..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장난이얌 ㅋ ㅋ ㅋ 넌 그래 너도 잘하지.. 공부... 넌 귀신같아.. 맨날 같이 가다가 사라진다니까... 그러다가 또 어디선가 나타 ㅋ ㅋ ㅋ ㅋ 넌 참 신기 ㅋ ㅋ ㅋ ㅋ

민채!! 어우 3년 같은반 ㅋ ㅋ 넌 아이유(?)어린시절 모습을 닮은거 같아.. 한마디로 예.쁘.다. 거기에다 공부도 잘해 그림도 잘 그려 과연 신은 공평한 걸까..?? ㅋ ㅋ ㅋ 하하하 ㅏ 민채 넌 맨날 내 장난에 당하지 흐흐 재미있단 말이지흐 ..

하정이!! 넌 음 어 뭐 음 아 토끼를 닮았어. 눈이 똥글똥글 똘망똘망 땡글땡글 어 음...하하하 그래 하하하 ㅏ 너..너도... 공부를 하...잘하지..그래 음..하하 그래 한번 더 물어 볼게 신은 과연 공평한가.

아 뭐 이 편지 막 적은거라 말이 안될 수도 있으니까 각자 잘 알아들어 뭐 너희들은 공.부.잘.하.니.깐.(장난)

From. 은주가

to. 오늘의 오마갓

안녕친구들 ㅎ ㅎ 이런거 처음해 본다. ㅋ ㅋ ㅋ

중 2때 처음 만나서 엄청 엄청 재밌게 놀았는데 요새는 서로 연락도 뜸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느라 못 만난거 같다. 저 사진이 우리 다 같이 만난 마지막날인가? 작년인데 ㅎ ㅎ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업 가지고 성공해서 나이 먹고 수다나 떨자! ㅎ ㅎ 그리고 4년 우정 더 오래오래 갑시다!! 빠빠빠이~♥

FROM. - ?

to. 소세영소이

2011년 때 처음만나서 서로 말하기까지 진짜..기억도 안난다. 우리 중1때 뭐했었는지 기억나냐? ㅋ ㅋ 중1 땐 소영이집에 자주 가서 얘기하고 그랬는데.. 중2쯤 되니 각자반 적응하느라 서로 잘 못 챙기고.. 벌써 각자 다른 고등학교로 갔네!! 잘 지내고 있지? ㅎ

소영이는 필통하면서 지낼꺼 같고 소이는 자격증 계속 딸꺼고.. 세영이는 공연준비나 입시준비 할테고 난 솔직히 정말 변한게 없어. 여전히 학교공부는 안하고 나만의 세상의 세상에 빠져있지. ㅋ ㅋ ㅋ 대학은 못 갈 것 같다.(그래도인문계인 ㅋ ㅋ) 으 막 요즘 춥다. 이건 뭐 가을 빵빵때리고 새치기하듯 겨울이 바로 오니깐.. (가을 다 어디갔어!) 건강관리 잘 하구 각자하고 싶은 일 열심히 찾아가길 바래~♡ 나도 그럴려고 ㅋ

FROM. -J- forever

to 영준

1학년6반 이영준!!
이제 정신좀 차리고 착하게 살자 ㅋ ㅋ ㅋ
형이 항상 너를 믿는다. 형이 너 사랑하는거 알쥐..?? ㅋ ㅋ

이 글 보고 감동먹지 말고.. ㅋ ㅋ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자 ㅋ ㅋ

from. ?

[취재/정소영(삼현여고2), 황주일(진주기공2), 최부길(진주고1)기자]

주최 :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진주지부　　제작 :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후원 : 2015 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7편이 업로드,
하준승의 청.바.지/ 박주희의 필통통신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필통 청소년팟케스트, '청소년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우리 청소년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그 어떤 제한 없이 자유롭게 학생들의 생각을 마음대로 이야기해보는 공간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거나 교육적인 잣대로 정답을 찾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입장과 생각을 그들의 시각으로 그들의 사고로 편안하게 수다를 떨어보는 자유로운 팟캐스트 방송입니다.

청소년들이 만들어가는 팟캐스트 방송이 흔하지 않은 만큼 학생들의 많은 성원과 참여가 있었으면 합니다. 어른들 또한 청소년들의 생각을 들여다보고 소통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였으면 합니다.

필통 팟캐스트 방송 '청소년 너의 목소리가 들려'는 경남 민예총 진주지부가 주관하고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이 직접 제작 방송하고 있는데 진주시에서 후원하는 〈진주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필통팟캐스트 듣는 방법

1.필통 팟캐스트 전용 앱을 설치 한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후 다운)
2.아이폰은 아이튠즈에서 '필통' 검색후 구독.
3.팟빵등 팟캐스트 검색앱을 다운 받고 '필통' 검색후 구독.
4.컴퓨터에서는 팟빵싸이트에서 검색 또는 필통 홈페이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필통네모 로직퍼즐

독자여러분! 필통 네모로직 퍼즐 퀴즈를 풀어 완성된 퍼즐그림을 사진으로 찍어 필통 홈페이지(www.ifeeltong.org)에 마련된 〈자유게시판〉 게시판에 올려 주시거나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아이디 〈feeltong1318〉을 검색해 톡으로 전송해 주세요.

[이번 호는 12월 31일(목)까지 접수분에 한해 추첨합니다]

보내주신분들 중 추첨을 통해 15분을 추첨해 2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을, 또 13명에게 문화상품권 5천원을 각각 드립니다. 당첨되신분들은 필통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다음호 신문에 게시합니다 .

※ 네모로직이란?

칸이 있는 숫자퍼즐로, 윗쪽과 왼쪽에 있는 숫자들 만큼 칸을 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퍼즐이라고 합니다. 가로 세로의 숫자가 가진 규칙을 활용해 한 칸 한 칸 색칠해 그림을 완성시키는 퀴즈입니다. 공부하다 잠 올때, 스트레스 풀이용으로 도전해 보세요. 필통으로 보내주시면 당첨 확율 무지 높은 것 아시죠^^

〈로직의 기본 규칙〉

1. 문제의 위와 왼쪽에 있는 숫자는 해당열 안에서 연속해서 칠 할수 있는 칸의 수를 의미한다.
2. 한 열에 여러 개의 숫자가 있는 것은 숫자의 순서대로 숫자만큼 칸을 연속해서 칠함
3. 칠해지는 숫자와 숫자 사이에는 반드시 한칸의 이상 의 공란이 있어야 한다.

( )학교 ( )학년 ( )반 이름 ( )

Feel Tong ifeeltong.org

	14	15	16	13	3 1 3	2 1 6 1 1 1	2 1 1 3 1	2 1 9	2 1 1 5	2 1 6 1 1	2 5	2 1 3 5	2 1 1 1 1 5	2 1 1 1 5	2 1 1 1 1 1 5	2 1 3 5 1 1 1	2 1 3	13	17	16
11																				
1 3																				
2 2																				
2 3 5 2																				
2 3																				
3 5 5 3																				
4 1 1 1 3																				
4 1 1 1 5 3																				
4 1 1 1 3																				
4 1 1 1 5 3																				
4 1 1 1 1 1 1 3																				
4 1 1 1 5 3																				
4 1 1 1 1 1 1 3																				
4 1 5 3																				
4 3																				
3 3 3 1 3 2																				
3 1 1 1 1 1 2																				
3 3 1 1 1 3 2																				
3 1 1 1 1 1 1 2																				
3 3 3 1 3 2																				

[지난호 당첨자] 축하드립니다! * 지난호 네모로직퍼즐 문제에 오류가 있었던 점 사과 말씀 드립니다.
1등 (1만원 문화상품권/2명) : 허태석(명신고 2-6)/ 송이은(진주제일여고 1-7)
2등 (5천원 문화상품권/13명) : 민세연(진주동중 1-2)/ 고수현(사대부고 2-3)/ 백의인(진양고3-1)/ 박진이(진주여고 1-7)/임송현(진주제일여고 2-6)/ 장희락(삼현여고 1-10)/ 곽동욱(동명고 2-5)/ 황지원(중앙고 2-7)/ 강민경(개양중 3-3)/이덕인(진주고 2-8)/문소연(진주여중2-3)/정건호(봉원중 3-4)/이혁준(대아고 3-3)
※당첨된 분은 학생기자 또는 선생님이 문화상품권을 전달해 드립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만일 받지 못하는 경우 필통으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070-8628-1318)

종이로 인쇄하고 SNS로 홍보하고
더좋은 인쇄 & web 디자인 The Good Printing & Web Design
055) 763-7630
gooddnp.com
더좋은 인쇄 & web 디자인 에서만 가능한 특별한 디자인!
포스터, 전단, 리플렛 제작과 함께 제작된 인쇄물을 모바일기기에 맞게끔 웹용으로도 맞춤 제작해드립니다. 이제 쉽게 홍보하세요~^^
■ 명함 ■ 봉투 ■ 감사패 ■ 홈페이지제작
■ 전단지 ■ 초대장 ■ 현수막 ■ 쇼핑몰제작
■ 포스터 ■ 청첩장 ■ PPT편집 ■ 오픈마켓 디자인
■ 리플렛 ■ 쿠폰 ■ 출판 ■ 카페 디자인
■ 팜플렛 ■ 티켓 ■ 블로그 디자인
■ 카달록 ■ 판촉물 ■ 홈페이지배너
■ 스티커 ■ 논문 ■ 모바일광고전단

(주)큰누리상사 강갑진 강건욱 강길선 강동성 강동혁 강동현 강미옥 강민구 강민아 강병구 강병구 강석순 강윤미 강은주 강정구 강정무 강정태 강정혁 강종혁 강지훈 강진영 강진홍 강진희 강철 강태길 강태룡 강호영 고능석 고도형 고명정 공민정 공태원 곽기출 구삼숙 권락현 권민수 권선혜 권선화 권순민 권순제 권명길 권명보 권영숙 권영현 권정애 권춘현 권혜경 김가희 김경도 김경민 김경순 김경호 김계일 김경환 김광호 김국철 김귀영 김기덕 김기종 김단우 김동우 김달연 김동현 김두점 김명수 김미경 김미경 김미숙 김미향 김민경 김민석 김민석 김민욱 김민정 김보성 김봉철 김선영 김선용 김성현 김성효 김순옥 김연옥 김연화 김연희 김영남 김영주 김영준 김영준 김오용 김용근 김용숙 김유미 김은미 김은옥 김일석 김장홍 김정숙 김정훈 김종길 김종신 김종주 김종찬 김좌민 김중희 김진석 김진영 김천환 김태영 김태진 김택균 김현민 김현식 김형선 김형점 김홍수 남기태 남두용 남점만 남필 노경란 노규태 노병주 노태경 노태인 노화식 도금숙 두성식품 드림오션스 류재수 류지효 마기수 문창현 민경옥 민병욱 박경희 박동구 박동만 박문기 박문범 박미영 박미희 박민숙 박민정 박범주 박병도 박보근 박상범 박상소 박상희 박성기 박성진 박성훈 박수선 박수연 박영석 박영선 박우경 박은진 박인규 박인숙 박장용 박정배 박정선 박정헌 박정희 박종환 박준옥 박지윤 박태환 박학수 박현정 박혜옥 박회원 박흥준 반성우 방성철 방한영 백병근 백서연 백승대 백은숙 백인구 변옥희 빈중관 서도성 서동욱 서성룡 서소연 서은애 서지명 서현주 석진희 성순옥 성진혁 성태기 성태현 손동명 손병석 손영아 손정현 송민정 신성애 신영미 신한동 안병옥 안상도 안상열 안순덕 안용준 안정현 안탁열 양규석 양옥순 어인준 여송 오량 오준희 오현명 우광일 원지연 유강수 유명한 유병주 유재용 유재한 유현성 유현수 유현준 육근아 윤경선 윤돌남 윤도병 윤상국 윤성민 윤인석 윤재진 윤혁노 윤현준 이경애 이경희 이곤정 이기 이기관 이길릴 이동철 이미경 이미희 이민재 이민호 이상권 이상영 이상진 이상태 이상태 이수경 이양석 이영균 이영원 이왕준 이용구 이용희 이우기 이욱헌 이유정 이은경 이은영 이은영 이은주 이은주 이인자 이재석 이재헌 이정숙 이점숙 이정옥 이정후 이종원 이주미 이충석 이태수 이한진 이혜숙 이현미 이회숙 임병선 임병재 임석 임소정 임재관 장경외 장일순 전민규 전상훈 전진우 정경숙 정고운 정기섭 정기홍 정길란 정동균 정명교 정문수 정미숙 정민경 정보라 정석희 정성령 정세정 정승인 정승환 정연근 정연호 정은영 정재윤 정정환 정종근 정종해 정창교 정철효 정한웅 정현대 정형숙 조경민 조남식 조봉준 조상민 조성태 조성환 조숙은 조영주 조우영 조원혁 조은해 조은화 조은희 조재경 조재우 조한진 조현규 주선경 주점옥 주정희 지외식 진수찬 진애희 진옥순 진재필 진호원 차명지 차영석 천수인 천윤권 최다성 최상일 최성재 최성환 최승희 최연주 최유동 최재심 최정민 최지원 최지윤 최진철 최현수 최현옥 추수현 탁정수 하경봉 하상수 하윤지 하중영 한기민 한신주 한영식 한형도 허귀용 허문봉 허윤종 허종화 형경희 황규민 황수영 황진희 이경민 김상옥 정강우 김민성 홍혁 이여진 강대민 심주근 김덕수 김성미 김성진 박민지 오죽심 조재선 조은수 조미란 방정숙 오정세 박철효 김진희 정행정 최미 김진영 하치상 강경윤 하병철 정세윤 강윤호 정영동 김현호 강명석 김은영 김보영 조정대 도정욱 조혜영 박상원 문은진 홍선인 김성미 백종혁 송효진 김진순 조덕이 박정숙 정응학 양우현 김혜진 이미란 주동안 이상원 곽승욱 김민영 이병송 서정득 이정현 신추경 배승주 신승윤 허옥주 정영문 허정림 김영애 이혜영 김인석 백정민 김근용 진혜숙 양해영 배성희 조은솔 정의환 김중호 박성일 윤영철 안규리 김창우 임경섭 김창환 조수환 이도연 강진성 권만옥 최형식 김선혜 김동완 김호준 박수홍 하기용 안양준 김철호 정주용 손송이 정우영 유현진 손영진 박재광 김병현 이재승 이영주 송차용 용홍출 김명은 정미영 김혜선 김상목 문기봉 김지현 구민근 김혜경 김숙경 문기봉 김지현 구민근 김혜경 김숙경 서대득 김수동 정운용 강무성 박수연 윤영대 김시라 김성곤 김원연 송미경 임미경 심낙섭 강성진 김철식 강효승 이상유 최용환 김연희 김영화 배영식 정귀란 박규남 최호정 고재경 고병순 김정미 정예솔 김미자 권성표 김현숙 백인수 배순덕 배유미 정봉근 강은미 이진희

한살림
한살림 경남은
필통과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후원합니다

진주 icoop 생협
필통을 후원합니다.
필통을 진주의 자랑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필통지정 배부처 | 〈천전동〉글라스박스/채선당/제일좋은약국/소소책방/산철헤어/초록마을/커피포트/콩세상/칠암주민센터/녹원어린이집/진주남교회/크니크니/석윤호수학/동훈서점/신상록서점/소문난서점/신한샘서점/커피볶는〈신안,평거,이현동〉바람이불어오는곳/블레스유/황금알감자탕/한빛약국/장안미소/신세계수영장/만리장성/사해방/와바/띠아모/화가의정원/오꾸닭/큰바위서점/진주문고/eie어학원/진주평화교회/아이쿨진주생협/안정현플라워/삼보서적/키튼/대아서점/여중문고/성지원〈시내지역〉제일안경원/동산교회/다원/죽향/대호김밥/송강식당/진주교회/포스타/포스타/문학당서점/예원/대양서적/메이지/펄칫제작소/한양꽃집/YMCA/엘리트교복/학생사/교학사/디스커버리/노스페이스/극단현장/블랙야크/필라이옷도어/오프로드/노프케이프/요미요미/카코이돈부리/숲/박대출의원/본안경원〈가호동〉엠비씨네/진주문고/부에나비스타/윗치스/진주시민미디어센터〈도동〉진주시청/YWCA/상록사진관/진양도서/하이아트/이노티안/쉐프랑/진주텃밭/닭그락/은행나무/교문서점/알파문구/하이프렌즈문구/드림문고/드림오피스〈상봉,봉곡동〉문학당서점, 형설서점

사단법인 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FEELTONG
(우) 660-980 경남 진주시 남강로 720 (옥봉동, 2층) / 1999년 4월 9일 창간 / 등록번호 진주라00001(월간) / 발행인 인쇄인 대표이사 이혁 / 편집인 편집국장 김가희
전화 070-8628-1318 팩스 0303-0957-1318 / 홈페이지 www.ifeeltong.org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